

수교기념 문화행사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20.4

미래산업전략연구소

연구진

연구책임

고정민 (미래산업전략연구소 소장)

공동연구원

김선영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박지혜 (미래산업전략연구소 위촉연구원)

보조연구원

김동영 (미래산업전략연구소 연구원)

공태현 (미래산업전략연구소 연구원)

자문위원

강예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교류기획팀 팀장)

김은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교류기획부 부장)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용호성 (전 주영한국문화원장)

전진성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팀장)

차재민 (주영한국문화원 전시담당자)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홍기원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문화행정학과 교수)

Jean-Christophe FIEURY (프랑스문화원장)

KÁLMÁN Andrea (헝가리문화원장)

Sam Harvey (영국문화원장)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나. 연구목적	2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과업수행 방법	5
 제2장 국제문화교류 현황 및 환경분석	7
제1절 국제문화교류 체계분석	7
가. 국제문화교류의 의미와 범주	7
나. 국내외 국제문화교류 트렌드	12
제2절 국내 국제문화교류 현황	18
가. 기간별 국제문화교류진흥 정책	18
나. 정부 기관의 국제문화교류 정책 현황	21
제3절 해외 국제문화교류 현황	26
가. 국가별 국제문화교류 현황	26
나. 국제문화교류 사례분석 : 시즌제	34
다. 시사점	41
 제3장 수교기념 문화행사 역할 및 현황분석	54
제1절 국내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역할	45
가.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국제문화교류로서 의미와 역할	45
제2절 국내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현황분석	50
가. 수교기념 문화행사 절차	50

나.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추진체계	52
다.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추진현황	57
라. 수교기념 문화행사 실적 및 성과	64
마.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문제점	70

제4장 국내외 수교기념 문화행사 사례분석77

제1절 국내 사례분석	77
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77
나. 2017-2018 한-영 상호교류의 해	90
제2절 국외 사례분석	104
가. 2018 일본-러시아 상호교류의 해	104
나. Japonism 2018(일본-프랑스)	106

제5장 수교기념 문화행사 발전방안 및 추진과제4

제1절 수교기념 문화행사 기본 계획	114
가. 수교기념 문화행사 비전·목표	114
나. 수교기념 문화행사 기본 방향	114
제2절 수교기념 문화행사 세부 추진전략	121
가. 세부추진계획	121

표 목차

[표 2-1] 국제문화교류 사업 대분류표	9
[표 2-2] 국제문화교류 영역별 세부 활동 분야	10
[표 2-3] 1-3차 Creative Europe 계획에 나타난 교류방법	31
[표 2-4] 2019-2020년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정책 현황 분석 결과	5
[표 2-5] 주요 국가별 국외 문화교류 기관의 권역별 설립 현황(2018년 기준)	6
[표 2-6] 중국 「일대일로 문화발전행동계획(2016-2020)」	4
[표 2-7] 2017년 일본, 2019년 독일에서 진행된 러시아 시즌 주요 행사 목록	9
[표 3-1] 2015-2019 수교문화행사 대상국가 분장 현황	4
[표 3-2] 2015 수교국가별 세부 행사 및 프로그램	9
[표 3-3] 2016년 수교국가별 세부 행사 및 프로그램	10
[표 3-4] 2017년 수교국가별 세부 행사 및 프로그램	16
[표 3-5] 2018 수교국가별 세부 행사 및 프로그램	26
[표 3-6] 2019년 수교국가별 세부 행사 및 프로그램	36
[표 3-7] 한-불 수교기념 행사 분야별 사업 수 및 관람객 수	5
[표 3-8] 2018년 수교기념 문화행사 추진실적	7
[표 4-1]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 인증절차	1
[표 4-2] 한-불상호교류의 해 문화예술분야 공식인증사업	2
[표 4-3] 한-불 상호교류의 해 주요 공동제작 사업	3
[표 4-4]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양국 주요홍보사업	5
[표 4-5] 한국 내 영국의 해 시각예술 프로그램	3
[표 4-6] 한국 내 영국의 해 공연예술 프로그램	5
[표 4-7] 한국 내 영국의 해 영화 프로그램	8
[표 4-8] 한국 내 영국의 해 기타 프로그램	8
[표 4-9] ‘자포니즘 2018’ 공식기획, 특별기획 프로그램(전시)	10
[표 4-10] ‘자포니즘 2018’ 공식기획, 특별기획 프로그램(공연)	10
[표 4-11] ‘자포니즘 2018’ 공식기획, 특별기획 프로그램(영상)	21
[표 5-1] 권역별 분류기준	1
[표 5-2] 선진국 분류 지표	1
[표 5-3] 권역별 수교기념 문화사업의 원칙	6

그림 목차

[그림 1-1] 수교기념 문화교류정책 비전 및 전략 수립의 필요성	2
[그림 1-2] 수교기념 문화행사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수행 절차	6
[그림 2-1] 국제교류의 개념 변화	8
[그림 3-1] 수교문화 행사 절차	05
[그림 3-2] 수교기념 문화행사 추진체계	35
[그림 3-3] 국제문화교류 지원체계	55
[그림 4-1]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 로고	8· 7
[그림 4-2] 한-불상호교류의 해 조직	0 8
[그림 5-1]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비전 및 목표	4
[그림 5-2] 시즌제의 수교기념 문화행사 단계적 병행 전략	2
[그림 5-3] 수교국별 목표 및 평가 기준	8
[그림 5-4] France Danse 공연 포스터	135
[그림 5-5] Bridging Home, London 1	141
[그림 5-6] Bridging Home, London 2	141
[그림 5-7] 박주연 작가의 Twenty Times a Thousand (2019)	2
[그림 5-8] 아오모리 현대미술관 외관	4
[그림 5-9]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	4
[그림 5-10] 공자아카데미 로고	9
[그림 5-11] 공자아카데미 장학지원	9
[그림 5-12] 팝업 뮤지엄 예시1	6
[그림 5-13] 팝업 뮤지엄 예시2	6
[그림 5-14] 치매 가족 프로그램 예시1	6
[그림 5-15] 치매 가족 프로그램 예시2	6

제1장 연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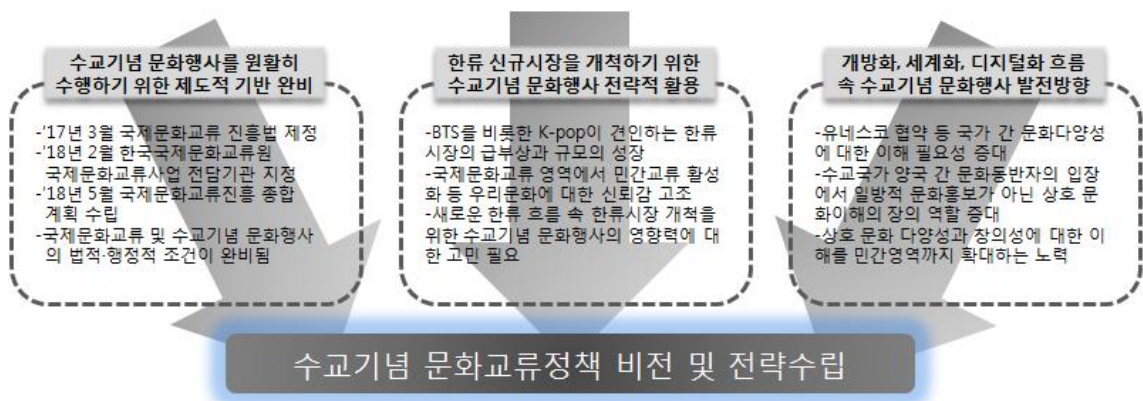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뉴미디어에 의한 개방화, 세계화 및 디지털화 등에 따라 전 세계적인 문화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문화교류의 대내외적 양상 또한 다변화됨
- 글로벌화와 다문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 공동체는 문화적 다양성 증진을 위한 협약(유네스코)을 채택하는 등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기반으로 한 국가 간 문화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음
 - 다양한 국가의 국제문화교류 행사들 또한 단순히 자국 문화의 일방적 홍보 수단이 아닌 상호문화의 이해와 새로운 경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 또한, 문화교류 활동은 국제사회의 정치·경제 상황 속에서 개별적인 행사가 아닌 보다 복합적인 외교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에 수교기념 문화행사도 상대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을 기념하기 위해 문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양국 간의 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 걸쳐 양 국민 간 민간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최근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한류를 통해 국제문화교류의 양상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음
- 민간차원에서 K-pop을 필두로 하여 급속도로 성장한 한류는 국제 문화교류의 영역에 있어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되어 왔음
- 특히 BTS를 비롯한 K-pop이 견인하는 한류시장의 급부상은 유례없는 민간교류 활성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신뢰감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수많은 수교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사가 수교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문화행사 방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교관계를 수립한 상대국과 이를 기념하기 위한 ‘수교기념 문화행사’를 10년 또는 25년 주기로 개최하고 있음
 - 또한, 단순히 수교일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점수교국의 경우, 정책적으로 특별한 계기를 마련해 다양한 문화교류행사를 추진하고 있음
- 국가와 민간 차원의 국제문화교류를 통해 축적한 문화예술적 감수성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을 소개할 수 있는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발전방안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 궁극적으로 수교국가와 상호 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넓혀가야 한다는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그림 1-1] 수교기념 문화교류정책 비전 및 전략 수립의 필요성



나.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국가 간 수교를 기념으로 하는 문화교류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제문화교류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수교기념 문화교류정책의 기본 방향 및 비전 목표를 제시하여 수교국과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문화다양성을 확대하여 세계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국제문화교류의 목적을 달성
- 수교기념 문화행사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국제문화교류 차원에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 등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
 - 수교기념 문화행사가 가지는 국제문화교류라는 주요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비전 및 목표 제시
 - 수교기념 문화행사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를 보다 다양한 권역의 수교 국가에 이해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연구 주요 내용

- 국제문화교류 환경변화와 주요 트렌드 등 외부환경요인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 국제문화교류의 개념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 시행
 - 국내외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언론, 통계 분석 등을 통한 외부환경요인 분석 및 시사점 제시
- 국내외 수교기념 문화행사 현황분석을 통한 한계점 및 개선방향 도출
 - 수교기념 문화행사 추진체계 및 사례 검토를 통한 한계점 분석
 - 최근 5년간 우리 주최 행사와 타국 주최 행사 사례 비교분석
-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벤치마킹 가능성 검토
 - 주요 수교국의 국제교류 문화행사 사례 비교 분석
 - 현지 현황 파악을 위한 관계자 및 참가자 유·무선 인터뷰 진행
- 지원기관 관계자 및 국제문화교류 전문가 의견 자문
 -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수교기념 문화행사 현황 및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향후 대응방안 도출
 - 수교기념 문화행사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국제문화교류 발전방안 및 추진과제 도출
- 수교기념 문화교류정책 기본방향 및 비전 목표 제시
 - 비전/목표/추진전략/실행과제 및 개선방안/실행사업(안) 제시
- 중점협력국과의 종합적 문화교류(안) 제시
 - 추진전략/실행과제 및 개선방안/실행사업(안) 제시

나. 과업수행 방법

□ 주요 연구수행 방법

○ 기존 문헌조사

- 국제문화교류와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상호 개념과 범위 설정을 위한 기초 문헌조사,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언론 보도, 통계 분석 등 시행
- 국제문화교류 환경변화와 주요 트렌드 등 외부환경요인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및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 지난 5개년간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양태 및 수행결과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이슈를 도출

○ 주요 협력국의 국제문화교류 및 수교기념 문화행사 사례분석

- ‘2018 일본-러시아 상호교류의 해’의 프로그램 준비 및 성과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Japonism 2018(일본-프랑스)’의 프로그램 준비 및 성과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와 주요협력국과의 수교기념 문화행사 진행 사례분석

-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프로그램 준비 및 성과 분석을 통한 향후 발전방안 및 추진과제 도출
- ‘2017-2018 한-영 상호교류의 해’의 프로그램 준비 및 성과 분석을 통한 향후 발전방안 및 추진과제 도출

○ 관련 전문가 심층 인터뷰

- 국제문화교류와 수교기념 문화행사에 관련된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기존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한계점 파악 및 향후 발전방안 도출
- 주한영국문화원, 주한프랑스문화원, 주한헝가리문화원 원장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와 수교기념 문화행사를 진행했던 소감 및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 외 타국과의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진행상황에 대해 자문
- 해당국의 수교기념 문화행사에 관련한 실무자 인터뷰 진행 및 벤치

마킹 사례 도출

[그림 1-2] 수교기념 문화행사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수행 절차



제2장 국제문화교류 현황 및 환경분석

제1절 국제문화교류 체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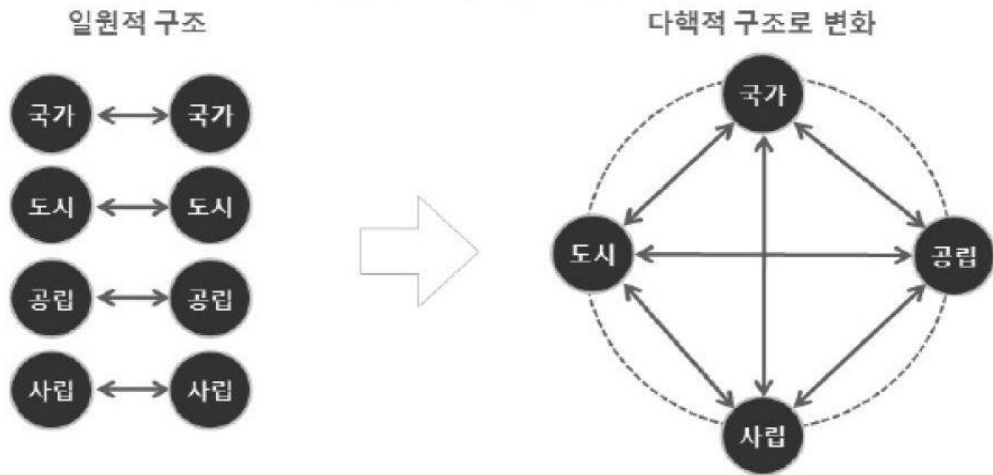
가. 국제문화교류의 의미와 범주

□ 국제문화교류(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의 정의

- 세계화가 진척됨에 따라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자국 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세계의 나머지 문화에 대한 지식 및 이해를 가질 필요가 커짐
 -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점차 커지면서 이웃한 국가를 용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이점을 인정하고 나아가 타국 문화에 관한 연구를 심화 것이 필수적인 환경이 됨
 -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친숙함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하고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
- 최근 국제문화교류 활동은 개인과 민간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매개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교류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국가 간·지역 간의 국제문화교류 활동도 활발하게 증가하는 추세
 - 국가 간의 문화교류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문화에 대한 상호 존중은 물론 문화 간 대화 능력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1980년대 이전의 국제교류 활동이 계급적이고 권력적인 특징이 강했다면, 최근 국제교류 활동은 다층적인 성격을 지님¹⁾
 - 과거 국제교류가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방정부나 하위단위에 전달하는 수직적 전개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여러 주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다차원적 협력 형태를 취하게 됨
 - 따라서 진행되는 주체도 과거의 국가 대 국가, 도시 간의 일원적 구조에서 벗어나 도시, 국가, 초국가, 민간 등 다핵적 구조로 변화함

1) 김새미(2016), 유럽 문화도시 환경조성에서 나타난 국제문화교류 거버넌스 연구:2008 리버풀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ECoC) 사례, 『다문화사회연구』, 9(1), 127-164.

[그림 2-1] 국제교류의 개념 변화



출처: 문화부 2007.

- 국제문화교류의 개념은 시행 주체와 교류활동의 단위 및 분야에 따라 폭넓게 규정될 수 있음
- 국제문화교류의 정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춘 광의의 개념과 목적·성공에 초점을 맞춘 협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음²⁾
 - 국제문화교류란 모든 주체들이 문화 콘텐츠를 통해 타국민과 상호교류를 하는 활동을 말함
 - 세부적으로 보면, 개인 차원에서는 타문화 이해와 창조적 자극을 얻고, 국가 차원에서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등의 발신과 수용으로 문화적 발전을 성취하며, 전 지구적 차원에서는 문화다양성의 지속과 확산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함
 - 여기에서 문화란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의 특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징의 총체로, 예술 및 문학뿐 아니라 생활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함³⁾
- 국제문화교류의 법률적 정의는 “문화, 예술, 관광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임(2017년 3월 제정,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2조)

2) 정정숙(2012),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UNESCO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중 제 31차 UNESCO 총회(2001.11.02.)에서 채택한 내용임

- 국제문화교류 업무를 통하여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제문화교류의 범위

- 국제문화교류에는 순수예술 이외에 전통문화, 문화산업 등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교류가 포함됨
-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관광과 스포츠 분야도 문화교류의 범위로 함께 다루고 있음

[표 2-1] 국제문화교류 사업 대분류표

1. 문화예술
2. 전통문화
3. 문화산업
4. 관광 교류
5. 스포츠 교류
6. 종교 간 국제교류
7. 문화홍보
8. 문화협력(Cultural ODA)

자료: 정정숙(2012),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 국제문화교류활동은 작품교류, 공동 프로젝트, 국제행사 참여, 학술·정책·인적교류, 기반조성형, 문화홍보로 나눌 수 있음
- 작품교류란 완성된 형태의 결과물을 중심으로 교류하는 활동임
- 공동프로젝트란 공연이나 전시, 행사 등의 공동기획이나 공동제작 등 최소 2개국 이상의 관련 기관, 단체 등의 협력이 전제된 프로젝트성 교류활동을 의미함
- 국제행사 참여란 국제아트마켓이나 축제, 페스티벌, 수교행사 등에서 작품 시연(공연)이나 발표, 전시 활동 등을 의미함
- 학술·정책·인적교류란 학술 및 연구교류, 관련 정책 교류와 인적자원 교류활동을 의미함
- 기반조성형이란 국제문화교류 촉발 및 확장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 활동을 의미함
- 문화홍보란 한국의 문화를 홍보하는 성격이 강한 교류활동을 의미함

[표 2-2] 국제문화교류 영역별 세부 활동 분야

교류 활동	세부 활동 분야
작품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성형 작품(결과물) 중심 교류 예: 공연 및 전시를 위한 작품 교류, 문화재 교류 등
공동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 협력형 교류 공연·전시·행사 등의 공동기획 및 제작 등 프로젝트 협력형 교류 등
국제행사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행사에서의 시연(전시/공연물), 발표 등을 통한 교류 국제아트마켓, 수교행사, 페스티벌, 축제 등에서의 시연, 발표 전시 등
학술·정책·인적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술 및 연구, 정책, 인력차원에서의 교류 국제심포지움, 펠로십, 전문인력 파견 및 장/단기 연수, 레지던시 참여 등
기반조성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문화교류 확장을 위한 기반조성형 교류 국제네트워크/플랫폼 구축, 해외 시장진출 인프라 구축, ODA형 교류 등
문화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문화 및 유산보존 관련 교류 한국 전통문화 홍보(음식, 복식, 유산), 한국어교육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국제문화교류 지표개발 기초연구』, p. 58.

□ 문화외교

- 국제문화교류는 문화 외교(cultural diplomacy), 국제문화관계(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 대외적 관계에서의 문화교류(cultural exchange in international relations)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 문화외교가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에 속한다는 데에는 다수가 동의하지만 문화외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며 합의된 정의는 없는 상태임
 - 문화외교란 정부기구 또는 정부기구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다른 나라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예술·지식·정보·언어 및 제도 등을 수단으로 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자국의 국가이미지 제고 등 연성권력을 높이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함⁴⁾
 - 한 나라의 문화적 자산과 성과물을 외국에 알리고 문화적 전파를 촉진하여 국제환경을 관리하는 활동이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자국의 가치나 이미지를 높이는 수단으로 문화,

4) 외교통상부(2010), 『문화외교 매뉴얼』, 외교통상부.

예술 및 언어에 대한 국제 행사, 투어 및 관련 기관 설립, 문화의 촉진과 교류를 위한 자국의 음악이나 예술작품의 국제투어를 위한 국가 간 협약 등이 포함됨⁵⁾

○ 문화외교(cultural diplomacy)의 경우 국제문화교류보다 학술적인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소프트파워(soft power)와 연관되어 있음
- 공공외교의 하위 영역으로 간주되는 문화외교⁶⁾는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전통적 외교정책과 달리 장기적인 결실을 예상함
- 최근 국제 사회는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문화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문화외교는 ‘발전적 국가’의 통치 모델이라는 제도적 유산을 바탕으로 해외에서의 국격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하향식, 일방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⁷⁾

- 한국의 문화외교는 국가 위신을 향상하기 위한 하향식, 일방적 접근법으로서 정부에 의해 제도화되었음
- 이는 한국이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개발국가 모델’을 채택한 제도적 유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임

○ 문화외교는 국제문화교류에 비해 ‘결과적’ 차원의 교류, 즉 문화를 수단으로 한 제반 활동의 ‘성과’에 초점을 맞춘 활동으로 개념을 규정할 수 있음⁸⁾

- 국제문화교류의 주체는 쌍방의 전문 문화예술인으로 교류 과정에 있어서도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자율적인 활동으로 여겨짐
- 반면, 문화외교는 외교 전문가에 의해 기획되고, 교류 과정에서도 정

5) KBS방송문화연구소(2017), 『방송·미디어 등 영상콘텐츠의 해외확산 전략 연구: 공공외교의 주요 도구로서의 영상콘텐츠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외교부.

6) Cull, Nicholas J(2009), *Public Diplomacy: Lessons from the Past*, CPD Perspectives on Public Diplomacy, USC Center on Public Diplomacy at the Annenberg School, Figueroa Press, Los Angeles.

7) 송남은(2019), 예술을 통한 문화외교 정책모형에 대한 개념적 연구, 『문화정책논총』, 33(1), 131-153.

8) 김휘정(2012), 문화외교와 국제문화교류 부문 조율 기능 확보의 쟁점과 과제, 『문화정책논총』, 26(1), 227-252.

- 부가 개입하게 되는 다소 비자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는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인식으로도 이어져 외교부가 국제문화교류 효과를 외교 효과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발전 본연의 목표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음⁹⁾

- 문화외교는 하향식이며 명시적 접근법을 취하는 반면, 국제문화교류는 상향식이며 암묵적인 접근법을 취함
 - 정부의 접근방식은 점점 더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 교환을 인식하기 위해 분권형 문화외교 활동으로 전환
 - 특히 ‘국제문화교류’라는 용어는 비정부 부문에 의해 풍부하게 전용되기 시작함
 - 최근 들어 비정부 부문에서의 국제문화교류가 중요해진 이유 중 하나는 한류 열풍이 한국 '문화 제국주의'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이는 노골적인 한류의 해외진출에 대한 부정적 반응에 대한 대응이기도 함

나. 국내외 국제문화교류 트렌드

□ 일대일 교류에서 다자간 교류로 변화

- 국제문화교류 방식이 일대일 혹은 양자 간 교류 중심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교류로 변화함
 - 수신형 또는 발신형의 일방향 교류방식에서, 쌍방향 교류 또는 3개 이상의 주체가 참여하는 다자간 교류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문화교류의 선도주자라 할 수 있는 EU 중심의 유럽권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남
 - EU는 국가 간 제약된 경계를 넘어, 다자간 협동사업 및 네트워크/컨소시엄 구축을 통한 국제문화공동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예를 들어, EU 교육문화부(Creative Europe, EACEA)는 2007년 발표한 1차 계획(2007-2013)에서 국가와 국경을 초월한 문화예술의 공유

9) 구문모(2017), 국제문화교류에서 전통공연예술의 시장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모형 연구, 『문화경 제연구』, 20(3), 61-85.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2014년에 발표한 2차 계획(2014-2020)에서는 초국가적 교류의 지속적 제고 및 협력 강화를 강조하였음¹⁰⁾

- 2018년 발표한 3차 계획(2021-2027)에서 EU는 정치적 관계를 초월한 국제문화협력 프로젝트 및 공동제작의 확대를 위한 지원, 문화예술 콘텐츠의 번안·번역 지원 등 다자간 채널을 구축하는 등 문화교류에 있어 공존과 공영을 재강조함

[표 2-3] 1-3차 Creative Europe 계획에 나타난 교류방법

항목설정		내용		
내용 범주	사업 범주	1차 계획(2007-2013)	2차 계획(2014-2020)	3차 계획(2021-2027)
목표	분야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 경쟁력 (competitiveness)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 보존 문화, 창조 부문의 경쟁력 강화
	CUL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간 이동성 초국가적 순환 문화권 교류 유럽공동체 시민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 역량 강화 초점: 노하우, 신규 사업 모델, 디지털화 적용, 관객 계층 확대, 국제 전문가 (International careers) 초국가적 순환: 문학, 순회공연, 행사, 전시, 관람객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국가적 협력: 창작, 유통, 전문가의 이동성 강화 문화참여도를 높이고 유럽 전역의 청중 개발 일자리 창출 유럽의 정체성과 가치 강화
	MED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각 부문 역량 강화, 시청각 창작물 분배 시청각 예술분야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 역량 강화 초점: 디지털 기술, 시장발달에 적용, 분배와 공동 생산, 시장접근성 초국가적 순환: 영업, 분배, 신규 관람객 집단, 신규 사업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국 간의 협력 장려: 기술 육성 더 넓은 접근: 온라인 배포,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과 신기술 사용 작품 홍보: 유럽 전역의 젊은 관객 개발
	MEDIA Mund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제3세계 영화산업 간 문화적/상업적 관계 		
	CROSS SECTORAL str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국가적 정책 협력: 예술적 자유, 결과의 이전 가능성 지원 접근 방식 지원: 콘텐츠 제작, 유통, 수익

10) EU는 유럽뿐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들 또한 1개국의 문화교류 파급력이 약하다는 점을 주목하며 기존의 경제, 정치 협력체로 묶여있는 아프리카 권역, 중동 권역 등을 활용하여 문화교류의 공동협력 권역으로 활용하고자 함

				화, 홍보 및 디지털화, 활동 지원
시행 내용	분야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금 지원 (guarantee fund) 초국가적 정치 협력 (transnational political coope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국가적 협력, 네트워킹 젠더 평등 증진
	CUL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 번안·번역 정보수집·공유 문화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간 협력 프로젝트 유럽기관, 유럽 네트워크 활동 예술가, 작품 교류·순환 작품 번안·번역 유럽문화상(European cultural prizes) 지정, Cultural Heritage Seal, Capitals of Culture 등 문화재 지정·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국가 프로젝트, 네트워킹 활동, 협력 프로젝트 작품 번역·번안 청중 개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지원 유럽 내 배포, 유럽연합 외 지역의 홍보 젠더 평등 증진 EU cultural prizes 지정 European Heritage Days 운영
	MED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예술인 지원 프로젝트, 사업 지원 시청각 문화예술 콘텐츠 공유 신기술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 지식, 네트워크 획득 유럽 내/국제적 공동 생산 상업적 AV 행사, 온라인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제작사 지원 유럽 예술작품을 유럽 외 시장에 공급, 해외의 예술작품을 유럽 내 시장에 공급 유럽 및 국제 공동생산 비즈니스 교환 및 네트워킹 활동, 행사 및 박람회에 대한 지원 시청각분야 전문가 양성 광범위한 유럽 영화 운영자 네트워크 운영
	MEDIA Mund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산업 현직자들 기술향상 국제시장에 접근성 유럽 예술작품을 유럽 외 시장에 공급 		
	CROSS SECTORAL str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국가적 정책 협력, 발전 문화를 통한 사회적 통합 시민들의 미디어 사용

				능력 향상
운영 구조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보조금 지원 • (Operating Grants) • 직접재정지원 • 제3세계 공동 프로젝트 대상 MEDIA Mundus 사업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보조금 철폐, 프로젝트 보조금만 지원 • 직접재정지원 철폐 • MEDIA Mundus, MEDIA Programme에 통합 • 보증자금(guarantee fund) 	

자료: Cornelia Bruell(2013), Creative Europe 2014-2020 : a new programme - a new cultural policy as well?;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18.05.30.), Proposal for a regulation establishing the Creative Europe programme (2021 to 2027)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1295/2013

☐ 순수예술에서 문화정책, 문화산업 등으로 확장

○ 문화정책, 연구, 문화산업 등으로의 교류 분야 다변화

- 일반적으로 국제문화교류는 국가 단위로 진행됨으로써 전통예술 분야에 국한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음
- 하지만 국제문화교류 환경이 초국가적 차원으로 확장되면서 국제기구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기반 정책교류 및 인문/학술연구, 문화산업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순수예술 분야에서 K-pop을 비롯한 대중문화로의 교류 분야 확장

- 예술의 범위가 확장되고 민간단체의 참여로 수용가능한 관객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폐쇄된 형태의 예술이 아닌 시민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필요해짐
- K-pop 등 대중문화 분야로 교류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문화예술계 단체 및 종사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됨

☐ 중앙에서 지역으로 변화

○ 중앙 및 공공기관 중심에서 지역·지자체, 민간단체 중심으로 교류의 주체가 변화함

- 국제문화교류를 주도하는 주체가 중앙에서 지역으로,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중심축이 이동함. 이에 따라 수직적·위계적 관계에서 수평적·네트워크적 협력 관계를 중시하는 교류가 늘어나고 있음

-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지역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강화되면서 국가 간의 교류는 물론 지역과 지역 간의 국제교류가 증가함
-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지역사회로 실행을 요청하거나 외부로 전달하는 하향식보다 지역 소재 문화예술단체나 지자체 차원에서 국제문화교류를 먼저 제안·주도하고 이에 대해 중앙에 지원 요청을 하는 등의 상향식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소셜네트워크(SNS)와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문화교류에 있어서도 개인은 더 이상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수용자 또는 공동 창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이 나타남

□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변화

○ 결과물 중심에서 프로젝트 기반, 과정 중심 교류로의 변화

- 과거에는 공연·전시 등 결과물(end-product) 중심의 교류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프로젝트 기반, 과정 중심의 교류가 부상하고 있음. 이는 문화교류의 목표를 자국문화를 홍보하는데 두었던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한 교류가 중시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기획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제작과정 자체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과정’ 중심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음
-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레지던시, 워크숍, 세미나, 연구와 탐방 등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늘려가며 국제적 공동작업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음
- 특히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경우 이전처럼 단순히 공간을 대여해주는 것이 아니라 동료 예술인들과의 협업을 유도하는 보다 진화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 신기술 활용

○ 장소 기반 교류에서 하이퍼 네트워크 교류로의 변화

- 초고속 인터넷망, 무선인터넷 등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과거 국제문화교류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됨
- 물리적 접촉 없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간접적인 문화교류가 가능해짐에 따라 교류의 주체, 대상, 범위가 확대됨
-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소통이 증가하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연계, 즉 O2O(Online to Offline) 메커니즘이 자리를 잡음
-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새로운 화두로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견하고 있으며, 주로 공유적 차원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을 기반으로 시공을 초월한 창작 협업 및 문화교류(예시: 가상현실 레지던시 운영)를 시도하고 있음

가. 기간별 국제문화교류진흥 정책¹¹⁾

1) 1990년대 이전

-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통합을 위한 도구로서 문화의 정책적 기능이 중요시되었음
- 민족 문화에 대한 강조와 복원이 문화 정책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됨
 -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정부가 규정하는 민족정신의 반영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 문화예술 및 그러한 규준을 해하지 않는 범위로 인정할만한 서구 문화예술의 진흥과 지원에 초점이 맞춰짐
 - 냉전 시기,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체제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관점에서의 교류가 이루어짐
- 정책적으로 국제문화교류는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방향성을 갖게 됨

2) 1990년대 이후

-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수립 이후 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한국문화의 국제화에 초점을 맞춘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1995년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조성 전략의 문제점과 정책방향」(한국문화정책개발원) 보고서를 발간함
 -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문화의 세계화”에 정책 목표를 두고 인적 교류의 다양화, 정보 교류의 충실화, 우리 문화의 해외소개, 외국문화의 합리적 국내수용, 교류 활성화의 기반 조성을 중점 시책으로 제시함

11) 김혜인 외(2017), 『국제문화교류정책 중장기계획 연구』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 국제문화교류에 있어서 정부 기관들의 역할을 강조함

□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는 국가 경제 정상화를 최대 과제로 삼고 한류에 대한 관심을 국제문화교류와 결합함

○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문화산업 뿐 아니라 문화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차원의 문화 홍보, 문화 교류를 연계하려는 방식을 취함

3) 2000년대 이후

□ 「개방과 소통의 국제 문화교류 중기계획」 (2004)

○ 국제문화교류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이고 공식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함

○ “개방과 소통의 국제문화교류를 통해 수세적 민족 문화를 넘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열린 문화 선진 국가> 구현”으로 비전을 설정하는 등 국제적으로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에 집중함

□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국가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이와 연계되어 문화예술의 위상 제고 혹은 세계 속에서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가 국제문화교류의 비전으로 인식됨

○ K-pop으로 대표되는 한류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과 국가브랜드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한국문화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됨

○ 한류를 우리 문화 전반에 걸친 K-culture로 이어가기 위해 지속가능한 한류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

4) 2010년대

□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2012)

- 국제문화교류 추진체계 현황 파악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사업수행의 거시구조를 제안함
 - 국제문화교류가 직면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문화 다양성’, ‘횡단적 교류’, ‘활동 성과의 평가’ 등을 제안함

□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정

- 2017년 3월 21일 제정되어 2017년 9월 22일에 시행됨
- 이후 기존의 「국제문화교류진흥법」에서 국제문화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체육 분야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됨
 - 이에 따라, 2018년 개정을 통해 「스포츠산업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체육’을 국제문화교류의 대상 분야로 포함함
- 한류의 확산과 관련하여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
 -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통일적·체계적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함
 - 이미 추진 중인 국제문화교류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함
 - 부처 및 부서별로 분산된 국가 간 문화교류 업무를 체계화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

- 2017년 9월 22일 시행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임
 - 국제문화교류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
- 향후 5년간(2018~2022)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를 제시함
 - 세계와 공감하고 협력하여 모두가 행복한 국제문화교류를 비전으로 제시함
 - 체계적인 문화교류 지원, 국제문화교류의 자율성 강화, 지속가능한 문화교류 생태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 국제문화교류 진흥 체계화, 국제문화교류 대상의 다양화, 지역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의 4가지를 추진 전략으로 제시함

나. 정부 기관의 국제문화교류 정책 현황

- 국제문화교류는 수행주체, 교류방식 등에 따라 공공, 민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공공의 경우 중앙정부, 정부산하기관, 지자체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민간은 기업, 개인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공공 문화교류는 정책적 목적이 개입된 종류의 문화교류로 단순한 국가 간 국제관계 수립을 기념하기 위한 계기성 사업(수교기념활동 등)에서부터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의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활동(유럽문화도시사업 등) 등이 포함됨
 - 지난 기간 정부가 지원한 국가 간 문화교류 사업은 민간주도 문화교류사업, 수교기념사업, 정부다자간 협의에 의한 교류사업 국제기구 관련 문화교류사업, 국제회의 및 국빈방문 등의 계기성 교류사업이 있음

1) 중앙정부

- 최근 신북방정책을 기반으로 한 러시아, 중동 내 수교 40주년을 계기로 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교류를 추진 중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2021년을 ‘한국-러시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함
 - 러시아는 신북방 전략의 핵심국으로 주변국에 막대한 문화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문화강국임
 - 2020년은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정부가 ‘신북방 협력의 해’로 선언한 해이기도 함
 - 문체부는 정부·공공기관 주도의 사업뿐 아니라 민간과 지자체의 문화교류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러시아 문화부는 러시아 문화를 1년간 폭넓게 선보이는 ‘러시아 시즌(Russian Seasons)’을 2021년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함
- 2020년 1월 20일 아부다비 국립극장에서 ‘한국-UAE 상호 문화교류의 해’의 기념식이 열림
 - ‘문화의 융합(Converging Cultures)’이라는 슬로건 아래 문체부는 신규 방한 시장 개척과 중동 내 한류 확산 거점 마련, 양국 콘텐츠 기업 간 교류 확대, 양국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UAE 내 문화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임
- 기타 중점교류 사업으로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외교부 공동 주최)’ 2차년 추진, 말레이시아, 스페인, 이집트, 나이지리아 대상 수교 계기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음
-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를 기념하는 행사로 정부는 2020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함
-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을 위한 제1차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국제문화교류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 파악의 중요성이 부각됨
- 이에 따라 2017년 2월 6일부터 3월 3일까지 4주간 공공 및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제문화교류 실태 시범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음

2) 유관기관

- 우리나라 문화 관련 공공기관 중 국제문화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비중은 약 33%로 문화기관의 국제문화교류가 매우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음
- 유관기관의 2020년 사업계획 중 국제문화교류 사업 건수는 90여 건임
- 문체부 산하기관 중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음
 -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제방송교류재단, 세종학당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문화홍보원
- 유관기관의 경우 해외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음
 -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유네스코(UNESCO)와 같은 국제기구 또는 협의체와의 협력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해외 유관기관과의 업무 및 인적교류,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확대하고자 함
 - 신남방정책 및 신북방정책 등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아세안, 러시아와의 교류를 확대하여 협력·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기관별로 특성화된 영역의 교류 사업을 추진함

- 각 기관별로 작품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 국제행사 참여, 학술·정책·인적 교류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전반적인 사업에서 해외 유관기관과 공동기획 및 행사를 개최하는 쌍방향(발신형+수신형) 교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전통문화의 경우는 발신형 행사가 더 많이 진행되고 있음
-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간 교류 사업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 아세안, 러시아와 교류하는 사업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북유럽, 중남미 등으로 교류지역이 확대되고 있음

3) 지자체

□ 광역자치단체의 2020년 사업계획 중 국제문화교류 사업 건수는 56건으로 파악됨¹²⁾

○ 지자체의 경우 국제문화교류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문화교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창의적이고 새로운 문화콘텐츠 발굴 의지를 드러냄

○ 문화예술, 전통문화 영역의 교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광분야, 스포츠분야의 교류가 일부 시행되고 있음

- 자매(우호)도시 간 작품교류 행사와 우수공연 해외 초청 등 국제행사 참여가 주를 이루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레지던시 사업 또는 아카데미 사업 등 인적교류도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의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발신형 일방형 사업이 주를 이루나 교류국과의 쌍방향 사업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음. 다자간 교류를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으나 사업의 수가 많지 않음
- 후속사업 추진, 협의체 구축 등을 통하여 연속성 있는 사업을 추진·시행하는 지자체가 증가함

12) 2019년 하반기 국제문화교류 유관기관·지자체 협의체 워크숍 자료를 참고하였음. 이 자료집에 포함된 광역자치단체는 강원, 경남, 경북,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12개 지역으로 광역자치단체 전체의 실태와는 다를 수 있음

- 자매(우호)도시 사업의 경우 중국, 일본과의 교류가 월등히 많으며 러시아, 중앙아시아와의 교류가 증가하는 추세임

[표 2-4] 2019-2020년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정책 현황 분석 결과

		유관기관	지자체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에 초점을 맞춤 • 정책 기조에 맞춰 아세안, 러시아와의 교류를 확대하여 협력·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문화교류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도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문화교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교류 현황	교류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특성화된 영역별 교류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전통문화가 주된 영역이며 문화산업, 관광산업 및 스포츠분야 교류 일부 시행
	교류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 국제 행사 참여 등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국제기구·협약체와의 협력 및 활동 강화 • 전문인력 중심의 인력 교류가 이루어짐 • 예: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 MMCA International Research Fellowship, 문화 동반자 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매(우호)도시 간 작품교류 행사, 문화 홍보, 국제 행사 참여, 우수공연 해외 초청 및 해외 축제 참여 등이 주를 이룸 • 일부 지자체에서는 레지던시 사업 또는 아카데미 사업을 진행 • 예: 한일 음악 교류전 지원, 니가타시 소오도리 축제 문화공연단 파견, 시립예술단 국외교류, 파리에용노레지던스 사업, 부산 아시아 영화학교 운영 등
	교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국과 공동 기획 및 행사 개최하는 쌍방향 교류가 주를 이룸 • 전통문화의 경우 발신형 행사가 더 많으나 공동 제작 및 기획 통한 지속적인 사업도 진행함 • 전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간 교류 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발신형 일방향 사업 및 교류국과의 공동개치를 통한 쌍방향 사업이 다수 이루어짐 • 일부 다자간 교류를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음 • 예: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8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부산시는 하얼빈시(중국), 가나자와시(일본) 와 지속적인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음)
	교류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에 따라 아세안국가와 러시아와 교류하는 사업이 증가함 • 북유럽, 중남미 등으로 교류지역을 확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매(우호)도시 사업의 경우 중국과 일본 교류가 월등히 많으나 러시아와의 교류가 증가하는 추세임 (예: 러시아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이르쿠츠크주, 레닌 그라드주 등) • 발신형 사업의 경우 서유럽, 동유럽, 북유럽 일부 등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19.12.17.), 2019 하반기 국제문화교류 유관기관·지자체 협의체 워크숍 자료집 재구성

제3절 해외 국제문화교류 현황

가. 국가별 국제문화교류 현황

□ 주요 국가의 국외 문화교류 기관 현황

- 영국, 프랑스, 독일같이 국제문화교류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들은 큰 규모의 문화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British Council, 2018)
 - 2018년 기준 주요 국가의 국외 문화교류 기관의 수를 살펴보면 영국의 British Council은 177개, 프랑스의 Institut Francais는 219개, 독일의 Goethe-Institute는 169개, 중국의 공자학원은 507개로 큰 규모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 각 국가들의 문화교류 거점기구 설립은 지리적 인접성 및 문화적 공통성, 경제 및 외교적 중요도 등의 영향을 받음
 - 대부분의 국가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주변지역에 많은 수의 교류거점 기관을 설립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에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지역에 교류거점 기관을 설립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식민지 경험에 있는 지역들로 문화적 연대성과 연계됨
 - 중국 공자학원은 미주와 유럽 지역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 혹은 정치·외교적 중요도 때문으로 보임

[표 2-5] 주요 국가별 국외 문화교류 기관의 권역별 설립 현황(2018년 기준)

기관명	미주	동아시아	EU27	중동 및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비EU 유럽국
공자학원(중국)	158	90	105	11	13	43	58
Institut Francais(프랑스)	9	24	68	52	2	37	25
British Council(영국)	15	22	41	29	23	26	16
Goethe-Institute(독일)	24	26	59	15	11	16	16
Japan Foundation(일본)	5	15	5	1	1	-	1

자료: British Council(2018), p. 8.

□ 영국

- 영국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예술위원회 모형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국가임
-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비지팅아트(Visiting Arts), 영국공예청, 예술·창조기술진흥재단, 영화텔레비전예술협회 등에서 국제문화교류 관련 활동이 이루어짐
 - 영국의 국제문화교류는 문화적 관계를 촉진하고, 타 국가와 국민들의 차이를 이해하고, 영국과 영어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문화와 과학 기술, 교육의 측면에서 양국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둠
 - 영국문화원은 1930년대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영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되어 현재 170개국 이상에서 영어 교육, 예술, 문화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
 - 영국예술위원회는 1946년에 설립되어, 국제문화예술교류를 포함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공공기금의 지원을 총괄함
 - 비지팅아트는 1977년 영국문화원의 부처로 설립되어 해외 예술가를 영국으로 초청하는 활동을 수행함. 최근에는 중국, 인도, 중동, 아프리카, 카리브해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가고 있음
- 영국은 자국의 뛰어난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 예술과 교육시스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문화외교 활동의 주체인 문화예술기관이나 개인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함
 - 2014년 외무부(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FCO)와 영국학술원(British Academy)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문화, 매력 그리고 소프트파워(As others see us: culture, attraction, and soft powers)」라는 보고서를 작성함
- 브렉시트 이후, 타 국가와의 대외관계에 있어 영국의 이미지를 새로 설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 영국 문화체육미디어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Sport)는 50

년 만에 「문화 백서(The Culture White Paper)」를 발간하고 영국 문화의 가치에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

- 영국문화원은 ‘21세기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Creative Industry)’ 국가 전략에 입각하여, 철저히 비즈니스 중심의 대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2018년 기준으로 177개의 문화원을 두고 해당 국가와 상호 호혜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문화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영국문화원은 외무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그 비중은 15%이며, 수입의 약 80%는 영어 교육&시험, 계약 소득임(British Council, 2019)

□ 미국

- 미국은 국무부 교육문화국(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 ECA)에서 교육과 문화 관련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을 주관하고 있음
 - 교육문화국이 교류의 영역으로 포함한 영역은 인적 교류, 전시, 문화유산, 공연예술, 도서관 및 아카이브, 문학 및 번역, 디자인, 패션, 광고, 건축 등임
 - 시민사회와 기업가정신, 국제 영어교육, 환경과 기후변화,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분야의 교류는 주요 분야에 포함되지 않음
- 미국의 전국적인 문화예술진흥을 총괄하는 중앙기구인 국립예술기금은 국제문화교류보다는 상대적으로 국제 문화참여(International Cultural Engagement)라는 용어를 선호하며, 국제 문화교류보다는 국내의 탁월한 예술가와 소외 지역의 공동체 예술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문화 부문에 있어서 철저히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문화교류도 공공부문보다는 민간기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전 문화외교와 관련된 문화예술정책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음¹³⁾
 -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교류의 확대
 - 예술적 활동 및 예술가의 참여로 중동 극우단체와의 이념적 전쟁에서 승리
 - 냉전 이후 문화외교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문제의식 고취
 - 비자 문제 완화를 통한 국제적 예술인재와 예술가들의 미국방문 및 활동 활성화
- 임기 말 오바마 정부는 쿠바와 국가관계 정상화를 이루고 화해 및 관계회복 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외교의 도구로서 문화교류를 실시함
 - 미국 주요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참여와, NEA(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미국연방예술기금)의 주도적 역할이 대두됨

□ 프랑스

- 국제문화교류정책에 관한 방향 설정 및 집행은 외교부의 Direction de la cooperation culturelle, universitaire et de la recherche(DCUR)국과 문화부의 책임 하에 있음
- 프랑스의 국제문화교류는 프랑스 문화의 해외 전파 및 외국 문화의 프랑스 내 보급을 통한 쌍방향의 문화교류에 목적을 둠
- 앙스티튀 프랑세(Institut Français, 프랑스 문화원)를 중심으로 국제문화교류가 이루어짐
 - 외교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프랑스 문화 및 언어의 전파와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문화 다양성 축진을 위해 설립되었음
 - 2015년 외교국제발전부가 발표한 ‘MAEDI 21, Une diplomatie

13) 최보연(2016).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현황과 새로운 방향성을 위한 탐색.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위임), 1-12.

globale pour le XXI^e siècle’에 따라 프랑스 문화원의 역할이 강화
됨¹⁴⁾

- 2018년 기준 전 세계에 219개의 문화원이 설립되어 있으며 대부분 유럽과 아프리카에 분포하고 있음
- 프랑스 내의 지역권 및 대도시와 해외 프랑스 문화망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사업의 수행자, 국내외 공공단체의 중심지적 역할을 수행함
- 이외에도 예술전파를 위한 국가기구(Office National de Diffusion Artistique, ONDA), 세계 문화의 집(La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등에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독일

- 독일은 1925년에 출범한 독일아카데미를 계승하여 1951년 독립적 비영리 문화기관으로 설립된 괴테 인스티튜트(Goethe-Institut)를 중심으로 국제문화교류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외무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나 철저히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독일어 지식 보급, 국제적 문화협력 진흥, 독일의 사회·문화·정치적 정보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목표 아래 운영되고 있음
- 2018년 기준 16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권역마다 본부를 두는 구조로 이루어짐
- 독일어 교육뿐 아니라 조형예술, 방송·영화, 음악, 연극, 무용, 문학, 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괴테 인스티튜트와 외무성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두 기관은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수평적 파트너십, 즉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2014년 독일연방의회가 문화외교(국제문화교류)에 대한 예산 편성을 확대함¹⁵⁾에 따라, 괴테 인스티튜트는 2015년 166만 유로(약 22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됨

14) 프랑스 외무부는 2014년 4월 ‘외교국제발전부(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du Développement international)’라는 현재의 이름으로 개정됨; 이 프로젝트는 프랑스의 대외소통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의 프랑스 네트워크가 현지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프랑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글로벌 청중’들을 확대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해외에서의 프랑스 문화와 언어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문화와 관련된 직무들을 프랑스 교육 및 문화 네트워크 관리업무와 통합하였음

15) 김혜인(2017), 『국제문화교류 지표개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이외에도 대외관계연구소, 독일학술교류처,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Alexander Humboldt Stiftung), 베를린 세계 문화의 집 등에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2017년 독일 외무장관인 발터 슈타인 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는 독일 외국 문화 관계 및 교육 정책(Auswärtige Kultur- und Bildungspolitik)이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음을 강조함¹⁶⁾
 - ‘국가브랜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에 따라 대외관계에서의 문화관련 투자를 계속적으로 유인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독일이 가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함

□ 일본

- 일본의 경우 문화청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문부과학성과 외무성, 독립행정법인인 일본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에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국제교류기금은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특수조직으로 인적교류를 기본으로 한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1972년 특수법인으로 출범하여 2003년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2018년 기준 29개의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 독립행정법인이지만 외무성 산하 기구로, 일본의 대외정책과 밀접한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음
 - 예술과 문화교류, 일본어 교육, 일본어·일본 문화연수 및 인사교류 사업을 주로 운영하고 있음
- 2000년대부터 일본은 ‘쿨 재팬(Cool Japan)’ 전략을 기치로 일본의 국가 브랜드에 대한 홍보 및 소프트파워로서의 문화산업 진흥, 문화교류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¹⁷⁾

16) 김새미(2018). 외교대상(target)과 실행체계를 중심으로 본 문화외교의 쟁점과 추이: 영국과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유럽연구*, 9(1), 109-155.

17) 나승권·이성화·김은미(2018), 일본·중국의 소프트파워 정책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오늘의

- 경제산업성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나 세부 사업은 문부과학성, 외무성 등 각 부처 차원의 개별사업 혹은 부처 간 협력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 문부과학성은 「문부과학성국제전략(文部科学省における国際戦略)」의 하나로 ‘소프트파워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문화협력 및 학술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외무성은 ‘홍보문화외교(広報文化外交)’의 일환으로 일본에 대한 해외홍보 활동, 문화교류 및 인적교류,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일본은 2015년부터 「일본의 미(日本の美)」 종합프로젝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음¹⁸⁾

- 이 프로젝트의 취지는 일본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다음 세대에 계승함과 동시에, 문화예술과 일본의 미의식, 가치관을 국내외에 알려 국제관계를 개선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는 것임
- 특히 2016년 11월에 진행된 4차 간담회부터 2018년 일불(日佛) 수교 16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된 문화교류사업을 「자포니즘2018」 프로젝트로 분류하고, 이 프로젝트를 위한 종합추진회의를 병행하기도 함
- 완전히 새로운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도출한다기보다는, 관련 정부부처의 업무분장과 예산을 검토하고, 기존에 거론되었던 아이디어를 기획단계로 발전시키는 간담회임
- 일련의 프로젝트들은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위해 단계적으로 실행되었으며, 흩어져있는 문화예술 해외교류사업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취합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음

□ 중국

- 중국의 모든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중화인민공화국문화부(中華人民共和國文化部)가 있음
- 대외적 국제문화교류 및 국제문화협정체결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문화부 소속하에 대외문화연락국(홍콩·마카오·대만사무실)에서 국제문

『세계경제』, 18(30).

18)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http://policydb.kcti.re.kr/>

화교류 업무를 수행함

-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행정기관 산하에 직속 사업부서를 설치하고 있음
 - 문화부 산하에 설치된 중국대외문화집단공사(中国对外文化集团公司)와 중외문화교류센터(中外文化交流中心)는 대외적으로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임
 - 중국대외문화집단공사는 정부로부터 국가 1급 재정예산을 지원받아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국유사업기관임
- 중국 교육부의 직속사업부서인 중국국가한판(中国国家汉办)에서는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공자학원은 중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목적으로 세워진 중국어 교육 전문 대외활동기구임
 - 2020년 1월 기준 공자학원은 162개국에 545개소가 설립되어 있음
 - 중국어와 중국의 문화를 보급하는 공자학원은 비영리성 사회공익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중국은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공자와 같은 중국전통문화의 상징을 활용하여 중국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음
 - 공자학원은 전 세계에 빠른 속도로 설립되며 급속한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문화 저력을 확대하고 있음
- 2016년 중국 문화부는 「일대일로 문화발전행동계획(“一带一路”文化发展行动计划)」을 발표함
 - ‘문화’를 경제, 정치 및 외교 분야와 연결하여 활용함으로써 다차원적 국익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는 중국이 국제 문화교류를 통해 타국의 문화를 이해하기보다 ‘문화무역’ 성공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
 - ‘문화교류협력 플랫폼 강화’, ‘문화교류 브랜드 개발’, ‘문화산업의 번영과 발전 추구’, ‘문화교역 촉진’ 등을 위한 세부 계획을 제시함

[표 2-6] 중국 「일대일로 문화발전행동계획(2016-2020)」

연번	주요 계획	세부 계획
1	문화교류협력 시스템 구축	중·아세안 문화부 장관회의 개최 등 국제협력 체계 구축 국내 중 장기 협력계획 공동 연구 및 수립, 협력 메커니즘 구축 문화유산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 국가예술기금 관련 협력 추진
2	문화교류협력 플랫폼 강화	일대일로 국가(지역) 내 해외중국문화센터 개설·확대 일대일로를 주제로 실크로드 국제 예술제, 박람회 등 개최
3	문화교류 브랜드 개발	실크로드 문화여행 브랜드 개발을 통한 문화교류 확대 실크로드 문화메신저(文化使者) 공동 선발 및 운영 일대일로 예술창작 협력 지원 실크로드 문화유산 보호, 복원, 연구, 교육훈련 등 추진
4	문화산업의 번영과 발전 추구	실크로드 문화산업 벨트(丝绸之路文化产业带) 형성 애니메이션 및 게임 산업 선도 육성, 산업협력 추진 '인터넷+중화문명' 등 문화산업의 융합 발전 추구
5	문화교역 촉진	전통예술, 영화, TV, 광고, 음악, 만화, 게임, 디지털 등 국가 협력채널 개발 및 개선, 무역 확대 추진

자료: 나승권 외(2018), 일본·중국의 소프트파워 정책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p. 17.

나. 국제문화교류 사례분석 : 시즌제

1) 시즌제의 정의

□ 대중문화에서의 시즌제

- 시즌(season)은 본래 계절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 시즌제는 계절이 '순환'하는 속성을 차용하여 시스템에 재적용한 것을 의미함¹⁹⁾
 - 방송에서의 시즌제는 방송과 휴식기가 반복되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것을 의미함
 - 스포츠에서 시즌이란 공식적으로 관리되는 경기가 개최되는 일련의 기간을 의미함. 일반적인 리그의 주기는 1년이지만,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의 경우는 그 주기가 늘어나기도 함
- '공연 시즌제'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프로그램을 미리 구성해 관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함
 - 공연예술계에서의 시즌은 특정 공연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의미하며, 시즌제는 공연을 진행하는 시기(Season)와 휴식기(Off-Season)

19) 남명희(2009), 미국식 시즌 제도의 TV 드라마 내용 전개에 관한 연구 : 《X파일》, 《로스트》, 《위기의 주부들》을 중심으로, 『영화연구』, 0(40), 71-99.

를 구분하여 순환 구조로 프로그래밍하는 공연장의 운영전략임

- 공연단체는 특정 기간의 공연 일정을 일관성 있게 구성할 수 있고, 공연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연습, 공연을 준비할 수 있어 콘텐츠의 질을 높일 수 있음
- 관객 입장에서는 원하는 공연 레퍼토리를 사전에 알아보고 예매할 수 있음
- 시즌제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공연단체 또는 극장은 브랜드를 형성하고, 브랜드를 통해 관객과의 관계를 유지, 개발함으로써 관객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음²⁰⁾

□ 국제문화교류에서의 시즌제

-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시즌(Season)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한 나라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말함
 - 전통예술을 포함한 순수예술뿐 아니라 문화정책, 학술, 과학, 스포츠, 미식,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임
 - 짧게는 2개월부터 길게는 1년까지 진행되는 국제문화교류 행사로 상대국에 자국의 문화를 집중적으로 알리고자 할 때 진행함
- 시즌은 국제문화교류 행사의 하나로 자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진행되기도 하지만 수교를 기념하기 위해 진행되는 예도 있음
 - 영국에서 수교를 기념하기 위해 시즌이 진행된 사례로는 2019년 UK/Georgia(수교 100주년), 2017년 UK/India 등이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수교기념에 맞추어 시즌을 기획하기도 함

2) 국가별 운영현황

□ 영국

- 영국의 시즌제는 영국의 문화를 상대국에 소개하고, 영국에 대한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이미지 창출을 위해 진행하는 국제문화교류 행사임

20) 조은아(2017), 공연장 시즌제 존재의 이유, 『문화공간』, 30.

- ‘상호교류의 해’ 행사처럼 양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사임

○ 큰 주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프로그램의 형식을 취하거나 국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기획·진행됨

-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즌제의 예로는 Shakespeare Lives, Anyone Anywhere: 30 years of the Web 등이 있음
- 한국, 인도, UAE(2017년), 독일(2018년), 조지아(2019년)에서 시행됐으며 2020년 9월~12월에는 이탈리아에서 시행될 예정임
- 국가 관계에 초점을 맞춘 시즌제도 특정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함²¹⁾

○ 영국의 시즌제는 3개월에서 1년 정도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임

- 단, ‘상호교류의 해’ 형태로 진행되는 시즌제의 경우 2년 동안 진행되기도 하며 3년간 시즌제를 진행한 사례도 있음²²⁾

○ 영국의 경우 영국의 창의성과 혁신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행사를 기획함

- 영국문화원은 젊은 세대인 18세-35세를 타겟으로 삼고 프로그램을 기획함
- 문화예술뿐 아니라 과학이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기획함

○ 평가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함

-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평가가 가능한 전문가로 구성함

□ 프랑스

○ ‘시즌(Season)’은 앵스티튀 프랑세(프랑스 문화원)가 문화공학(cultural engineering)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총칭이며, 이 중

21) 2015년 영국/이란 시즌에서는 'Creating Waves of Cultural Sharing', 2017년 영국/아랍에미리트 시즌에서는 'Next Generation, Community and Inclusion', 2020년 영국/이탈리아 시즌에서는 'Being Present'라는 주제를 선정함

22) 영국/인도네시아 시즌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진행되었음

- ‘시즌(Seasons)’이 가장 보편적인 형식임
- 시즌(Season)에는 ‘해(Years)’, ‘시즌(Seasons)’, ‘축제(Festival)’의 형식이 있으며 각각 10~12개월, 5~8개월, 2~4개월 정도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임
- 1985년부터 현재까지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진행되었으며, 국가 단위뿐 아니라 대륙 단위로 이루어지기도 함
 - 2020년 5월에 열릴 아프리카 시즌(the Africa 2020 Season)에는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54개국 이상의 나라가 참여할 예정임
 - 처음에는 문화예술에만 초점을 맞췄으나, 현재는 교육, 연구, 스포츠, 경제, 관광, 미식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함
- 프랑스 시즌제는 국가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 중 하나임
 - 협력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특정 분야,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문화 교류가 이루어짐
- 외교국제발전부의 운영자(operator)로서 앵스티튀 프랑세 내부에서 시즌 부서(Seasons Division)를 조직함
 - 공연예술과 문화산업, 시각예술, 문화유산 전시, 영화, 교육, 서적, 연구, 학술 협력, 스포츠, 경제, 미식, 커뮤니케이션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됨
- 시즌은 문화외교 행사로 의사결정은 위원회와 운영자 사이에서 프랑스와 협력국이 공동으로 결정함
 - 공동조직위원회 회의는 프랑스와 협력국에서 번갈아 가며 정기적으로 개최됨
 - 회의는 3일간 이루어지며, 양국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프로그래밍 진행 상황, 주요 마감일, 정치적 의제,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및 통신 전략 등을 결정함
- 교류행사에 참여하는 예술단체 및 개인은 신청을 받아 프랑스와 협력

국이 선정함

-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 즉 자금 조달이 가능하거나 확실한 자금 조달 계획이 있는 프로젝트만을 선정함
- 협력국과 공동 제작하는 프로젝트는 젊은 세대가 참여하거나 양국의 동시대적 창조(contemporary creation)를 강조하거나 양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우선순위로 정함

○ 프랑스는 ‘텐덤(Tendam)’이라는 국제 도시 간 국제문화교류행사도 운영하고 있음

- 2011년 ‘파리-부에노스아이레스 텐덤’을 시작으로 한 이 행사는 ‘축제’의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1년 간 이루어지는 행사로 도시 간의 소통을 촉진시킴
- 텐덤이란 파리시에서 고안한 프로그램으로 프랑스문화원과 협력하여 양 도시 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임
- 텐덤의 대상은 파리시와 자매·우호도시를 맺은 국제도시로 2011년 도부터 2018년까지 부에노스아이레스, 베를린, 다카르, 런던, 뉴욕, 마드리드, 도쿄에서 이루어짐
- 텐덤의 목표는 양 도시의 시민에게 상대 도시의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것임
- 시즌이 다양한 분야의 교류 위주로 이루어진다면 텐덤은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교류에 중점을 둠

□ 러시아

○ 러시아 시즌(Russian Seasons)은 러시아 정부 차원의 대규모 자국 문화 해외 홍보 행사임

○ 러시아 시즌은 원래 20세기 초, 세르게이 디아길레프(Sergei Pavlovich Diaghilev, 1872-1929)가 프랑스 파리에 러시아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기획한 발레단 투어 행사였음. 따라서 현재의 러시아 시즌은 디아길레프의 발레단 투어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표방하고 있음

○ 러시아 시즌은 푸틴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일본(2017년),

이탈리아(2018년), 독일(2019년)에서 시행되었으며, 프랑스(2020년), 한국(2021년),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2022년)에서 시행될 예정임

- 국립 박물관 특별전시회, 러시아 영화축제, 러시아 최고 스타들의 콘서트, 청소년 공연, 현대예술·전통문화·사진·패션·문화 산업 및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 다양한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임
- 1년 동안 러시아 최고의 예술단체 또는 예술가가 연달아 하나의 나라를 방문함으로써 그 국민이 1년 동안 다양한 러시아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임
- 러시아 정부는 이 행사를 통해서 러시아 문화의 전통성과 다양성을 소개하고자 함

○ 상대국의 주요 도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러시아 시즌의 특징임

- 일본의 경우 도쿄를 포함한 33개 도시에서 진행됨
- 이탈리아의 경우 74개 도시에서 러시아 시즌 행사가 개최됨

○ 러시아는 자국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문학과 클래식, 발레 공연을 중심으로 러시아 시즌 프로그램을 기획함

- 현재 활동 중인 유명 클래식 음악가와 러시아 내에서 권위 있는 국립 공연단을 초청하여 수준 높은 교류행사를 진행함
- 상대국 예술가와 협연을 하거나 작품을 공동 제작하는 등 과정 중심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남
- 하나의 프로그램을 시즌 기간 내내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함

[표 2-7] 2017년 일본, 2019년 독일에서 진행된 러시아 시즌 주요 행사 목록

	2017 일본	2019 독일
연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계와 사랑》 • 《벚꽃동산》 • Valery Fokin이 연출한 《햄릿》 • 러시아-일본 제작의 《감찰관》 초연 • 러시아-일본 제작의 《밀바닥》 초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Russische Leiden...vom Verstand geschaffe》 • 연극 《Böse Ratschläge》 • 연극 《코트》, 《집》 • Joseph Raichelgaus와의 워크숍 • 연극 《Lektionen in den schönen Künsten》 • 바흐탄고프 극장 《Uncle Vanya》
클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ssia-Japan Cultural Bridge》 • 오페라 《Eugene Oneg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페라 《IOLANTA》-Valery Gergiev가 지휘하는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kita Borisoglebsky의 바이올린 독주회 •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투어: Yuri Simonov의 지휘 • 피아니스트 Ilya Itin 콘서트 • 러시아 지휘자 Alexander Lazarev와 일본 필하모닉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 • The Russian Piano School in Tokyo • 모스크바 음악원 콘서트 • Vadim Repin 실내악 공연 • 중앙 군악대 콘서트 • 러시아 지휘가 Philop Chizhevsky와 도쿄 시립 교향악단의 협연 • 마린스키 극장 독주자와 일본가수 Nakamura Hatsue의 협연 • the State Academic Symphonic Choir of Russia의 콘서트 • 피아니스트 Dmitry Shishkin의 공연 • 피아니스트 Vladimir Mischuk의 공연 • Central Music School at the Moscow 학생들의 공연 • 피아니스트 Alexei Lyubimov와 도쿄 뉴시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협연 • 바리톤 Andrei Breus의 공연 • Boris V Berezovsky와 바이올리니스트 Akiko Suwanai의 협연 • 피아니스트 Daniil Kharitonov의 공연 • Mariinsky Theatre 콘서트 • 상트페테르부르크 오케스트라의 크리스마스 투어 • the North Caucasus State Safonov Philharmonic의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라 • 피아니스트 Alexandra Dovgan 공연 •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동시대 음악》 앙상블 콘서트 • 차이코프스키 페스티벌 • Vera Kondratjewa의 솔로 프로그램 • 오케스트라 연주회, 솔리스트 V. Repin • Teodor Currentzis가 지휘하는 페름 차이코프스키 오페라와 발레 극장 오케스트라 • 뮤지컬 코메디 《Catherine the Great》 • 본 베토벤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차이코프스키 대교향악단 • 피겨스케이팅 뮤지컬 《카르멘》 • Michail Mordwinow 피아노 콘서트 • 콘서트 《승리의 노래》 • 러시아 국제오르간 콩쿠르 • 우랄 청소년 교향악단 콘서트: 러시아-독일 청소년 음악 프로젝트의 일환 • 제 15회 러시아-독일 협력 회의 기념 콘서트 • 타타르스탄 국제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Kasan-Berlin》 콘서트 • Alexei Utkin이 지휘하는 러시아 국립 아카데미 챔버오케스트라 콘서트 • 러시아 민속 악기 오케스트라 •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카데미 카펠라 합창 공연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ld Masters》 • 《The Romanovs' Dynasty》 • 체부라시카 애니메이션 전시 • 러시아 글린카 음악문화박물관 협회의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전 《차이코프스키 오페라의 천재》 • 전통 공예 전시 • 《Kischi》전 • 어린이 그림전 《러시아의 영혼》
발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ster classes • 《잠자는 숲 속의 공주》 • 볼쇼이 발레단 투어: 《지젤》, 《백조의 호수》, 《파리의 불꽃》 • 《A Meeting with Oda Nobunaga》 • 러시아 발레 아카데미 일본인 졸업생 공연 • Marat Shemiunov와 Irina Perrin의 갈라 콘서트 • the State Academic Classical Ballet Theatre 견학 • Yakobson 발레단 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바시 국립 오페라 발레 극장의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 속의 공주》 • 러시아 국립 발레단 《백조의 호수》 • 러시아 국립 발레단의 《지젤》 •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카데미 발레단 《돈 키호테》 • 마린스키 극장 발레단의 《잠자는 숲 속의 공주》, 《호두까기 인형》, 《보석》
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Paradise》 상영 • 사할린 국제 영화제 'The Edge o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티만시스크(Chanty-Mansijsk) 영화제 '불의 유령'

	the World'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 영화제 'The Meridians of the Pacific' • 러시아 영화제 'The Amur Autumn' • 러시아 영화 주간	• Sojusmultfilmtage in Berlin • 국제 러시아어권 영화제
기타	• Moscow Nikulin Circus • Press conference	• 러시아 시즌 개막 기념 기자회견 • 러시아 문화의날-문화유산, 종교포럼

자료: 러시아 대사관 제공 자료

주: 러시아 대사관 제공 자료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발췌한 것으로 전체 프로그램 목록은 아님. 자
에 의하면 일본 내 러시아 시즌 프로그램은 234건, 독일 내 러시아 시즌 프로그램은 437건임

다. 시사점

□ 외국 국제문화교류 현황에서의 시사점

○ 영국의 경우 정부 산하기관이 아닌 공공성을 담보한 독립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문화원에서 수교기념 행사, 상호교류의 해와 같은 국제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함

- 영국문화원은 1934년 설립된 왕실인가의 자선 기관이자 공공기관임
- 영국 FCO로부터 총예산의 약 15%를 지원받고, 나머지는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의 파트너십 및 스폰서십 지원금과 어학원 및 시험운영, 프로젝트, 각종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영국문화원의 독립성과 주체성은 상향식, 장기간의 행사 기획의 토대가 됨
-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각각 독립행정법인인 괴테 인스티튜트와 일본국제교류재단을 통해 실질적인 문화교류 행사를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국제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인력을 구성하고 있음

- 프랑스 문화원은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각 파트별로 공모를 통해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음
- 괴테 인스티튜트 또한 꾸준히 전문 인력을 확보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괴테 인스티튜트는 문화예술 장르별로 다양한 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음
 - 주재국 내 다양한 문화예술기관, 교육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슈와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함
 -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초국가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²³⁾
- 일본은 쿨재팬 전략으로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를 통해 얻은 인기와 인지도를 일본 문화 전반으로 확장시킴
 - 일본은 쿨재팬 전략 주진 체제 내에서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일본문화 전파 및 일본어 교육, 재팬하우스 운영 등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면 홍보를 통해 일본문화에 대한 호감도나 관심, 신뢰도를 높이고 있음
 - 쿨재팬은 정책 산업영역을 ① 콘텐츠 분야, ② 농림수산 및 식품분야, ③ 디자인제품 및 패션 등의 분야, ④ 관광분야로 구체화하고 각 분야의 목표 및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교류 분야가 한정되어 있음.²⁴⁾ 문화예술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문화산업, 스포츠, 언어 등 문화 전반으로 교류분야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쿨재팬 전략은 정권교체와는 무관하게 국가프로젝트로서 내각부(지적재산전략본부)를 컨트롤타워로 구축하고 일관성, 통합성, 연속성을 유지함²⁵⁾
 - 내각관방의 지적재산전략본부에 의해 현재까지 경제산업성, 총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업성, 국토교통성 등의 정부 각처와 관계부처의 효과적인 연장과 협업을 위한 총체적 체제를 갖추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원과 정보 공유가 이루어짐²⁶⁾

23) 괴테 인스티튜트는 'The Museum Talk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의 박물관 종사자들과 함께 아프리카 박물관의 전망에 대해 논의함. 전세계 바우하우스의 국제적인 문화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Bauhaus imaginista'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함.
<https://www.goethe.de/en/uun/pub.html> (2020.03.17. 최종방문)

24)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지자체, 공공 및 민간기관 등 총 7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문화교류지표 시범조사에 따르면, 공공과 민간기관 모두 문화예술 영역의 교류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각각 66.9%, 65.9%).

25) 쿨재팬 전략 시행이후 총 7차례의 정권교체가 있었음.

26) 이찬숙(2020), 쿨재팬 정책의 전략 모델 연구 : 방송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 문화콘텐츠전공 석사학위 논문.

- 우리나라의 경우 정권교체에 따라 관리 체제가 바뀌는 등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움
- 또한, 이벤트 위주의 단기적 교류활동을 진행하는 등 전략적 효과나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함

○ 중국의 경우, 공자학원 등 기존 네트워크를 소통의 창구로 삼고 문화 및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음

- 공자학원, 화교사회, 해외중국문화센터 등 전 세계에 구축된 기존의 네트워크의 연대를 강화하여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세종학당, 한인사회, 재외문화원 등을 한데 아우를 수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 확립이 필요함

□ 시즌제 운영현황에서의 시사점

○ 영국은 구체적인 타겟과 주제를 설정하고 시즌 프로그램을 기획함

- 영국문화원은 18세에서 35세에 이르는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삼고 프로그램을 기획함
- 시즌제의 목적은 정부와 민간 등 모든 계층의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문화적 협력을 통한 다음 세대(coming generation, next generation)의 번영임
- 우리나라의 문화교류 행사는 구체적인 주제 없이 문화예술 및 전통 문화 분야에 편향된 경향이 있음.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주제와 타겟을 정하고 행사를 기획하는 전략적인 운영이 요구됨

○ 영국과 프랑스 시즌의 경우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민간단체에서 주도함

- 영국과 프랑스는 문화예술단체의 참여 신청을 상시적으로 받아 선별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함
- 우리나라도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의 신청을 상시적으로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보는 상대국의 수요에 맞는 행사를 기획하는데 도움이 됨

- 시즌제 기간에 운영되었던 교류 프로그램이 시즌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17년 일본 내 러시아 시즌 기간에 진행된 클래식 콘서트 <Russia-Japan Cultural Bridge>는 2019년에도 진행됨²⁷⁾
 - 2017년 UK/UAE 시즌 동안 진행되었던 교육프로그램은 2019년까지 지속됨²⁸⁾
 - UK/UAE 2017 ‘창의적 협력의 해(Year of Creative Collaboration)’는 영국문화원이 주최했으며 양국 간의 오랜 관계를 축하하며 기존의 문화 및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양국의 문화적 교류를 위해 시즌 프로그램에 여러 문화 단체와 함께했으며, 영국과 UAE의 40개 이상의 파트너 단체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구체화함
 - 2017년 봄 시즌에는 UAE 전국에 걸쳐 140개가 넘는 이벤트와 90편의 영화 상영이 진행되어 8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함
 - UK/UAE 2017 시즌제는 UAE Vision 2021에 따라 공동체, 포용, 다음 세대의 테마를 계속해서 확장해갈 계획임²⁹⁾
 - 영국문화원은 연중 내내 대략 100명의 영국 및 UAE 파트너와 협력하여 기존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을 시작함
- 시즌제는 국제문화교류 행사이자 수교를 기념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사이기도 함
 - 시즌제는 자국 문화를 홍보하는 국제문화교류 행사이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수교기념 시기에 맞추어 시즌제를 진행하는 등 전략적으로 시즌제를 활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시즌제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수교기념행사를 시즌제를 통해 진행하면 예산이나 프로그램의 기획 등에서 더 안정적으로 행사를 운영할 수 있음

27) 일본의 젊은 음악가와 러시아 마린스키 오케스트라의 협업 공연으로 2019년 12년 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행됨, 이 날 공연에는 1명의 일본인 지휘자와 3명의 클래식 음악 연주자들이 참여함. Marinsky Theatre Primorsky Stage 공식 홈페이지 https://prim.mariinsky.ru/en/playbill/playbill/2019/12/4/1_1900 (2020.03.11. 최종방문)

28) 이 프로그램은 신진 예술가, 음악가, 사상가 등이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마스터 클래스, 교육 워크숍 같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됨. <https://www.britishcouncil.ae/en/uk-uae-2017>

29) UAE Vision 2021은 UAE 연방 정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2021년을 기념하기 위해 발표한 장기 비전임. UAE는 지식 재산을 국가 핵심 자원으로 인식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지식기반 경제를 구축하고자 함. 사회·문화·보건·교육 등의 분야에서 경제 다변화를 목표로 함. UAE Vision 2021 공식 홈페이지 <https://www.vision2021.ae>

제3장 수교기념 문화행사 역할 및 현황분석

제1절 국내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역할

가.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국제문화교류로서 의미와 역할

1) 국제문화교류로서의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의미

- 수교는 외교적 관점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우호적 관계 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외교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는 용어임
 - 수교의 전제는 국가승인과 정부승인으로 전자는 다른 나라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를 인정하는 것임
 - 수교의 경우 영사관, 무역대표부, 공사관, 대사관 설치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영사관이나 무역대표부는 정식 외교관계 수립 이전에도 가능함
 - 양국 간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는 경우 공사관이나 대사관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공사를 파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거의 모두가 대사를 파견하고 있음
 - 그러나 정식 외교관계가 없더라도 민간차원에서 교류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음
- 국가간 수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김용호, 2015)
 - 첫째, '국제사회의 구조'로 미국과 소련의 양대 진영이 대립한 냉전 시기에는 국가의 진영에 따라 수교를 맺었으나 냉전의 종식 이후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수교가 가능하게 됨
 - 둘째, '나라의 국력(national power)'으로 국력이 강할수록 수교국가가 많아지게 됨
 - 셋째, '역사적 요인'으로 세계 모든 국가들은 이웃나라 간의 협력과 갈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양국 간의 수교와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침
 - 역사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온 국가들은 역사적 요인이 수교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전쟁, 식민지 지배, 영토 분쟁 등 갈등의 역사적 관계를 맺어온 국가들은 수교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국가 간의 관계는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포함한 정치관계와 경제관계 그리고 사회·문화관계를 포괄함

- 이러한 각 요소는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발전해 가기도 함
- 그러나 대체로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회문화관계를 따로 떼어 관찰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양국관계의 발전양상이라는 틀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교기념 문화행사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우호적 관계 형성, 즉 양국의 외교관계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각 수교국들의 국제사회 내 위치, 국력, 역사적 관계 등에 따라 수교기념 행사의 목표와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음

○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성격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국제문화교류 활동으로 수행주체는 중앙정부와 정부산하기관임

- 국제문화교류는 수행주체에 따라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됨
- 공공의 경우는 다시 중앙정부와 정부산하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있음
- 수교기념 문화행사는 정책적 목적이 개입된 종류의 문화교류로 ‘국가 간 문화교류’이자, 국가 간의 국제관계 수립을 기념하기 위한 ‘계기성 사업(수교기념 활동 등)’에 해당됨

○ 중앙부처에 의해 조직되는 국가 간 사업 중 계기성 문화예술·해외홍보 및 교류사업들은 개별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소액다건 위주의 지원 형태를 보이고 있음

- 특정한 주제 중심의 기획이나 교류네트워크 확장의 단계적 접근이 아닌 산발적인 행사 중심의 구성을 특징으로 함
- 수교기념 행사의 기획을 주도하고 진행하는 전담조직의 역할 부실로 부처별, 기관별로 관련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네트워크나 정보가 공공화되지 못하고 파편적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임

-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경우 학술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는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교를 맺은 국가와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는 문화교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수교기념 문화행사는 '수교'라는 외교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상호 간의 사회문화적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교류활동임
 - '문화'를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구적 관점과 이를 계기로 하여 국가 간 상호이해 및 협력을 통한 '문화 자체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본원적 관점이 혼재된 사업임
 - 수교기념은 국가 간 정식 외교관계 수립을 기념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국제관계를 관장하는 외교부 소관이나 수교기념 해를 지정하면서 이를 계기로 다양한 문화교류활동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기관,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교류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임

2)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역할

- 기존의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경우 선진국과 교류가 적은 국가들 간에 역할의 차이를 보임
 - 유럽, 북미, 중국, 일본 등 선진국가와는 현대예술(시각, 공연), 전통문화, 문학, 문화산업 등 다양한 장르의 교류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음
 - 특히 선진국 대상의 교류는 양국문화의 소개라는 1차원적인 교류에서 벗어나 한 가지 주제 및 테마를 정해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심도 있는 교류 시도가 있었음
 - 반면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들의 경우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수준의 교류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국가별 편차가 존재하였음
- 수교기념 문화행사는 한국문화 홍보 목적의 행사성 교류도 다수 포함됨
 - 한국문화 홍보 및 국가 간 수교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의 행사성 교

- 류는 그 주요 주체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되는 경우가 많음
- 이런 목적의 교류에 포함되는 교류행사들은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전시, 공연과 예술분야 전시, 공연 등이 주를 이루며, 대국민 대상의 페스티벌 등도 종종 포함됨
- 보통 양국에서 각종 다양한 전시, 공연, 학술행사 등이 개최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교류는 그간의 양국 간의 교류지속을 축하하고 향후 상호호혜적 관계의 지속을 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수교기념 문화행사는 양국 간의 호혜적인 관계와 교류를 지속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수교기념 문화행사 이후 비정부 및 민간부문에서의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이 필요

- 수교기념 문화행사는 교류목적의 특성상 장기적이기보다는 일회적이고 이벤트성의 프로그램이 많음
- 모든 수교기념 행사들이 정부주도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민간부문에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이 중요

○ 이미 충분히 민간부문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보다는 다양한 영역의 문화예술을 해외에 소개하여 이들이 향후 자생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정부의 역할은 문화예술 분야의 총체적인 성장과 발전 차원에서 교류를 위한 동기들이 상호 간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 민간기관의 국제문화교류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과 상관없이 추동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동기가 될만한 자극과 기회의 제공이 필요
- 민간부문의 예술단체들은 소규모 조직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력으로 해외교류와 진출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수교기념과 같은 계기성 사업의 일환으로 이들의 교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자발적인 교류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

- 과거에는 효율성 및 편의성 측면에서 결과물 중심의 교류가 활발했다면, 최근에는 국제문화교류 패러다임이 일방적인 문화의 전파나 홍보가 아닌 ‘상호존중 및 이해와 협력’의 관점으로 변화되고 있음
 - 이를 반영하여 기획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제작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등 ‘과정’이나 공동프로젝트 중심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추세³⁰⁾
 - ‘과정 중심’ 교류방식의 활성화는 최근 국제문화교류의 지향점이 이전과 달리 공유, 협력, 존중, 이해 등의 가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향후 수교기념 문화행사 역시 콘텐츠 구성 방식의 다변화가 필요

- 수교기념 문화행사를 비롯한 국가 간 문화교류활동은 민간의 활동 동기와 역량이 더욱 큰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인력, 혹은 물리적 인프라를 통해 지원하고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함
 - 국가 간의 문화교류는 문화수출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를 넘어 수용국의 문화발전과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도 고려
 - 즉 문화소비의 확산과 촉진을 통해 얻게 될 1차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를 넘어서 타문화 수용을 통한 새로운 문화의 창조라는 2차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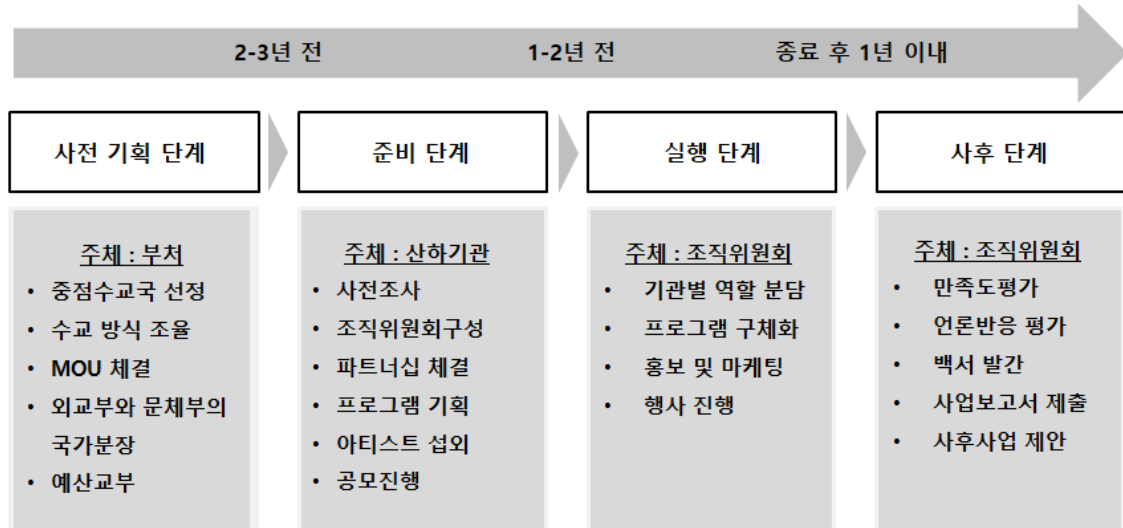
- 또한, 수교기념 문화행사 관련된 국가 간의 공통적인 교류목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가라는 민감한 논의구조를 유지하면서 민간의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30) 문화체육관광부(2018), 국제문화교류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제2절 국내 수교기념 문화행사 현황 분석

가. 수교기념 문화행사 절차

[그림 3-1] 수교문화 행사 절차



1) 사전 기획 단계

□ 외교부와 문체부가 중점수교국 선정

- 통상적으로 10년과 25주년 주기로 열리는 수교기념 문화행사는 외교부와 문체부 간 회의를 통해 중점수교국을 선정함
- ‘상호교류의 해’ 혹은 ‘수교기념 문화교류’의 형태로 진행하되, 주요 수교 국가의 경우 양국 문화부 장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상호 문화교류의 해」 형태로 사업을 추진함

□ 문체부와 외교부 간 담당 국가 분장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문화과와 외교부의 공공문화외교국 간의 조율을 통하여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

로 국가를 기준으로 2년 전에 결정되어 산하기관으로 전달됨

- 주로 한국문화원이 있는 수교국의 경우에는 문체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원이 없는 경우 해외공관을 산하기관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교부가 담당하고 있음

2) 준비 단계

- 부처에서 논의된 사항은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으로 전달되고, 전담기관은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함
- 사전기획 및 운영 강화를 위해 최소 2-3년 전부터 수교기념 국가 대상 행사계획을 수립
- 문체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이 전담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외교부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프로그램은 민간 공모에 의해 구성되기도 하고, 조직위원회의 예술감독 등에 의해 비공개로 섭외 및 구성되기도 함
- 민간 공모로 진행하기에는 예산 및 타임라인의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음
- 행사 프로그램은 사전조사를 통해 수교국이 한국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3) 실행 단계

- 조직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역할 분담을 하고, 프로그램 기획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행사 진행 1-2년 전에 시작됨

- 홍보 및 마케팅은 주로 현지 언론을 위주로 진행됨

4) 사후 단계

- 행사종료 후 자체적인 사후 평가를 진행함
 - 주로 관람객들의 만족도 평가, 객석 점유율, 관람객 수, 국내/외 언론 보도 수 등의 객관적 지표와 진행에서의 애로사항 등이 포함됨
- 백서 발간은 정례화되어 있지 않음
 -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경우 백서를 발간하여 공연예술, 시각예술, 영화, 문학, 교육·학술 등 전체 일정 및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수록하였음
 - 반면, '2017-2018 한-영 상호교류의 해' 등 대부분의 수교행사에 대한 백서는 발간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백서 발간이 정례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수교기념 본 행사종료 후, 기관들에 따라 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음
 - 한국은 1년 단위로 예산을 집행하고,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는 반면, 유럽국가의 경우 주로 3년 단위의 계획이 정례화되어 있어 후속 사업 계획을 세우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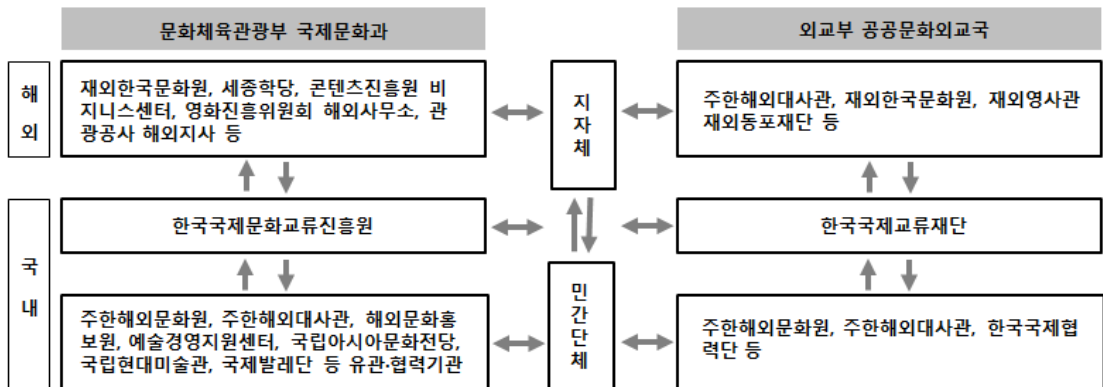
나.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추진체계

- ☐ 외교부 총괄 하에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가 수교기념 행사의 소관 부처로 지정되어 있음
- 문화·예술 교류와 관련된 행사들은 주로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KOFICE), 한국국제교류재단(KF) 등 정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실무를 수행함³¹⁾

31)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 2017-2021

-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 행사 추진을 위한 유관부처, 기관의 참여 독려 및 체계적, 효율적 협력을 강화함
- 아래 표는 문체부와 외교부, 해외와 국내로 구분한 추진 주체 및 추진 체계를 나타냄

[그림 3-2] 수교기념 문화행사 추진체계



- 수교기념 행사는 외교부가 총괄부처가 되어 지휘하며, '교류의 해' 선정 기준, 행사 진행방식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담당 국가를 분장하고 있음
- 수교기념 행사를 포함하여 외교적 사건·행사와 관련된 문화교류사업의 경우 외교부를 통해 직접 지원되는 한편, 문체부와 재외한국문화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국제문화교류 사업이 있음. 이는 사업이 중첩되거나 이중으로 집행되는 시스템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이에 문체부와 외교부는 국제문화교류와 공공외교 부문에서의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문체부-외교부 간 국장급 간담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함
 - 수교기념 문화행사 등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사업의 중첩을 최소화 하고, 문체부와 외교부 양 부처 간 역할중복 방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함
 - 또한,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 공공외교 사업내용에 관한 정보를 주기

적으로 교환·공유하려는 목적도 있음

-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경우 2012년부터 외교부와 문체부 간 협의를 통해 차년도 수교행사 국가에 대한 업무를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함
 - 선정 기준은 문화원·문화홍보관 주재·인근 지역과 전략적 거점국의 경우 문체부가 업무를 수행하고 외교부는 문체부 선정 지역 이외 지역을 대상으로 함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외교부와 문체부의 수교문화행사 대상 국가 분장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음
 - 최근 5년간(2015~2019년) 문체부의 수교문화행사 대상 국가는 총 20개국으로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이집트(이상 2105년), 프랑스, 레소토(이상 2016년), 터키, 모나코, 부탄(이상 2017년), 태국, 보츠나와, 스와질랜드(이상 2018년), 덴마크, 헝가리, 폴란드, 필리핀, 브라질, 쿠웨이트(이상 2019년) 등임
 - 외교부의 최근 5년간(2015~2019년) 수교문화행사 대상 국가는 일본(2015년), 파푸아 뉴기니(2016년), 바베이도스(2017년), 도미니카연방(2018년), 노르웨이(2019년) 등 43개국임

[표 3-1] 2015-2019 수교문화행사 대상국가 분장 현황

연도	부처	해당국가
2015	외교부 (13)	일본, 베네수엘라, 트리니다드 토바고, 예멘, 안도라, 몰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팔라우, 수리남, 바하마, 말라위, 감비아
	문체부 (6)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이집트 * 베네수엘라는 외교부 주관 수교기념 행사와 시차를 두고, 문체부에서 집중문화예술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2016	외교부 (5)	파푸아 뉴기니, 바레인, 세이셸, 기니, 몬테네그로
	문체부 (2)	프랑스, 레소토
2017	외교부 (9)	바베이도스, 벨리즈, 몰디브, 스리랑카, 캄보디아, 수단, 가나, 지부티, 소말리아
	문체부 (3)	터키, 모나코, 부탄

2018	외교부 (6)	도미니카연방, 가이아나, 솔로몬제도, 투발루, 상투메프린시페, 카보베르데
	문체부 (3)	태국,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2019	외교부 (10)	노르웨이, 세르비아, 스웨덴, 나우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스, 튀니지, 이라크, 코모로, 적도기니
	문체부 (6)	덴마크, 헝가리, 폴란드, 필리핀, 브라질, 쿠웨이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문화과가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담당하며 해외 문화홍보원, 재외한국문화원 등을 통한 해외 현지정보 수집 및 한국의 해외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음
- 문체부는 각 국과의 수교 등 주요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교류행사를 추진하거나 해외문화원과 홍보관을 통해 우리 문화의 해외 진출 및 문화산업경쟁력 강화와 한국문화 이미지 홍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문화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이 이를 실행
- 문체부의 국제문화교류 지원체계는 아래와 같음

[그림 3-3] 국제문화교류 지원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종합계획(2018)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은 수교문화 행사에서 매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2018년 2월,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음

-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2조에 의거하여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전환됨
- 국제문화교류 지원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국내외 국제문화교류 유관기관·협력기관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운영됨

○ 기능을 확대 개편하면서 매개기능, 연구기능, 집행기능 등을 강화함

- 매개기능은 국내외 문화교류 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제공 기능 등임
- 연구기능은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국제문화교류 정책 연구 및 개발, 지자체 대상 국제문화교류 컨설팅 운영 등임
- 집행기능은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사업, 문화 ODA 사업, 수교 등 주요 계기 국제문화교류 행사 지원 등임

□ 재외 한국문화원은 문체부 소속 현지기관들은 실질적인 촉매의 역할을 수행함

○ 재외 한국문화원의 주요기능 및 역할은 '국제문화교류의 증진과 우리 문화의 홍보'임

- 전시 및 공연 등 문화예술분야의 교류 사업을 주로 추진하며,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강좌 등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문화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또한,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분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는 재외 한국문화원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수교문화행사 수행에 필요한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함

○ 재외 한국문화원의 문화원장의 역할 및 구성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

- 현재 한국문화원 인력은 평균 7~8명(작은 곳이 5명~큰 곳이 12명)으로 구성되며, 통상적으로 현지에서 채용함
- 문화원장은 문화홍보 분야의 주재관이 보임하고, 외교관 신분으로 국내에서 파견됨
- 재외 한국문화원 관련 업무는 문체부 국제문화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원 사업과 운영 관련 일부 업무를 해외문화홍보원이 지원하고 있음

다. 수교기념 문화행사 추진현황

1) 연도별 수교기념 문화행사 세부 현황

□ 2015년 수교기념 문화행사

① 한국-싱가포르

- 수교 40주년 기념행사로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오픈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케이팝 경연대회(SGKstar 2015)', '한-싱 수교기념 세미나 및 리셉션'이 개최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싱가포르 건국 50주년 및 한-싱 수교 40주년 기념 사진전', 제2차 한-싱 포럼 등이 개최됨
-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한국 영화제, 2015 K-Pop 페스티벌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주최함
 - 2015년 12월 4~6일, 3일간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 베이 샌즈 컨벤션 센터(Marina Bay Sands Convention Centre)에서 한국-싱가포르 수교 40주년을 기념하는 SGKstar 2015 행사가 열림
 - 유명 케이팝 스타의 공연 및 클래식공연과 함께 이영희 한복디자이너의 패션쇼가 개최됨
- 한국에서는 수교를 기념하기 위해 서울파이낸스에서 '싱가포르 건국 50주년 및 한-싱 수교 40주년 기념 사진전'을 개최함
 - 사진전은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The Straits Times)와 싱가포르 국립 박물관 컬렉션의 소장 사진들 중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사진들로 구성

- 'We : Defining Stories'라는 이름 아래 싱가포르와 그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됨

② 한국-미얀마

- 한국과 미얀마의 수교 40주년을 기념해 '2015 미얀마 한국 주간' 행사가 5월 21일~24일까지 진행됨
- 양국 수교 4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 주간 행사가 개막하여 한국 우수상품전, 한국도자기전시회, 한국음식홍보행사, 한복패션쇼, 한-미얀마 포럼, 한국전통연희 공연 등이 개최됨
- 개막행사에는 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학계 등의 주요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하고, 한국 전통 복식을 소개하는 한복패션쇼가 진행
- 미얀마 최대 전시공간인 '미얀마 이벤트 파크'에서 24일까지 양곤한국 우수상품전, 한국도자기전시회가 열리고 한국음식홍보관이 설치
 - 양곤한국우수상품전에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포스코, 대우인터내셔널 등 한국의 대기업과 80여 개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선보임
 - 도자기전시회에서는 한국의 유명 도예가 30여 명이 출품한 약 100여 점의 도자기가 소개되었음

③ 한국-라오스

- 한국과 '한·미얀마 수교 40주년'과 '한·라오스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 '다이나믹 플러스'가 미얀마 컨벤션 센터와 라오스 비엔티엔 내셔널 컬처홀에서 각각 개최됨
- 공연은 국악, 퓨전밴드, 비보이, 상모, 태극무 그리고 다도 퍼포먼스로 구성

- 또한 한국과 라오스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민간단체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됨
- 사단법인 한국·라오스친선협회는 마포의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국을 라오스에, 라오스를 한국에'라는 슬로건 아래 특강 및 공연 등을 개최함

[표 3-2] 2015 수교국가별 세부 행사 및 프로그램

년도	행사명	세부 행사 및 프로그램
2015	한-싱가포르 수교 40주년 기념행사	<싱가포르> - 행사명: 싱가포르 오픈미디어 아트페스티벌 - 장소: - 행사명: 케이팝 경연대회, SGKstar 2015 - 장소: Marina Bay Sands Convention Centre - 행사명: 한-싱 수교 기념 세미나 및 리셉션 개최 <한국> - 행사명: 싱가포르 건국 50주년 및 한-싱 수교 40주년 기념 사진전 - 행사명: 제2차 한-싱가포르 포럼 개최
	한-미얀마 수교 40주년 기념행사	<미얀마> - 행사명: 한국도자기 전시회 - 행사명: 한국 일류상품전 - 행사명: 다이내믹 플러스 공연 - 장소: 미얀마 컨벤션 센터
	한-라오스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라오스> - 행사명: 다이내믹 플러스 공연 - 장소: 라오스 비엔티엔 내셔널 컬처홀 <한국> - 행사명: '한국을 라오스에, 라오스를 한국에' 특강 및 공연 - 장소: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

☐ 2016년 수교기념 문화행사

① 한국-프랑스

- 한-불 수교 130주년(2016년)을 기념하여 정치·경제, 문화·예술, 교육, 과학기술, 청소년 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한국과 프랑스 간의 교류협력 행사를 개최함

- 한국과 프랑스 양국은 2015-2016년을 한-불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하며 최장 기간(1년 반), 최다 분야(문화, 교육, 과학기술, 경제·산업 및 지자체 교류), 최대 규모(350여 개 행사)로 대대적인 국가 간 수교기념행사를 마련하였음
 - 한-프랑스 간 교류협력 강화, 양국민 상호 이해 제고라는 목적하에 행사는 ‘프랑스 내 한국의 해’(2015년 9월~2016년 8월)와 올해의 ‘한국 내 프랑스의 해’(2016년 1월~2016년 12월) 행사로 진행
 - 프랑스의 경우 행정 절차상 연도별 회계 기준이 한국과 달라 동일한 사업이지만 ‘프랑스 내 한국의 해’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한국 내 프랑스의 해’는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양국별 행사 개최 시기가 다르게 진행됨
- ‘프랑스 내 한국의 해’ 개막공연은 한국의 전통 종합문화예술인 종묘제례악이,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개막 공연은 한불 협력 창작 무용공연 ‘시간의 나이’가 개최됨
- 프랑스 내 한국의 해 개막공연은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종묘제례악 전편이 온전하게 공연되는 것으로서, 115명의 예술가(국립국악원 정악단 83명, 무용단 등)가 참가하였음
 -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개막공연 ‘시간의 나이’는 프랑스의 세계적 안무가 조세 몽탈보가 연출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무용단이 함께 참여하여 제작한 창작공연임
- 그밖에도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전시장(Paris Expo Porte de Versailles)에서 개최되는 ‘2016 파리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참가

[표 3-3] 2016년 수교국가별 세부 행사 및 프로그램

년도	행사명	세부 행사 및 프로그램
2016	한불 수교 130년 기념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	<p><프랑스 내 한국의 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명: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개막공연 ‘종묘제례악’ - 장소: 국립샤이오극장(Theatre National de Chaillot) - 행사명: 이불, 새벽의 노래 III 전시 - 장소: 파리 팔레 드 도쿄 - 행사명: 코리아나우! 한국공예전 - 장소: 파리 국립장식미술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명: 배병우 사진전 - 장소: 투르 상보르성, 생테티엔 메트로폴 현대미술관 - 행사명: 서울, 빨리 빨리 전시 - 장소: 릴 트리포스탈 - 행사명: 테크노 퍼레이드 - 한국주빈국 <서울 밤!> 투어 - 장소: 파리 카로 뒤탕플, 그랑 리비즈 외 - 행사명: 2016 파리도서전-한국주빈국 - 장소: 파리 엑스포 포트 드 베르사유 - 그 외 다수 행사 진행 <p><한국 내 프랑스의 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명: 개막공연 한-불 합작 국립무용단 공연 '시간의 나이' -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행사명: 보이지 않는 가족 전시 -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 행사명: 에코 시스템- 질 바비에 전시 -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 행사명: 홈 시네마 전시 - 장소: 대구시립미술관 - 행사명: 광주비엔날레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 장소: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외 - 행사명: 제13회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프랑스 포커스 - 장소: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 행사명: 2016 서울 국제도서전-프랑스 포커스 - 장소: 코엑스 - 그 외 다수 행사 진행
--	--	--

□ 2017년 수교기념 문화행사

- 한-터키 수교 60주년 기념 '터키영화제' 개막식에 터키와 한국이 공동 제작한 영화 '아일라'를 개막작으로 상영

[표 3-4] 2017년 수교국가별 세부 행사 및 프로그램

년도	행사명	세부 행사 및 프로그램
2017	한-터키 수교 60주년 문화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명: 한국-터키 수교 60주년 기념 '한국문화의 날' 행사 - 장소: 양카라 국립도서관 - 행사명: 2017 제36회 이스탄불국제도서전 주빈국 행사 - 장소: 터키 이스탄불 튜압전시장

한-부탄 수교 30주년 기념 문화행사	- 행사명: 한-부탄 수교 30주년 기념 문화행사 - 부탄 팀푸(Thimphu)의 클락 타워(Clock Tower)
----------------------	---

□ 2018년 수교기념 문화행사

- 한국과 태국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 한-태국 공통 다큐멘터리 제작 등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
 -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은 태국 왕실이 후원하는 대표 클래식 축제인 ‘방콕 국제 댄스앤뮤직 페스티벌(Bangkok’s International Festival of Dance & Music)’ 조직위원회의 초청으로 태국 방콕의 태국문화센터에서 진행됨
 - 또한, 한국과 태국, 양국의 영상예술 전공 학생들이 ‘청년, 한국과 태국 만남의 기억과 교류의 현재를 찍다’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공동으로 제작함
- 한국과 에스와티니 왕국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7월 31일(화)부터 8월 7일(화)까지 남아프리카 3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왕국]에서 최대 규모의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

[표 3-5] 2018 수교국가별 세부 행사 및 프로그램

년도	행사명	세부 행사 및 프로그램
2018	한-태국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교류 프로그램	- 행사명: Music is Connected-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 장소: 태국문화센터 - 행사명: Film is Connected-한-태국 공통 다큐멘터리 제작 - 참여: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및 태국 쉐랄롱꼰대학교 - 장소: 태국 현지 워크숍 개최 및 다큐 제작 한국 최종 상영회 및 콘퍼런스 개최
	한-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수교 50주년 문화예술 행사	- 행사명: 한-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수교 50주년 문화예술 행사 ‘Culture_Connected’ 공연 - 장소: 남아공 (프리티리아 대학 Aula 극장), 보츠와나 (가보로네 국제 컨벤션 센터), 에스와티니 (로알 스와지 호텔 컨벤션 센터) - 행사명: ‘한-남아공 여성 문화전’ 개최 - 장소: 남아공 국립 디트송 문화사 박물관

□ 2019년 수교기념 문화행사

- 한·덴마크 상호문화의 해와 한·헝가리 수교 30주년 기념 <목향> 공연이 진행됨
 - 국립무용단 <목향>은 헝가리의 가장 큰 문화축제로 알려진 ‘부다페스트 스프링 페스티벌’*의 프로그램으로 선정됨
 - 헝가리의 일반 관객들은 물론, 문화예술 관계자 등 폭넓은 대상에게 한국 문화예술 콘텐츠를 선보이고, 상호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기회를 마련함
- 한-쿠웨이트 수교 4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 전통과 현대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을 공연이 개최됨
 - 한-쿠웨이트 수교 40주년 기념 공연으로 UAE아부다비를 포함한 순회 공연을 추진하여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행사를 도모함
 - 동시에 UAE 아부다비 코리아페스티벌 개막공연으로도 추진됨
- 한-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하여 ‘격격, 한국의 멋’ 공연과 한-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사진전이 열림
 - 양국의 대표적인 민요와 가곡을 관현악으로 편곡해 양국의 전통과 역사를 담은 공연이 개최됨
 - 남도 아리랑을 비롯해 개량대금 협주곡 ‘풀꽃’, ‘아리랑 로드’ 등 한국 전통음악을 선보임

[표 3-6] 2019년 수교국가별 세부 행사 및 프로그램

년도	행사명	세부 행사 및 프로그램
2019	한·덴마크 상호문화의 해/한·헝가리 수교 30주년 기념 <목향>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덴마크 상호문화의 해 계기 국립무용단 <목향> 공연/4.13, Det Ny 극장 - 한·헝가리 수교 30주년 기념 국립무용단 <목향> 공연/4.18, 무파 부다페스트 극장
	2019 한-쿠웨이트 수교 40주년 기념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명: 한-쿠웨이트 수교 40주년 기념 공연 - 장소: 쿠웨이트 압둘후세인 압둘리다 극장 - 행사명: (UAE) 아부다비 코리아페스티벌 개막공연 - 장소: 아부다비 문화재단 (Abu Dhabi Cultural Foundation) * 한-쿠웨이트 수교 40주년 기념 쿠웨이트 공연 계기 UAE아부다비를 포함한 순회 공연을 추진하여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행사 도모

한-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명: 격格, 한국의 멋' 공연 - 장소: 폴란드 바르샤바 드라마티츠니 극장 - 행사명: 한-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사진전 - 장소: 폴란드 하원 의사당
2019년 한-필리핀 상호교류의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명: 2019 필리핀 한국영화제 - 장소: · 개막식 및 감독 무비토크: 2019. 11. 6.(수), SM아우라 삼성홀 영화 상영회: 2019. 11. 7.(목)~8.(금), 마닐라 및 순회도시 6개 · 한-필 시네마 포럼: 2019. 11. 8.(금), 필리핀국립대학 미디어센터

라. 수교기념 문화행사 실적 및 성과

□ 2015-2016년 한불 수교 130년 기념행사 성과

○ 2015-2016년 한불 수교 130년 기념행사의 양적 성과는 다음과 같음

- 공식인증 사업은 492건으로 문화예술 분야 399건, 일반 분야 93건, 양국의 사업추진 장소는 파리 외 75개 도시, 서울 외 33개 도시에서 이뤄졌으며, 참여한 예술가와 관계자는 2만 6000여 명에 달함
- 공연 분야의 경우 양국에서 진행된 전체 사업 건수는 162건이며, 소개된 작품 수는 648개로 한 개의 사업에 평균적으로 4편의 작품이 소개되었으며, 전체 공연 횟수는 1,350여 회, 관람객 수는 179만으로 집계됨
- 전시 분야의 사업 건수는 114건이며, 사업을 통해 양국에서 소개된 작품 수는 9천여 개에 달하였고, 전시 기간은 평균적으로 109일, 관람객 수는 769만 명으로 추산됨
- 영화 분야의 사업 건수는 33건이며, 소개된 영화 편수는 200여 편으로 1개 영화제당 6편의 영화가 소개되었고 관람객 수는 약 20만 명으로 집계됨
- 기타 분야의 경우 사업 건수는 22건이며 관람객 수는 86만 명에 달함
- 이 가운데 <2016 파리도서전 주빈국 참가(Salon du Livre de Paris)>는 프랑스출판협회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세계적인 도서 전시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 작가들의 인터뷰, 국제학술행사, 출판인과의 인적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진행됨

[표 3-7] 한-불 수교기념 행사 분야별 사업 수 및 관람객 수

분야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한국 내 프랑스의 해	
	사업수	관람객수	사업수	관람객수
공연	98	83만	64	96만
전시	62	578만	52	181만
영화	16	12만	17	8만
기타	14	71만	9	15만
합계	190	774만	142	300만

- 사업은 양국 간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진행했기 때문에 대다수 프로그램은 공동기획, 공동주관으로 이루어짐
 - 다양한 교류 방식과 협력 프로젝트의 유형을 보여주었는데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포커스나 주변국 형태는 87건, 공동제작 44건, 레지던스 및 워크숍 15건임
 - 또한,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양국에서 동일하게 진행된 사업은 48건이며, 파트너십을 공유한 양측 기관이 상대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교차 사업은 38건에 이르며, 사업기간 동안 순회공연을 진행한 사업은 39건에 달함
- 한불 수교 130년 기념행사의 질적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합의 지향적 과정으로서의 국제문화교류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
 - 둘째, 공동제작과 협업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민간 교류의 지속 가능성을 이끌었다는 점
 - 셋째, 국가, 지역, 민간이 참여하는 다핵적 구조를 지향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한불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정책결정 과정은 관료적 하향식(top-down) 결정이 아닌 합의 지향적(consensus-oriented)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발전된 국제문화교류의 모델로 자리매김함
 - 양국 간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진행했기 때문에 대다수 프로그램은 공동기획, 공동주관으로 진행한 것이 특징임
 - 한-프랑스 수교 120주년을 맞아 진행되었던 2006년의 사업 경험과 성과가 이번 2015-2016년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밑거름이 된 것으로

평가됨

- 비록 수교 2006년의 120주년 기념사업은 사전 준비 기간이 짧고 사업의 규모도 작았지만, 분야별로 주목할 만한 공동제작과 공동기획 사업을 진행하였음
- 또한,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위한 단계별 과정을 염두에 두고 전문 기관 간의 매칭에 주력함
- 특히 2015-16년에 진행된 사업 가운데 공동제작과 교차 프로그램, 인적교류 등 종합적인 영역에서 교류사업이 활발히 진행된 '거리극 분야'의 사업의 경우 2006년에 진행한 협력사업을 토대로 지속적인 인적교류가 바탕이 되어 사업이 확장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공동제작은 양국의 예술가나 기관, 축제, 예술단체 등이 만나 지속가능한 예술교류의 토대를 조성함

- 이번 2015-16년 한불 수교사업의 프로그램은 양국 참여 주체들 간의 공동기획에 의해 국제 문화교류의 다양한 교류 방식과 협력 프로젝트의 유형을 발굴하는 계기가 됨
- 또한, 다음 단계의 사업 확장성(투어공연 연계나 후속 프로젝트 발굴 등)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교류형태임을 알 수 있음

○ 한불 수교 130년 기념행사는 양국의 수도뿐 아니라 전 지역으로 확산하고자 여러 거점 대상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기존 수교문화행사는 수도 등 하나의 도시에서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한불 수교 130년 기념행사는 프랑스 전 지역에서 진행됨
- 한국의 전통문화 유산을 소개하는 대규모 전시와 아트페어 등은 주로 파리에서 진행되었지만 다양한 전시와 공연 프로그램은 프랑스 주요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전역에 걸쳐 진행됨
- 주요 거점 도시는 리옹, 니스, 칸느, 아비뇽, 마르세유, 낭트, 모비앙, 바뇰레, 릴, 메츠 등으로 150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됨
- 이는 수교기념 문화행사가 국가 대 국가가 교류하는 일원적 교류형태에서 벗어나 국가, 지역, 민간 등이 참여하는 다핵적 구조의 교류형태로 발전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2018년 수교기념 문화행사 성과

- 2018년 수교기념 문화행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태국과 이루어졌으며 총 1,252백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됨
 - 주요 정부 관계자, 문화예술 관계자, 일반 관객 대상 문화 교류 행사를 진행하였음
 - 4개국에서 진행된 교류 프로그램의 총 관람객은 9,765명으로 집계됨
 - 관람객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6,037명, 보츠와나 410명, 에스와티니 450명, 태국 2,996명 등임
- 2018년 수교기념 문화행사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각 수교국 정부 관계자, 주요 문화예술관계자와 긴밀한 협력 아래 업무를 진행하고, 현지 정부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수교국 대표 작품을 공동으로 소개하여 국가 간 신뢰도 상승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음
 - 현지 국립박물관, 유명 예술대학 소재 전문 공연장, 오랜 역사와 명성을 가진 국제 음악제, 현지 주요 문화산업 에이전시 소속 공연장 등 현지 문화·예술 생태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 문화 시설과 축제를 중심으로 우리 문화를 시연하여 현지 주요 관계자와의 교류를 확대함
 - 2017년도 수교 계기 문화행사와 비교하였을 시, 한 국가당 평균 관람객 수는 약 2배, 현지 보도 건수는 약 3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8] 2018년 수교기념 문화행사 추진실적

국가	일자	프로그램명	총관객	장소	상세 내용
남 아 공	7.25- 8.26	전시	5,317	남아공국립 문화사박물관	·한·남아공 여성 문화전
	7.31	남아공 공연	720	프리토리아 대학 Aula 극장	·남아공 대표 공연단
		음악			·창작국악 <이상> 공연
		무용			·한예종 무용원 <단청>
		스포츠			·국기원 태권도 시범
보 츠 와	8.3	보츠와나 공연	410	가보로네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	·보츠와나 대표 공연단
		음악			·창작국악 <이상> 공연

나		무용			·한예종 무용원 공연
		스포츠			·국기원 태권도 시범
에 스 와 티 니	8.7	에스와티니 대 표	450	로얄 스와지 컨벤션 센터	·에스와티니 대표 공연단
		음악			·창작국악 <이상> 공연
		스포츠			·에스와티니 태권도 협회 시범 ·국기원 태권도 시범
태 국	9.24	음악	1,128	태국 문화 센터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문지영 협연
	10.6	태국 대표	1,868	GMM Live House	·태국 대표 공연단
		스포츠			·국기원 태권도 시범
		음악			·노름마치&고릴라 크루

출처: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2019년 수교기념 문화행사 성과

- 2019 한·덴마크 상호문화의 해 기념과 한·헝가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공연 <목향>이 덴마크의 Det Ny 극장과 헝가리의 무과 부다페스트 극장 페스티벌 씨어터에서 각각 진행됨
 - 행사 사업비로는 403백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덴마크와 헝가리에서 개최된 2회 공연의 총 관람객 수는 1,486명으로 집계됨
 - 덴마크는 1,046명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고 총 객석 수 909석 기준으로 점유율 115%, 유료관객 294명, 초대관객 752명으로 집계됨
 - 헝가리는 440명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객석 수 450석으로 기준으로 점유율 97.7%, 유료관객 360명, 초대관객 80명으로 집계됨
 - 수교 계기 문화행사를 통한 한국문화 호감도를 덴마크 관람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관람객의 만족도는 7점 만점에 6점을 기록하며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한-쿠웨이트 수교 40주년 기념행사는 UAE 아부다비를 포함한 순회공연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행사를 도모하여 약 337백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됨
 - 관람객 수는 UAE 660석 중 500석인 약 80%를 점유하였고 쿠웨이트

- 는 770석 중 약 1,000석인 약 120%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남
- 현지 보도의 경우 UAE 주요 매체 Gulf Times에 전면 보도되었으며 (2019. 10. 22), UAE 공영방송 인터뷰(2019. 10. 24), 쿠웨이트 라디오 방송(2019. 10. 24) 등에 소개됨
 - 관객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UAE는 81%가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쿠웨이트는 59%가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한-필리핀 상호교류의 해를 계기로 기존 영화제 프로그램 확대와 전문가 활용을 통해 한국영화제의 내실화와 전문성을 확립하여 현지에서 자생력 구축하기 위하여 2019 필리핀 한국영화제를 개최함
- 사업비는 약 107백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필리핀 내 마닐라를 포함한 7개 도시에서 3개의 프로그램이 추진됨
 - 프로그램의 총 관람객 수는 14,700여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63명) 7점 만점 중 6.6점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2019 필리핀 한국영화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영화들과 필리핀 현지에서 흥행했던 작품들로 상영회를 구성하여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독립영화 비중을 높여 한국영화의 다양성 소개와 관객 개발에 이바지함
- 양국 영화계 주요 관계자 교류로 전략적 네트워크 확보, 포럼 진행을 통해 필리핀영화개발위원회,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필름마켓, 영화제작사 등 주요 관계자들 네트워킹 장을 마련함으로써 및 향후 협력 가능한 전략적인 네트워크를 확보하였음
 - 국내외 언론보도 총 28건(국내 12건, 현지 16건) 기록, ABS-CBN, GMA 등 현지 대표 언론사 인터뷰 진행과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 채널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다고 평가됨
- 2019년 한-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공연은 한국 정서와 폴란드 정서에 맞게 재구성하여 관객과의 공감대를 형성함
- 관람객 수는 총 5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객석 수 550석 기준으로 점유율 90%를 기록함

- 폴란드에서 첫 대규모(연주자 60명) 국립국악관현악 공연을 개최함으로써 수교계기 기념공연을 계기로 한국의 우수한 문화예술을 해외에 알리는 사례가 됨
 - 좌석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공연 전부터 현지 관객의 반응이 매우 높았으며, 공연 프로그램은 한국 정서와 폴란드 정서에 맞게 재구성하여 관객과의 공감대 형성에 성공하였다고 평가됨
- 한-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는 공연뿐 아니라 현지 주요 작곡가 연계 등 맞춤형 교류 프로그램(3회)을 추진하여 전문가 간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수교기념 공연 외 현지 음악전문가 교류프로그램과 주요 음악축제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하여 향후 공동기획 협의 및 문화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함
 - 양국 간 문화관계자 네트워킹 확대를 통해 음악을 매개로 한 문화분야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음
- 기존의 수교기념 문화행사는 국가와 국가 간 이뤄진 단발성의 행사가 대부분이었으나 한불 130주년 교류를 기점으로 다원적 교류의 형태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임
- 수교기념 문화행사는 국가 간 수교를 기념하기 위한 문화행사로서 양국 정부와 정부기관이 중심축에 놓일 수밖에 없지만 한불 수교기념 행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협업프로젝트 중심으로 민간 부분의 교류를 확대시키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며 민간부분의 교류가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함

마. 기존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문제점

1) 주체 간 문제점

☐ 수교기념 문화행사 추진 기관 간의 모호한 역할 분담

- 수교기념 문화행사는 외교부, 문체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더불어 재외한국문화원,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업무가 추진되는 구조임

-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시행으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설립되면서 2018년 이후 수교기념 문화행사를 비롯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됨
 - 그러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상위기관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수교기념 행사를 추진해야 하는 입장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음
 -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업 준비기간이 필요하나 상위기관의 업무분장 및 사업 확정 등의 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임
 - 따라서 사업 조기 확정을 통한 현지 전문 공연장 및 전문 문화예술 축제와 연계하여, 한국 문화예술 파급력 극대화 및 수교계기 사업목적을 효과적 달성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통합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며,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하는 매개기능이 중점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설립 초기 단계에서는 수동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에만 머물러 있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하는 기능은 약한 상태임
- 재외한국문화원은 해외 수요를 파악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사업을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현지 운영에 대한 이해도 및 중요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함
- 재외한국문화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인력부족의 문제와 국제문화교류에 있어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현장운영 및 해외 전문가 관리, 모객 등에 대해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임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국제교류 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지 협력기관 확보가 필수이므로 재외한국문화원의 역할 강화가 중요함
- 사업을 총괄 승인하는 문체부의 역할, 국내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하는 진흥원의 역할, 현지에서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재외한국문화원의 역할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상위기관에서의 수교행사 역할 분담에 대한 지연으로 전담기관의 실질적 사업 투입이 지연됨

○ 매년 수교행사와 관련하여 외교부와 문화부의 수교사업에 대한 역할 분담이 늦게 되어, 조기 전략을 수립할 수 없는 부처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위 기관의 경우 수교 계기가 도래하는 것에 대한 예측은 가능하나 상위기관인 문화부 혹은 외교부에서 수교 계기 사업의 업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업 수행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음
- 현재는 상위기관에서 2년 전에 업무 분담에 대한 정리가 되고 있지만 공연장을 예약하고, 아티스트를 섭외하기에는 2년이라는 기간도 짧은 것으로 보여짐

2) 절차상의 문제점

□ 수교행사의 산발적 진행

○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수교기념 사업들을 통합하고, 네트워크 허브의 역할을 특정 기관의 채널을 통일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제문화교류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했으나 수행 기관별 예산을 받는 출처가 세분화 되어 있어 정보의 통합이 어려움

- 수교계기 국가로 기금지원 되는 출처가 문화부 안에서 세분화되어 있음. 예산교부를 받을 때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기금을 받는 출처가 조금씩 다름
-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경우는 상위기관인 문화부 국제문화과에서 교부 받음
- 재외한국문화원은 해외문화홍보원을 통해 교부 받음
- 이러한 시스템으로 수교 기념을 수행하는 각각의 기간들은 다른 기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통합하고, 수교기념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교기념 행사 프로그램의 정보들이 한 곳으로 취합되어야

함

□ 사업의 효과와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

- 수교기념 문화행사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교류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장·단기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성과목표가 설정되고 달성되어야 하는가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성과평가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단위임
 - 그러나 개별 사업들은 어떤 목표에 근거해서 활동의 성과가 평가되어야 하는가를 설정하기 어려움
 - 현재와 같은 개별 사업들이 진행되는 방식에서는 성과평가가 어려우며 문화정책의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의 수준을 평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기존의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연구내용은 지원의 정당성과 방식, 지원 체계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이며 교류의 효과나 성과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국가 간 문화교류사업인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경우 전략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목표를 수립하여 진행되지 않아 세부적인 성과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있지 못함
 - 현재 세부 사업단위의 참가자 또는 관람객 대상의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 체계적인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단순한 인식 조사에 그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목적이 상업적 이익보다는 국가 간의 이해와 신뢰의 증진에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사전 시장 조사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현지 상호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음

- 현지 상호교류를 위해서는 현지 문화예술기관 혹은 문화콘텐츠를 원하는 현지의 대중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공급해야 함
 -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차적 문화 수교 파트너인 재외한국문화원 혹

- 은 재외공관의 수요로 문화 프로그램들이 기획되는 경우가 많음
- 최근 국제문화교류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쌍방향'교류 트렌드에 발맞춰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나 현실적으로 충분한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수교기념 문화행사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민간 부문에서는 문화교류 중심의 공공외교 활동이 자체적으로 또는 중앙부처/지자체와 공조하여 진행함

□ 사전 행사기획 기간 확보의 어려움

-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경우 추진 절차상 사전기획단계와 준비단계의 적절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매우 촉박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임
- 공연의 경우 최소 2~3년, 전시의 경우 5~6년 전부터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고 준비작업에 착수해야 대형 미술관 및 박물관, 공연장 등의 대관이 가능함
- 특히 시각 분야의 경우, 주요 거점 공간이 되는 국·공립 전시 기관 대부분이 5년 정도의 프로그램을 미리 선정하기 때문에 사전 기획기간이 충분해야 함
- 그러나 준비단계에 할애되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여 촉박한 시간 속에서 해외기관 섭외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교류 콘텐츠 준비 및 홍보마케팅 활동 등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임
- 따라서 행사기획단계 및 준비단계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토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전문가 pool 부족

- 수교기념 문화행사에서 현재 재외한국문화원의 역할과 기여도는 문화원장의 재량에 따라 변동되는 등 전문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에 놓여있음
- 문화원 내의 전문가들이 현지기관 또는 현지 전문가들과의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잘 구축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
- 또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역시 기관 내에 수교국별 교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

- 뿐만 아니라 진흥원 내부에서는 수교국의 주요 문화예술 관계자 및 전문가 리스트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사업추진에 실무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주요 협력기관인 문화원과 대사관의 문화행사에 대한 낮은 이해도,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인사에 대한 사전 명단 미확보 등으로 행사 진행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수교기념 문화행사와 관련된 내·외부 전문가 pool 및 현지 전문가와의 파트너십이 부족하여 진흥원의 업무 추진에 장애가 됨

3) 전략상의 문제점

☐ 수교국별 수교행사의 목표와 전략 부재

- 수교기념 문화행사에 대한 수교국별 목표와 전략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인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수교기념 행사인지 구체적인 목표가 모호하며, 해당 국가와의 수교기념 행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설정하지 않는 등 국가별 수교행사의 궁극적 목표와 전략이 부재하여 형식적인 문화교류 행사가 반복됨
 - 전략과 목표의 부재는 결국 수교행사의 가치평가와도 연관되는 문제로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마케팅 관점의 전략 부재

-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주요 타깃층, 주요 콘텐츠, 유료와 무료 프로그램 구성, 홍보 전략 등 수교국별 세부적인 마케팅 전략이 부족함
 - 수교기념 문화행사는 프랑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전통문화와 K-pop 등 특정 장르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주요 타깃층을 세분화하여 유/무료 프로그램을 적절히 안배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러한 전략이 부족함
 - 무료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콘텐츠 퀄리티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다르므로 유/무료 프로그램 진행 여부를 전략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선진국에서는 무료 프로그램은 예술적 품질이 낮다는 인

식이 존재함)

□ 공동기획 및 제작 방식의 한계점

- 공동기획 및 제작 방식 중심의 교류는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
 - 기존의 아시아 지역의 예술교류와 공동작업 프로젝트는 대부분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강국, 특히 일본에 의해 주도된 사례가 다수임
 - 최근 5년간 진행된 사업들의 경우 프랑스와의 수교행사에서 공동 협력방식의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진행되었음
- 동남아시아 등 문화·경제적으로 한국보다 열위에 있는 국가들과는 전통문화, 태권도, K-pop 등 공연들을 개최하는 것으로 수교행사가 진행되고 있음
 - 이 경우 수교국가의 예술가 및 기획자들의 지속적인 교류보다는 해외 한국문화를 홍보하는 수준에 그치는 문화행사가 될 가능성이 큼
- 또한, 정부 주도 혹은 선기획적인 프로젝트의 경우 ‘결과물’이 최종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음
 - 이런 방식의 교류는 행사종료 시기와 함께 창작 그룹이 소멸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따라서 이러한 소멸성 공동프로젝트를 지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의 공동작업의 경우 기획자들이 다른 나라의 공연을 초청하여 자기나라에 선보이는 식의 완성작품 교환이라는 수동적인 방식에 그치거나, 한국의 연출자, 수교국가의 작가 또는 배우 등을 섭외하는 방식의 공동제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보임

제4장 국내외 수교기념 문화행사 사례분석

제1절 국내 사례분석

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 개요

-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 130주년을 맞아 국제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2015년과 2016년 2개년 동안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 시행한 한-불 국가 간 교류사업
 - 2013년 11월, 양국 정상들이 수교 130주년³²⁾을 맞는 2015년 9월부터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개최기로 합의
 - 개·폐막식(한국 및 프랑스), 공식인증사업, 홍보(프레스 투어 등 언론 홍보, TV다큐멘터리 제작 등), 백서 제작 등으로 구성
- 기간 : 2014년 3월 ~ 2017년 3월(실제 행사 기간 : 2015년 9월 ~ 2016년 12월, 1년 4개월)
 -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5년 9월 ~ 2016년 8월
 -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년 3월 ~ 2016년 12월
- 주최·주관
 - 주최 : 한-불 양국 조직위원회(한국 조직위원장 조양호, 프랑스 조직위원장 앙리 루아레트)
 - 주관 : (한국)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무국
(프랑스) 앙스티튀 프랑세(Institut Francais)³³⁾
- 공식인증사업 : 문화/예술 분야 399건³⁴⁾

32) 한국과 프랑스는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을 통해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함.

33) 앙스티튀 프랑세는 프랑스 외교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2011년 프랑스 문화 및 언어의 전파와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문화다양성의 축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215여 개의 앙스티튀 프랑세가 있는데 대부분 유럽권에 치우쳐 있으며 아시아 대륙에는 약 30곳이 있다. 주요 업무는 국제 예술 교류의 촉진, 프랑스어 진흥, 프랑스와 관련된 국제적 페스티벌을 통한 문화적 교류의 촉진, 아티스트들의 거주 지원 등이 있다(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문화예술분야 백서, 2017).

34) 일반 분야 93건을 포함하면 전체 공식인증사업 건수는 492건임.

- 사업 장소 : 한국 및 프랑스 전 지역(파리 외 75개 도시, 서울 외 33개 도시 등 총 110개 지역)

□ 추진 방향

- 단순히 수교기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프랑스 전역에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을 만들기 위한 국제협력형 사업으로 진행함
 - 일회성 행사보다 교류,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
 - 양국의 수도뿐만 아니라 프랑스 및 한국 전역에 걸쳐 진행함
 - 문화예술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친 폭넓은 교류를 지향함(외교, 경제, 과학, 스포츠 등 포함).
 - 이를 위해 예외적이고 도전적이며 양국의 젊은이가 꿈꿀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함

□ 공식 로고

- 로고의 색상은 프랑스 국기와 한국 국기의 색상을 조합
 - 우주만물의 조화와 근원을 상징하는 태극기와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프랑스 국기를 모티브로 함
 - 양국이 수교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숭고한 가치들을 기리는 동시에, 성숙한 동반자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를 나타냄

[그림 4-1]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 로고

프랑스 내 한국의 해('15. 9~'16. 8)	한국 내 프랑스의 해('16. 1~12)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6. 3. 23)

□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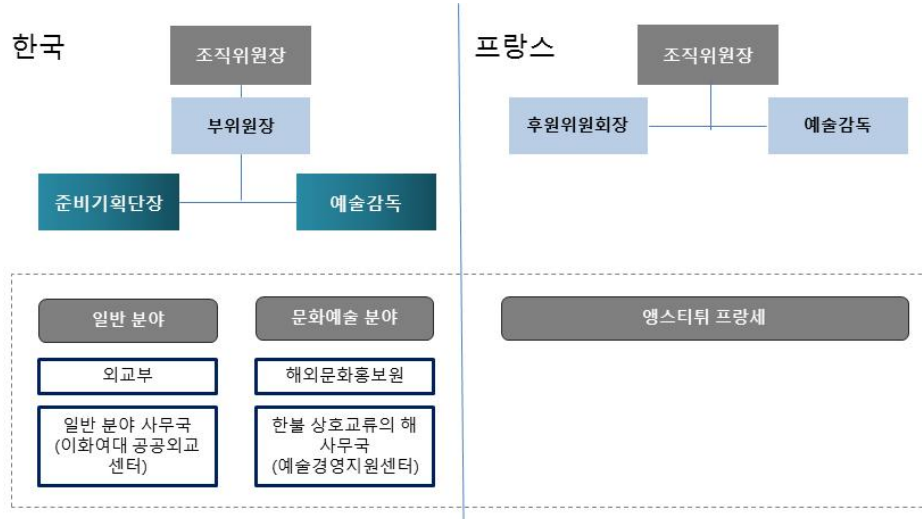
- 2010년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추진 합의를 시작으로 여러 해에 걸쳐 준비 과정을 거침
 - 2010년 11월 12일, 한-불 정상회담에서 한-불 수교 130주년(2016년 6월 4일)을 계기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추진을 합의함
 - 2013년 2월,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앞 친서 전달
 - 2013년 11월 4일,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개최 선언(프랑스 국민 방문 시 한-불 정상회담 공동언론 발표)
 - 2014년 1월, 프랑스 외교부-주프랑스 한국대사관 실무 협의,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조직위원회 구성
 - 2014년 4월 14일~16일, 제1차 한-불 공동회의(파리) 개최. 양국 실무 회담 및 장관 면담, 불측 조직위원장 및 사무총장 일행이 방한하여 프로그램 논의. 이후 2016년 5월까지 총 5차례의 공동회의 개최
 - 2015년 9월 18일, 개막공연 <종묘제례악>과 에펠탑 점등식, 개막 리셉션 등 개막식 개최
 - 2016년 8월 30일,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폐막
 - 2016년 3월 23일,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개막(개막공연 <시간의 나이>)
 - 2016년 12월 13일,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폐막행사 ‘감사의 밤’ 진행(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조직

- 조직위원회 : 준비기획단과 전문위원회로 구성, 분야별 프로그램 주관
- 해외문화홍보원(문화예술 분야) 및 외교부(그 외 분야)
- 한-불 사무국(사업집행 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 내에 설치)
 - 공동회의 및 문화예술 분야 실무회의 참석 및 지원
 - 문화예술 분야 라벨링 사업 공모, 접수 및 결과 통보
 - 정례회의 개최 및 지원
 - 프랑스 측 제안 사업의 한국 측 협력기관 모색 및 연결
 - 한-불 상호교류의 해 전체 홍보 실행(홈페이지, SNS구축 및 운영, 기자간

- 담회 지원, 미디어 홍보 등)
- 앙스티튀 프랑세(서울사무소) 및 프랑스 관계기관과의 연락 지원

[그림 4-2] 한-불상호교류의 해 조직



출처 : 한불상호교류의 해 백서

□ 개막식

○ ‘프랑스 내 한국의 해’ 개막식

- 일시 : 2015년 9월 17일~23일(7박 9일)
- 주요 행사 : 개막 리셉션(신라호텔), 개막공연, 에펠탑 점등 등
- 개막공연 : 한불 협력 창작무용공연 <시간의 나이>(국립중앙극장)
- 에펠탑 점등 : 2015년 9월 18일 개막공연 후 일주일간 에펠탑에 한국 국기와 ‘프랑스 내 한국의 해’를 디자인한 문구를 에펠탑 외부에 점등

○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개막식

- 일시 : 2016년 3월 23일(개막주간 3월21일~27일)
- 주요 행사 : 개막식, 개막공연 등
- 개막공연 : <종묘제례악>(샤이오국립극장, 1,250석 만석 기록)³⁵⁾

35)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종묘제례악 전편이 온전하게 공연된 것으로, 가장 많은 숫자인 115명의 예술가(국립국악원 정악단 83명, 무용단 등)가 참가함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 '15. 9. 18.~19. 양일간 총 2회 공연됨

□ 공식인증사업

○ 공식인증사업 선정절차

- 한-불 양국 조직위원회에서 2014년 12월 말까지 제1차 공모를 통하여 총 251건의 양국 협력사업 제안서를 접수하였고, 양국 조직위원회의 공동심사를 통해 공식인증사업을 최종 선정함
- 심사 절차는 예비심사(한국조직위원회 문화예술 전문위원회), 한-불 공동심사(양국 조직위원회), 예산심사(예산지원 심사위원회, 외부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진행됨
- 한국 측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주관하에 별도의 공식인증사업 공모절차를 진행한 반면, 프랑스 측은 별도의 공모과정 없이 주무기관인 앵스티튀 프랑세의 분야별 담당자가 이러한 사전절차에 준하는 업무를 진행함³⁶⁾

[표 4-1]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 인증절차

일시	인증절차	내용
2014년 4월	제1차 한불 공동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인증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절차 진행. 공식인증사업은 양국 조직위원회의 공동회의를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한국 측 공식인증사업 공모 : 사업계획서 거모, 예산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예비심사 진행 프랑스 측 : 별도의 공모과정 없이 진행
		↓
2015년 2월	제2차 한불 공동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의 공동회의를 거쳐 1차 공식인증사업 선정 및 확인
		↓
2015년 6월	제3차 한불 공동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의 공동회의를 거쳐 2차 공식인증사업 선정 및 확인
		↓
2015년 12월	제4차 한불 공동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의 공동회의를 통해 '한국 내 프랑스의해' 공식인증사업 중점 논의
		↓
2016년 5월	제5차 한불 공동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의 공동회의를 거쳐 3차 공식인증사업 선정 및 확인

출처 :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결과보고서

36)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문화예술분야 백서, 2017

○ 공식인증사업 심사 기준

- 공식인증사업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우수성 및 예술성, 사업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 사업의 국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주요 고려 사항 : 프랑스 기관·단체 등과의 공동 사업, 지방 간의 교류, 보호 육성이 필요한 비주류 장르의 교류, 양국에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젊은 예술가/작품 교류, 양국 순회 혹은 교차 교류를 할 기관 및 단체, 초청 주체의 전문성 및 지명도, 파급효과 등)
- 예산지원사업 선정 기준 : 공식인증사업을 대상을 하되 양국 공동규칙을 근거로 하여 파견국, 초청국간 협력사업의 예산이 균형 있게 편성된 사업

○ 공식인증사업 현황³⁷⁾

- 사업 기간 내 양국에서 진행된 전체 사업 건수는 399건임(취소 건수 제외 시 332건). 이 중 프랑스 내 한국의 해는 227건(취소 건수 제외 시 190건, 한국 내 프랑스의 해는 172건(취소 건수 제외 시 142건)으로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사업 건수가 55건(취소 건수 제외 시 48건) 많음
- 분야별 사업 건수는 공연, 시각(전시), 영화, 기타의 순으로 나타남.
- 예산 지원사업은 159건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함

[표 4-2] 한-불상호교류의 해 문화예술분야 공식인증사업

	문화/예술 분야					
	시각	공연	영화	문학	기타	계
계	143	178	45	11	22	399
한국의 해	74	108	24	9	12	227
프랑스의 해	69	70	21	2	10	172

출처 :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문화예술분야 백서

○ 인증사업 유형

- 양국 간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진행함으로써 대다수 인증사업 프로그램은 공동기획, 공동 주관으로 이루어짐(표 4-3)
- 실제로 시행된 전체 332건의 사업 중 주빈국이나 포커스 형태, 공동

37) 공식인증사업은 총 492건(프랑스 내 한국의 해 247건,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45건)이나 본고에서는 이중 외교국방(6건), 경제산업(15건), 교육학술(41건), 과학(10건), 미식(13건)을 제외하고 논의함

- 제작과 레지던스 및 워크숍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144건에 달함(포커스나 주빈국 형태 87건, 공동제작 44건, 레지던스 및 워크숍 15건)
- 한국 포커스 추진기관은 파리가을축제, 샤이오국립극장 코리아포커스, 아비뇽 페스티벌 등 50건이며, 프랑스 포커스 추진기관은 통영국제음악제, 롯데콘서트홀 개관 페스티벌, 자라섬재즈페스티벌 등 25건임
 - 주빈국으로 초청한 사업은 총 11건으로 아트페어 아트파리, 2016파리 국제도서전, 레벨라시옹 비엔날레, 테크노 퍼레이드, 메이드 인 아시아, 사르셀 국제관화비엔날레, 재즈 수레포미에, 제5회 세계사진비엔날레-포토케, 발로리스 국제비엔날레, 거리음식축제, 2016 서울국제도서전 등임
 - 하나의 사업이 양국에서 동일하게 진행된 사업은 48건이며, 파트너십을 공유한 양측 기관이 상대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교차사업은 3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순회공연을 진행한 사업은 39건에 달함

[표 4-3] 한-불 상호교류의 해 주요 공동제작 사업

사업명	한국 주관기관	프랑스 주관기관
시간의 나이	국립무용단	샤이오국립극장
빛의 제국	국립극단	오를레앙국립연극센터
2K, 김치-까망베르	호모루덴스 컴퍼니	라 불가
라이트 버드	LG아트센터	르 게퇴르-뤽 페통 무용단
댄스 엘라지	LG아트센터	파리시립극장
안티포드	댄스씨어터 창	파리시립극장
콩페티	코리아나매니지먼트	사르셀 시
필립 드쿠폴레 <콘텍트>	LG아트센터	콩파니 데세아-필립 드쿠폴레
로베르토 주코	국립극단	리무쟁 국립연극센터
종이달	경계없는 예술센터	콩파니 인-센소

출처 :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문화예술분야 백서

○ 프랑스 내 한국의 해

- 2015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종묘제례악>과 <에펠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국립장식미술박물관의 <코리아 나우(KOREA NOW)>, 한국공예전 등 예술전시, 한류, 식문화 등을 소개하는 각종 세미나와 행사를 선보임
- 공식인증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연 108건, 전시 74건, 영화 24건, 기타 12건, 문학 9건의 순으로 나타남. 이중 예산지원 사업 수는

106건, 비예산 사업³⁸⁾은 84건임

-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도시 파리, 낭트, 마르세유, 리옹, 릴, 니스 등 프랑스 전역에 걸쳐 국립사이오극장, 파리시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장식미술관 등 주요 국공립기관을 비롯한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축제, 일상 공간 등에서 열림
- 공연예술은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사업 중 가장 많은 분야로서 한국의 고유한 전통예술인 판소리, 굿, 정악, 연희, 전통무용(<회오리>, <최승희 트리뷰트> 등), 재즈,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됨

○ 한국 내 프랑스의 해

- 개막공연 전후 일주일 동안 개막주간 행사가 서울, 부산 등지에서 열림. 이에는 프랑스 가수 마티유 세디드(M)의 공연, ‘서울, 포스트 모더니티’(프랑수아즈 위기에, 서울역사박물관), ‘장 폴 고티에의 패션세계’(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특별한 전시가 포함됨
- 아울러 엘리제궁의 수석 셰프 기욤 고메즈 등의 미식축제 ‘소 프렌치 델리스(So French Delices), 스트리트푸드, ‘한불 리더스 포럼’, ‘프렌치 테크 허브’ 개소식, 한국 학교 내 ‘프랑스의 날’, ‘차세대 혁신 경연대회’등의 학술, 혁신·경제 행사도 개최됨

□ 홍보 및 부대사업

- 양측 조직위원회는 공동홍보기금을 마련하고 각각 20만 유로의 홍보 예산을 배정하고 양측 주무기관에서 집행함(표 4-4)
- 공동홍보기금은 사업의 홍보물(포스터, 통합 프로그램, 광고 전단 등), 공동운영 웹사이트, 미디어 홍보 등에 사용
- 프랑스 TV 종묘제례악 방송 지원
- 시기 : 2015년 9월 18일 개막공연 촬영
- 방송 : 방송시기 협의
- 내용 : 개막공연 종묘제례악 전막 실황공연 녹화 및 방송
- 프랑스 기자단 서울 프레스트립(press trip)
- 시기 : 2015년 8월

38) 비예산 사업은 공식인증 로고만을 부여하고 조직위원회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임

[표 4-4]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양국 주요홍보사업

시기	프랑스측	한국측
2015년 4월	양국 공식 로고 공동 합의	
5월		
6월	언론 홍보대행사 선정 양국 공동 합의 (프랑스측) Heymann Renoult Associees	
7월	공식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운영업체 선정 양국 공동 합의 One Arty Minute / Culture Toursim	
	·온라인 초청장 디자인 및 발송 ·초청자 리스트 취합	
	·모션로고 제작	
8월	·프로그램북 제작 (가을/겨울시즌)	
	·홍보 영상 제작	
	·초청장 제작 및 우편 발송	
	프랑스 기자단 프레스트립 (서울)	
9월	'프랑스 내 한국의 행사' 개막 양국 공식기자간담회(파리)	
	개막식 및 개막공연 홍보 (9월18일~19일 종묘제례악, 샤이오국립극장)	
	공식홈페이지 오픈 (www.annefrancecoree.com)	
10월		
11월	언론 홍보대행사/ 디자인 대행사 / 영상제작업체 선정 (서울)	
12월		·프로그램북 제작
		·홍보영상 제작
2016년	한국 기자단 프레스 트립 (파리)	
		초청자 리스트 취합 온라인 초청장 디자인 및 발송
	·프로그램북 제작 (봄/여름 시즌)	초청장 우편 발송
3월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개막 양국 공식기자간담회(서울)	
	개막식 및 개막공연 홍보 (서울)	

출처 : 예술경영지원센터 내부 보고서(2016)

○ 광고 캠페인

- 프랑스 내 지하철 및 버스 광고캠페인
- 운영방법 : 프랑스 광고업체 선정(홍보에이전시 Heymann Renoult Associees와 협업)
- 시기 : 2016년 1월 ~ 2월
- 광고내용 :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홍보

○ 한국 TV 다큐멘터리 제작

- 시기 : 2015. 9월 중 제작 / 2015. 10월 중 방송
- 내용 : 한-불 상호교류의해 개막식 행사 및 파리가을축제, 주요 전시 등 기획 취재

○ 백서 제작

- 제작수량 : 1,000부
- 제작구성 : 2권으로 분권(프랑스 내 한국의 해, 한국내 프랑스의 해), 총 600페이지로 구성함

□ 주요 성과³⁹⁾

○ 전문가와 대중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등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강화에 기여

- 한불 양국 110개 도시(한국 34개 도시, 프랑스 76개 도시)에서 공식인 증사업으로 승인된 492개의 행사가 개최되어 800만 명 이상의 한국과 프랑스 국민이 양국의 문화 등을 체험함
- 전체 보도 건수 4,480건(한국 내 프랑스의 해 2,309건,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171건)

○ 프랑스에 한국 예술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계기가 됨

-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예술축제 중 하나인 ‘파리가을축제’에 안숙선(<수궁가>), 김금화(<만수대택>), 안은미(<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사심 없는 댄스> <아저씨를 위한 무책임한 댄스>), 진은숙 등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예술가들이 초청되어 특집 프로그램을 구성함
- 국립현대미술관 뉴미디어아트 소장품전 <미래는 지금이다! - The

39)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결과보고서(2017).

Future is Now!>에 백남준, 박현기, 정연두, 임흥순, 진기종 등을 포함한 33명의 작가 41점의 작품이 전시되면서 한국 뉴미디어아트의 흐름을 조망함

- 프랑스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전시 공간인 파리 그랑팔레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한국도자전>, 프랑스 북쪽 국경에 위치한 릴의 트리포스탈 전시장에서 한국 현대미술가들이 대거 모인 <서울, 빨리 빨리!>전이 4개월간 개최됨 또한, 소나무 사진작가 배병우가 프랑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상보르 성의 숲에서 4계절을 촬영한 사진과 한국 자연의 사계절을 담은 사진 전시가 생테티엔 현대미술관에서 열림
-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Korea Now 한국공예전>이 국립장식미술관(총 3,350㎡ 사용)에서 공예, 패션, 디자인 분야로 나뉘어 151명의 작가, 1,400여 점의 작품이 참여한 가운데 4개월간 개최됨
- 임권택의 대표영화 <춘향전> <취화선> <서편제> 등을 비롯한 그의 영화세계 전반을 다루는 70편의 대규모 회고전이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에서 한 달간 열림. 또한 낭트 3대륙 영화제에서도 임권택 감독의 대표작 25편을 특별 상영함

○ 양국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기록한 사업을 다수 배출함

- <종료제례악>, <변강쇠 점 찍고 옹녀>, 안은미컴퍼니의 <댄스 3부작>, 김금화의 <만수대택곳>, 안숙선의 <수궁가> 등 많은 공연들이 전석매진을 기록함
- 10만 명 이상의 관람자 수를 기록한 사업은 25개(프랑스 내 한국의 해 25개, 한국 내 프랑스의 해 19개)에 달함

□ 시사점

1) 장점 및 성과

○ 공식인증 절차에 의한 사업의 공신력과 신뢰도 확보

- 양 국가의 합의에 의한 공식인증을 통해 공신력과 신뢰도의 확보는 물론 사업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됨

○ 장기간에 걸친 사업 추진에 따른 국민의 관심 확보

- 1년 4개월간에 걸친 사업의 추진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사업을 인식하는 계기가 됨

○ 전 국민의 고른 관심 유도

- 한국에서는 서울 외 34개 도시, 프랑스에서는 파리 외 75개 도시 등 110개 지역에서 개최됨으로써 고른 지역 안배에 의한 전국민의 관심을 유도함

○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 상호교류 사업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규모의 프로그램(492건)을 통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

○ 조직 및 재정에 관한 공동규칙 마련

- 사전에 공동 규칙을 제정하고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사업 진행 자체가 교류였다는 자체 평가.

○ 대부분의 행사가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제공함

2) 개선할 점

○ 지속성의 문제

- 개최 당시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어 프로그램의 정례화를 추진하였으나, 이후 성과는 미미함

○ 공식인증의 한계

- 일부 예술인들에 의해 사업이 선정(공식인증)됨으로써 프로그램의 대표성 확보나 대중성 확보는 미지수임

○ 상호호혜의 원칙 준수 필요

- 정확한 예산통계는 알 수 없으나 사업예산 투자가 프랑스에 비해 한국이 많은 것으로 추산됨
- 가령 '프랑스 내 한국의 해'의 예산지원 사업 수는 106건(비예산 사

업 84건)인데 비해 '한국 내 프랑스의 해' 예산지원 사업 수는 절반인 53건(비예산 사업 89건)에 불과했음

- 이는 조직 및 재정에 관한 공동규칙 중 'V. 재정원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의심케 하는 대목임

○ 민간자금의 적극적 유치 필요

- 프랑스의 예산은 프랑스 외교국제개발부, 문화통신부, 지방자치단체, 국립문화예술기관 등 정부예산 외에 27개 프랑스 기업 후원위원회가 일정 부분을 담당함(야나스 베나예, 프랑스 예술감독)
- 특히 프랑스 정부나 지자체는 240여 개에 대한 초청비를 썼으며 원래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사용했으나 한국은 특별예산을 썼으며 100억 이상을 들여 1년 반 정도 운영함(한불상호교류의 해 예술감독)
- 한국도 민간예산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민간의 참여 및 주도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전후 비교를 통한 사업성과의 계량화 필요

- 문화의 나라 프랑스에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인지도가 향상된 것으로 보이나, 사업의 전후를 비교하는 통계가 없어 아쉬움
- 차후에는 사전과 사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비교가 가능한 장치가 필요해 보임

○ 프랑스 언론의 한국에 대한 관심 상대적 저조

- 전체 보도 건수 4,480건 중 한국 언론보도는 3,242건, 프랑스 언론보도는 1,238건으로 나타나 프랑스 언론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알 수 있음

○ 주무 정부부처의 일원화

- 외교부와의 마찰의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업무의 효율성과 성과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문화교류의 경우, 해외문화홍보원을 비롯해 다수의 해외 한국문화원 등 관련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업무추진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교류 실무 창구의 지속성 확보

- 한국 측 조직위원회는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의 임시전담조직(한-불상호교류의 해 사무국)을 구성하여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사업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맡고, 일반 분야는 이화여자대학교 공공외교센터로 나누어 진행함. 사무국 설치 전에는 예술감독과 전문위원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아 사업의 사전준비 과정을 진행하였음
- 또한, 사무국은 사업이 마무리된 직후인 2017년 3월에 운영이 종료되었음. 이에 비해 프랑스는 상시적으로 대외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앵스티튀 프랑세가 주무기관이 됨. 앵스티튀 프랑세는 국제교류 접수창구를 설치하여 수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해마다 해당 사업과 유사한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함
- 또한, 장기간의 현장 활동 경험이나 해당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경험을 가진 분야별 담당자가 있어 경험과 전문성, 네트워킹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
- 한국도 이러한 전담인력을 보유하여 사업을 위해 상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장기간에 걸친 사업 기획

- 특히 시각분야의 경우, 프랑스의 주요 거점 공간이 되는 국공립 전시기관 대부분이 5년 정도의 프로그램을 이미 정한 곳이 많아 진행에 어려움을 겪음
- 따라서 향후 사업을 진행할 경우 해당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나. 2017-2018 한-영 상호교류의 해

□ 개요

○ 행사명 :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 ‘Creative Futures’

- 영국의 혁신적 예술과 창조산업 분야가 한국에 소개되며, 양국의 신진 예술가들의 성장과 새로운 관객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 이를 통해 양국 간 비즈니스 교육 과학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함
- 행사 기간 : 2017년 2월 ~ 2018년 3월(한국), 2017년 6월 ~ 7월

- 행사 장소 : 한국, 영국
- 행사 슬로건 : 'Creative Futures(창의적 미래)'

○ 행사 목적

- 영국의 혁신성과 탁월함을 공유
- 한영 예술가와 예술기관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관객을 개발
- 경계를 뛰어넘는 창조적인 예술작업 추진

○ 행사 개최 배경

- 2016년 3월,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존 위팅데일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이 창조산업 포럼의 성과를 토대로 양국 간 문화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함
- 이에 양국 문체부는 제2회 한영창조산업 포럼 공동선언문에 있는 '한영 2017-2018 시즌(SEASON)' 사업을 양국 간 문화교류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2017-2018년을 '한영 상호교류의 해'로 정함

□ 추진 방향(concept)

- 역동적인 창의경제에 필수적인 다섯 가지 주제로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설정함
 - 5개 주제 : 도시, 디지털기술을 통한 변화와 혁신, 다양성과 통합, 창의기업가 정신, 창의교육
- 일회성 행사에서 탈피해 영국 주요 문화예술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함(해외문화홍보원).

□ 추진 경과

- 2016년 공동성명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프로그램이 만들어짐
 - 2016년 3월 7일,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이 문화창조산업 분야에서 민간의 교류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함. 2017년 2월~2018년 3월 '한·영 상호교류의 해'(가칭)로 정하고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합의함
 - 2016-2017 한·영 공동기금사업이 추진되었고, 양국 간 문화예술 분야

의 집중 교류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잉글랜드예술위원회가 2년간 각각 12억5천만 원씩 총 25억 원을 지원하기로 협의

- 2016년 양국 사전 리서치 작업(준비 기간)
- 2018년 5월 14일 런던 폐막공연
- 2018년 8월, 에든버러 프린지 쇼케이스 등 후속사업으로 마무리됨

□ 조직

- 전체 주관 : 주한 영국문화원(당시 원장: 마틴 프라이어), 주영 한국문화원(한국 측 예술감독 : 최석규)
- 협력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지원 : 잉글랜드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웨일스인터내셔널

□ 한국 내 영국의 해

-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전국 도시에서 진행
 - 기간 : 2017년 7월~2018년 6월
 - 장소 : 서울, 부산, 청주, 전주, 통영 등 전국 도시
 - 주요 내용 : 도시, 디지털기술을 통한 변화와 혁신 등 5개 주제 아래 전시, 공연, 레지던시, 랩(lab), 컨퍼런스, 워크숍, 디지털 콘텐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펼쳐짐
 - 동시대 영국 예술을 공연·영화·시각예술·문학·음악·건축·디자인·패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개막공연 :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⁴⁰⁾ 내한공연
 - 일시 : 2017년 2월 20일
 - 장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주관 : 주한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40) 영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관현악단으로 알려진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는 광범위한 활동 영역과 높은 수준의 연주력을 겸비하고 있음 현재 런던 바비칸에 상주하며 매년 80회 이상의 콘서트를 열고 있음 이 내한공연에서는 다니엘 하딩(Daniel Harding)이 지휘를 맡고 작곡가 마크-앤서니 터니지(Mark-Anthony Turnage)의 트럼펫을 위한 협주곡 '호칸'을 국내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등 관현악이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소리를 관객에게 소개함(한영 상호교류의 해 브로셔, 영국문화원, 2017).

○ 협력

- 영국 측 : 잉글랜드예술위원회, 스코틀랜드예술위원회, 웨일즈 예술위원회, 북아일랜드예술위원회,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영국 국제무역부(DIT), 영국 외무성(FCO), 주한영국상공회의소(BCCK) 등
- 한국 측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 주요 공연 예술 기관 및 단체

○ 주요 프로그램

- 시각예술(13), 공연예술(12)⁴¹⁾, 영화(5), 복합 등 기타(15) 등 총 4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표 4-5] 한국 내 영국의 해 시각예술 프로그램

No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주요 내용
1	아이작 줄리언 : 플레이타임	2017. 2. 22 - 4. 30	플랫폼 - 엘 컨템포러리 아트 센터	한국에서 처음으로 아이작 줄리언(Isaac Julien)의 본격적인 개인전 <아이작 줄리언: 플레이타임>을 개최
2	경기세계도 자비엔날레: 영국 포커스	2017년 4월 22일 - 5월 28일	경기도 이천 세라피아	경기도 이천, 여주, 광주에서 열리는 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 영국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선보임
3	2017 아트선재 프로젝트 #3: 윌리 도허티 - 잔해	2017년 7월 8일 - 8월 6일	아트선재센터	영국문화원이 북아일랜드 동시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윌리 도허티의 작업을 아트선재센터, 아일랜드 현대미술관과 함께 소개. 윌리 도허티는 북아일랜드 데리 출신으로 국제적인 미술상인 터너상 후보로 두 차례 오른 바 있음
4	런던 나우	2017년 7월 10일 - 9월 8일	스페이스 K - 과천	런던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세 명의 신진 작가, 애나 프리먼 벤틀리, 벤자민 브렛 그리고 사라 레더만을 통해 창조적인 플랫폼으로서의 런던을 다시 조망

41) 오프닝공연 포함 시 13개 프로그램임

No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주요 내용
5	스코틀랜드 무빙토이 특별전	2017년 7월 12일 - 10월 29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관	기계장치로 움직이는 인형이나 소형물을 의미하는 오토마타(Automata)로 구성된 독특한 전시 <스코틀랜드 무빙토이 특별전>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최초로 개최
6	영국 국립미술관 테이트 명작展 - NUDE	2017년 8월 11일 - 12월 25일	울림공원 소마미술관	국내 첫 대규모 테이트미술관 소장품 전시로, 영국을 대표하는 미술관 테이트의 대표 소장품 중19세기 후반부터 현대까지 '인간의 몸(누드)'을 주제로 파블로 피카소, 앙리 마티스, 오귀스트 르누아르, 에드가 드가 등 인상주의 거장들을 비롯해 테이트 모던이 자랑하는 초현실주의 및 현대미술 대표작가 만 레이, 막스 에른스트, 프랜시스 베이컨, 루시안 프로이트, 루이스 부르주아, 데이비드 호크니 등을 소개
7	<불협화음의 기술: 다름과 함께하기>	2017년 9월 12일 - 11월 12일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 3층	영국문화원의 8,500여 점의 소장품 중에서 약 26점을 선별한 전시로, 1980년부터 현재까지 계층, 민족, 경제, 정치적 차이로 인해 불거진 영국 사회의 '불협화음'을 심도 있게 탐구하는 16명의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 터너상 수상자인 제레미 델러, 그레이스 페리, 볼프강 틸만스, 질리안 웨어링과 2017년의 후보자 루바이나 히미드를 비롯해 존 아캄프라, 모나 하툼, 레이첼 맥클린, 칼리 스푸너의 작업을 소개
8	청주공예비엔날레: 영국관 <형태+움직임>전 (공예)	2017년 9월 13일 - 10월 22일	옛 청주연초제조창	10회를 맞이하는 청주공예비엔날레의 영국관은 영국 공예청, 스코틀랜드 공예비엔날레, 13 Ways가 함께 협력하여 <형태+움직임>전을 선보임 2017 공예영화제 <리얼 투 릴>상영관까지 총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제작과정 속에서 생성되는 움직임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규율, 규모, 소재 등을 통해 표현하는 동시에 영국의 풍부한 공예세계를 다방면으로 보여줌.
9	줄리안 오피展	2017년 9월 28일 - 2018년 1월 21일	수원시립아이크미술관	팝아트 이후 현대 미술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영국 작가 줄리안 오피(Julian Opie)의 개인전. 수원시립아이크미술관 개관 2주년을 기념하여 기획. 오피는 대형 광고판, 일본 목판화와 만화, 고전 초상화와 조각 등에서 영감을 받고 이를 작가 특유의 축약된 형식과 현대인들에게 소통 가능한 이미지로 재해석하는 작업들을 선보여옴

No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주요 내용
10	<리처드 해밀턴: 연속적 강박>전	2017년 11월 3일 - 2018년 1월 21일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제1전시실	한국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리처드 해밀턴의 개인전. 1922년 런던에서 출생한 리처드 해밀턴은 20세기 중반 이후 새로운 관념과 시각으로 현대 사회를 바라보고 이를 시각적으로 재해석해 낸 영국을 대표하는 예술가 중 한 사람
11	<당신이 시작하라!> 블라스트 씨어리 개인전	2017년 11월 23일 - 2018년 3월 4일	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아트센터는 2016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수상자로 영국의 미디어 그룹 블라스트 씨어리(Blast Theory)를 선정. 1991년 영국에서 결성된 미디어 그룹 블라스트 씨어리는 연극, 라디오, 게임, 웹 등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한 인터랙티브 작업을 통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음
12	2017 한영창의적인 고령화 컨퍼런스(예술, 교육)	2017년 12월 5-6일	서울시 50플러스 서부캠퍼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한국과 영국의 공통과제인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공통의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 한영 정책입안자,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끄는 예술의 역할을 검토하는 동시에 양국의 사례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
13	페스티벌 아름다름: 아름다운 다름(복합)	2018년 3월 9-23일	아르코예술극장,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	예술이 보다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예술과 장애에 관한 혁신적 접근 방식을 집중적으로 다룸. 한국을 대표하는 안무가이자 무용수인 안은미와 장애인 무용수와 비장애인 무용수로 이루어진 세계적인 영국의 무용단 칸두코 댄스 컴퍼니의 협업작업이 세계 초연으로 선보여지며 평창 문화올림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

[표 4-6] 한국 내 영국의 해 공연예술 프로그램

No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주요 내용
1	오페라 <골든 드래곤>	2017년 3월 31일 ~ 4월 2일	통영국제음악당 블랙박스	영국 웨일스를 대표하는 뮤직 시어터 웨일스의 신작 오페라 <골든 드래곤>를 통영에서 아시아 초연. <골든 드래곤>은 아시아 레스토랑을 배경으로 유럽에 불법 이주한 중국인 남매가 삶을 헤쳐가는 내용을 그린 작품
2	의정부음악극축제	2017년 5월 13일 ~ 5월 14일	의정부예술의전당	의정부음악극축제에 영국의 서커스극단 아크로주의 작품 <휠 하우스>가 소개. 아크로주(Acrojou)는 2006년 런던의 국립서커스 센터를 기반으로 예술감독인 제니 바날드(Jeni Barnard),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퍼포머인 바니 화이트(Barney White), 기술감독 리차드 모우브레이(Richard Mowbray)의 협력으로 창단됨. 아크로바틱과 연극적 요소를 결합한 컨템포러리 서커스 작품을 제작해 오고 있음
3	2017 국제현대무용제 개막작 - 발레보이즈 <Life>	2017년 5월 18~19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국제현대무용제가 영국 현대무용단 발레보이즈(BalletBoyz)를 초청, <Life> 공연으로 축제의 막을 올림. 처음으로 방한한 발레보이즈는 남성 신체의 아름다운 근육미와 절제된 힘을 보여주는 <Rabbit>과 <Fiction>의 두 작품을 구성하여 영국 정통 현대무용의 정수를 보여줌
4	웨인 맥그리거 안무 <아토모스>	2017년 5월 26일 ~ 27일	LG아트센터	몸을 통해 사유하며 과학과 첨단 테크놀로지에서도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끝없이 실험적이고 진보적인 예술세계를 개척해온 영국의 대표 안무가 웨인 맥그리거(Wayne McGregor)가 12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음
5	탈리스 스쿨라스	서울 2017년 5월 31일 20.00 / 대구 2017년 6월 1일	서울 LG아트센터 / 대구 수성아트피아	1970년대 초 창단되어 르네상스 시대 음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소개하면서 영국을 대표함은 물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성악단체로 인정받고 있는 11인조(지휘자이자 창단자인 피터 필립스 포함) 아카펠라 보컬 앙상블인 "탈리스 스쿨라스(The Tallis Scholars)"를 초청하여 국내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영국과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숨은 진주 같은 종교 성악곡을 국내 관객이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6	<로미오와 줄리엣>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	2017년 6월 1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영국 대표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모티브로 한 차이콥스키와 프로코피예프의 명작부터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번스타인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까지 비극적 사랑이야기를 관현악으로 만나는 특별한 공연을 개최

7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라운드테이블	2017년 6월 13-14일	제주 해비치 호텔 & 리조트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 예술 축제인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이 10주년을 맞이하여 '영국 공연예술 들여다보기' 교류협력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개최. 영국 공연 예술의 현주소는 물론, 한국과 영국의 국제교류 관계까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임
8	크리에이티브 퓨처스 페스티벌: 영국 현대무용 포커스	2017년 10월 9-14일	서강대학교 메리홀, CKL 스테이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서울세계무용축제와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통해 혁신적이고 우수한 영국의 현대무용작품을 한국에 소개. 서울세계무용축제에서는 '영국특집'이라는 타이틀 아래 영국의 현대무용의 현재를 보여 줄 수 있는 네 개의 우수한 무용 작품을 선보임 또한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는 인도의 전통무용 카타크 훈련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무용과 결합한 독특한 안무를 통해 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에 의문을 제기하는 아크람 칸 컴퍼니의 <언틸 더 라이언즈>를 소개함
9	제4회 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	2017년 9월 16-24일	세종문화회관	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SICOF)가 영국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인 노스데본신포니아를 초청. 노스데본신포니아는 연령, 인종, 종교, 성별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오케스트라의 이념 아래 의사, 교사, 집배원 등 다양한 배경과 연령층의 50-80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임
10	셰익스피어 소리극 <헤이논노니!>	2017년 9월 17일 - 10월 7일	전주, 완주, 고양, 서울(청계광장)	인터내셔널액터스앙상블은 영국 셰익스피어 글로벌극장 '인터내셔널 액터스 펠로우십(International Actors Fellowship)'에 선발된 14개국 23명의 배우들로 구성된 다국적 셰익스피어 극단. 국악그룹 정가악회와 다국적극단 인터내셔널액터스앙상블의 협업으로 전주세계소리축제, 고양호수예술축제, 서울거리예술축제에 공식초청되어 올 본격 투어에 돌입
11	서울거리예술축제	2017년 10월 5-8일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간디니 저글링의 스매시, 줄리 비안 & 레올리엔느의 나를 던져줘, 고블디국 씨어터의 소리 탐사대 등 영국의 3단체를 초청
12	영국 극단 1927 <골렘>	2017년 11월 16-19일	LG아트센터	애니메이션과 라이브 퍼포먼스를 결합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미래 연극의 모습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젊은 영국 단체 1927을 초청하여 한국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함 <골렘(Golem)>은 극단 1927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과 라이브 음악, 퍼포먼스가 정교하게 결합된 수작으로 2014년 초연 후에 성황리에 전세계를 투어중임

[표 4-7] 한국 내 영국의 해 영화 프로그램

No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주요 내용
1	전주국제영화제 스페셜 포커스 - 마이클 윈터바텀 특별전	2017년 4월 27일 - 5월 6일	전주시고사동영화거리 일대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마이클 윈터바텀을 재조명한 '스페셜 포커스: 마이클 윈터바텀, 경계를 가로지르는 영화작가'를 진행. 윈터바텀 감독의 대표작 상영을 통해 윈터바텀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고, 연계 행사로 진행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
2	오페라 인 시네마 2017 시즌	2017년 5월 11일	롯데시네마 8개 상영관	2017년 로열오페라하우스(Royal Opera House)의 최신작들을 극장에서 상영.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Norma), 모차르트의 정통 오페라 <코지 판 투테>, 세계적인 테너 비토리오 그리골로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오펜바흐의 드라마 <호프만 이야기>을 전국 여덟 개 롯데시네마 상영관에서 상영함
3	제14회 EBS국제다큐영화제	2017년 8월 21일 - 27일	아트하우스 모모, 메가박스 킨텍스	올해로14회째를 맞은 EBS국제다큐영화제에서 2017 선댄스 수상작인 애덤 소블 감독의 <우리들의 월드컵>, 로이 코언 감독의 <두뇌혁명 AI> 등 상영
4	제19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2017년 10월 20일 - 24일	한국만화박물관 등	제19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는 로저 메인우드의 <월레스와 그로밋: 양털도둑>, 닉 파크의 <에델과 어니스트>를 비롯하여 총 14편의 영국 작품을 소개함
5	2017 서울프라이드영화제: 영국 포커스	2017년 11월 2일 - 8일	CGV 명동역사네라이브러리	BFI 플레어(BFI Flare)와 협력하여 2017 서울프라이드영화제 영국 포커스 프로그램으로 '플레어 필름: 영국 퀴어영화 단편선'과 '50LGBT'를 선보임 2017년 개봉작인 <어게인스트 더 로(Against The Law)>를 국내 최초로 상영

[표 4-8] 한국 내 영국의 해 기타 프로그램

No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주요 내용
1	제3차 한-영 창조산업포럼	2017년 2월 21일	한국예술종합학교	2013년 11월 6일 양국 문화부간 체결된 문화창조산업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한영 창조산업 분야의 정책 및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콘텐츠 소개 및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한영 창조산업 포럼을 개최. 이번 제3차 포럼에서는 게임, e스포츠, 음악, 창조기술(VR), 창조콘텐츠(스타트업, 출판) 분야의 분과 별 토론을 통해 양국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모색.
2	2017 올리브 페스티벌 <여왕의 피크닉>(푸드)	2017년 4월 22일 / 4월 23일	올림픽공원 88 잔디마당	런던 제이미스 이탈리아(Jamie's Italian)에서 요리사로 근무했던 황소영 셰프가 <여왕의 피크닉>을 진행한다. 한국인들의 일상에 영국 음식이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CJ E&M과 주한영국대사관과 협력
3	전주 영국주간(복합)	2017년 5월 10-14일	전주시 일대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영화, 전시, 공연 등 다양한 영국문화예술을 소개하는 '영국주간'을 선보임 서커스 <휠 하우스(The Wheel House)>, 영화 <레이디 수잔>, 무비토크 '영화로 만나는 제인 오스틴' 등
4	2017 페임랩코리아(과학)	2017년 5월 11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	영국문화원이 과학기술 관련분야(과학, 공학, 의학학, 수학 등)의 젊은 연구자와 교육자들이 대중과 창의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주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기 위해 페임랩(FameLab - Talking Science)을 진행
5	한영 창의교육 전문가 방문교류 및 라운드테이블(예술, 교육)	2017년 5월 22-26일	서울	주한영국문화원이 왕립예술협회 (Royal Society of Arts),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문화예술 교육'을 주제로 교환 방문을 통한 양국 전문가 교류 사업을 시행하고 출간물을 발간함
6	크리에이티브 퓨처스 페스티벌: 새로운 관객, 새로운 접근, 경계의 확장	2017년 7월 6~10일 7월 21-23일 2017년 7월 13-15일	두산아트센터, 국립극단, 문화역서울 284 등	팀 크라우치 <애들러와 김> 리딩공연 및 창작워크숍과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주제를 통해 시간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Project 284: 시간여행자의 시계>전을 개최
7	2017 한강포럼(창의경제)	2017년 7월 21일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한강몽땅 축제의 일환으로 '대도시의 강 이용 문화와 시민 참여'를 주제로 2017 한강포럼을 개최. 런던의 템스강 축제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한강과 한강공원의 이용, 한강몽땅축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함
8	아티언스 대전 17 영국 포커스	2017년 9월 15-24일	대전예술가의 집, 한국과학	영국의 예술기관들과 예술가들이 대전 과학단지의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예술 및 과학적 가능성을 실험하고 양국간 과학·예술 분야 파트너의 장기적 협

	(복합)		기술원, 대전시립 미술관	력 가능성을 모색함
9	내셔널시어터웨일스 - 뛰다, 예술터발 국제 예술가 개발 레지던시 (복합)	2017년 9월 11- 22일	화천, 서울	내셔널시어터웨일스와 공연창작집단 뛰다가 두 극단의 공통 관심사인 장소특정적, 사회참여적, 몰입형 작업을 주제로 국제 예술가 개발 레지던시를 진행
10	부산-세필드: 인터시티 아트 프로젝트 (복합)	2017년 10월	부산 영도 강강이예술마을	공업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인 부산 영도의 '강강이예술마을'과 영국 셰필드의 'City of Ideas'가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도시와 예술의 새로운 관계형성을 실험하는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추진
11	커넥티드 시티(복합)	2017년 10월 27-29일 2017년 10월 31일	서울역·종로·홍대입구 일대	커넥티드 시티는 빠른 도시의 변화를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술을 통해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도시예술 프로젝트임 한국과 영국의 예술가들이 협력하여 도시 속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고, 예술과 테크놀로지가 만나 일상적이던 도시를 새롭게 다르게 보는 기회를 제공
12	리버풀FC와 함께 하는 축구교실 (스포츠)	2017년 11월 4일	덜위치칼리지서울 영국학교	SC제일은행이 리버풀 FC (이하 "리버풀") 와 함께 하는 영어축구스쿨을 개최. SC제일은행의 모기업 스탠다드 차타드그룹이 공식 후원하는 영국 리버풀 FC를 통해 EPL (English Premier League) 축구가 영국문화의 소중한 일부임을 소개
13	메이드인코리아(복합)	2017년 11월 4-12일	문래 예술 공장	20명의 국내 아티스트와 다섯 명의 영국 아티스트가 참여하여 2017년 한 해 동안 브라이튼, 런던, 스토크온 트렌트 및 서울에서 진행. 도예가인 케이 애플린 (Kay Aplin, The Ceramic House)과 사운드 아티스트 조셉 영(Joseph Young)이 기획한 프로젝트로 영국과 한국의 현대 도자기와 사운드 아트를 통해 두 개의 대조되는 학문과 독특한 문화 사이에서의 대화와 교류의 가능성을 모색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한-영 공동연구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한국-영국 사례조사 보고서>를 펴냄
-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과 RSA(Royal Society for the encouragement of Arts, Manufactures and Commerce, 왕실예술협회)가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영국과 한국의 문화예술교육(UK-Korea cultural learning)을 특징짓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조사하

기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교류를 제안함

- 이에 RSA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7년, 양 국가 간의 교환 방문을 통한 전문가 교류 연구를 시행함(이는 RSA와 영국문화원의 ‘동아시아의 문화학습과 창의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이기도 함)
- 2017년 5월에 영국의 정책관계자, 실무자(실행가)들이 한국에 방문하였고, 2017년 11월에는 한국의 정책관계자, 실무자(실행가)들이 영국을 방문함
- 연구보고서는 영국 문화예술교육의 맥락적 분석(한예종 교수), 예술을 예술의 방식으로 가르치기 위하여(한예종 교수), 확장된 문화예술교육의 실천(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주체는 누구일까(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지역사회에 녹아드는 학교(대전시교육정보연구원 연구사,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예술기반 커리큘럼이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명료한 언어 어젠다의 미덕(한예종 교수), 문화예술교육 평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안양대 교수) 등으로 구성

□ 영국 내 한국의 해

○ 개막공연

- 런던 코리안 페스티벌
- 2017년 7월 8일, 런던 올림픽아홀

○ 폐막공연

- 런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합동공연(장한나, 김선욱 등 참여)
- 일시 : 2018년 5월 14일
- 장소 : 런던 사우스뱅크센터

○ 주요 프로그램

- 2017년 10월, 영국의 대표적인 국제현대무용축제 ‘댄스 엄브렐라(Dance Umbrella)’에서 ‘안은미 댄스컴퍼니’ 초청
- 2018년 5월, 영국 현대무용의 산실인 더플레이스(The Place)와 주영한 국문화원이 공동으로 ‘한국현대무용축제’ 개최(유명 안무가와 작품들 소개)
- 테이트모던,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 서펜타인갤러리, 현대미술학회,

서머셋하우스, 스파이크아일랜드 등 영국 유수의 전시기관에서 다양한 한국 작가를 소개함

- 사찰음식의 대가 우관스님 초청 시연 및 명인강좌를 영국의 저명한 요리학교 킹스웨이칼리지와 주영한국문화원 공동으로 개최
- 런던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문화가 잘 소개되지 않았던 지역인 에든버러, 셰필드, 노팅엄 등에서 다양한 한국문화행사가 펼쳐짐

□ 주요 성과

- 2년간 양국에서 83개 프로젝트, 275개의 문화행사 추진(파이낸셜뉴스, 2018.6.4.)
- 그동안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현대무용을 본격적으로 영국 현지에 선보임
 - 영국의 대표적인 무용축제인 ‘댄스 엄브렐라(Dance Umbrella)’에서 한국 무용단체로는 처음으로 ‘안은미 댄스컴퍼니’를 초청함
 - 영국 현대무용의 산실인 더플레이스(The Place)와 주영한국문화원이 공동으로 한국 현대무용축제를 마련해 국립현대무용단을 비롯한 김정신, 안수영, 차진엽, 권령은 등 유명 안무가와 작품들을 소개함
 - 이와 함께 양국 현대무용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세미나도 열려 양국 현대무용의 실태를 점검하고 상호 교류방안 등을 협의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잉글랜드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가 공동기금을 마련하며 협력의 기틀을 다짐
 - 이를 바탕으로 테이트모던(Tate Modern), 빅토리아앤알버트박물관(V&A), 서펜타인갤러리(Serpentine Galleries), 현대미술학회(ICA), 서머셋하우스, 스파이크아일랜드 등 영국 유수의 전시기관에서 다양한 한국 작가를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함

□ 시사점

- 장점 및 성과
 - 양국의 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민간 교류의 형식을 갖추⁴²⁾⁴³⁾

- 한국의 무용예술과 시각예술을 영국 현지에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계기가 됨
- 상대적으로 한국문화가 잘 알려지지 않은 에든버러, 셰필드, 노팅엄 등지역에 우리 문화를 소개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잉글랜드예술위원회가 공동기금을 마련하여 다양한 한국 작가를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함. 이를 통해 한국미술이 영국 미술계의 주목을 받음
- 영국의 창조산업을 필두로 비즈니스 교육 과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함

○ 개선할 점

- 형식상 민간교류의 성격을 띠었으나 지속적으로 세계 각국과 상호교류의 해를 주관해 온 영국문화원과 달리 한국은 예술감독을 한시적으로 고용하여 행사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함
- “한영 상호교류의 해는 영국의 산업, 교육, 과학에 대한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모션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캐런 브래들리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 “일회성 행사에서 탈피해 영국 주요 문화예술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해외문화홍보원 관계자)”고 밝혔으나, 이후 행사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프로그램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음
- 홍보 부족으로 양국 국민의 관심 유도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음
- 백서 등 행사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함
- 행사에 참여한 양국의 관람객 등 관련 통계를 찾아볼 수 없음

42) 영국문화원은 영국 공공외교위원회(2006년 설립)에 소속되어 있으며 외무성의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정부, 비영리 공공기관임 1934년에 영국의 교육 및 문화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조직으로 설립됨 2017년 기준 전 세계에 196개소가 설립되어 있음(한-불 상호교류의 해 문화예술 백서)

43) 영국의 경우 공공외교, 문화외교, 문화교류에 대한 구별이 없다. 영국의 공공외교에서 중요한 행위자 중 하나가 바로 1934년 설립된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이다. 영국문화원은 스스로의 활동을 문화교류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영국 정부는 문화원 활동을 문화외교로 간주하고 있다. 영국문화원의 설립 목표는 다른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영국인들의 삶과 문화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영국인들과 세계 다른 국가의 국민들 간의 교류관계를 수립하는데 두고 있다(British Council, 2015). 영국문화원은 영국인들과 세계 다른 국민들 간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그 신뢰는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Memis 2010, 294). 영국문화원은 독립된 비정부공공기관으로서 의장이 이끄는 이사회의 감독 하에서 최고경영자에 의해 운영되는 자선기업 성향의 공기업이지만 외무성(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은 아니다(주미영 (2016). 국제적 신뢰를 위한 문화외교와 정부지원에 대한 비교 연구. 국제지역연구, 20(3), 55-87).

가. 2018 일본-러시아 상호교류의 해

□ 개요

- 행사명 : 2018 일본-러시아 상호교류의 해(Cross-Cultural Year of Russia and Japan)
 - 행사 기간 : 2018년(1년간)
 - 행사 장소 : 일본, 러시아 동시 개최
 - 행사 슬로건 : (러시아) '당신이 모르는 일본'(일본) '당신이 모르는 러시아'
- 행사 목적
 - 일본과 러시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각각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서의 기회 마련
 - 이미 다른 나라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그들의 지식을 깊게 함

□ 추진 경과

- 2016년 5월, 소치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8개항의 '협력 계획'을 제안한 뒤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짐
 - 2016년 12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시 교환의 해를 양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키로 합의

□ 추진 방향

- 문화 분야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의원 교류, 과학 분야, 학생 및 청소년 교류 등을 포함함
- 양국 국민들 간 상호 이해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선린관계를 발전시킴

□ 주요 프로그램 및 성과

○ 러시아 시즌(일본에서 열린 러시아의 해)⁴⁴⁾

- 개막식 : 2018년 5월, 러시아 볼쇼이 극장의 <지젤> 공연
- 주요 프로그램 : 말리 드라마 극장 - Theatre of Europe, 볼쇼이 주립 학술극장(Bolshoi State Academic Theatre of Russia), 안드레이 콘찰로프스키(Andrei Konchalovsky)의 영화 <파라디제> 특별 상영, 러시아 발레 바가노바 아카데미(Vaganova Academy of Russian Ballet), 국립 에르미타지 박물관(State Hermitage Museum), 라구텐코(I. Lagutenko)의 프로젝트 <Far from Moscow> 등
- 폐막식 프로그램 : 국립 학술원 마린스키 극장(State Academic Mariinsky Theatre) 발레리 게르기예프 데니스 마츠예프(Valery Gergiev Denis Matsuev)
- 33개 도시 100곳에서 29개의 예술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34개의 프로젝트 이벤트가 열림
- 350만 명의 관람객, 6,803건의 언론보도 기록

○ 일본 시즌(러시아에서 열린 일본의 해)

- 개막식 : 2018년 5월, 모스크바 볼쇼이극장에서 일본의 부도칸과 드럼 그룹 'Drum Tao'가 <가가미비라키>⁴⁵⁾를 공연함
- <야부사메(말 등에서 활쏘기)>에 1만 명이 넘는 러시아 관중이 운집
- <쇼치쿠 그랜드 가부키>가 구소련 시대 첫 공연 90주년을 맞아 치카마츠자(the Chikamatsuza)에 의해 러시아에서 공연됨
- 푸시킨국립박물관에서 에도 시대의 그림 명작들을 전시하여 방문객들을 끌어들이
- 일본의 투자가 활발한 지역인 러시아 극동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 개최됨

44) «러시아 시즌»은 세르게이 디아길레프(Sergei Diaghilev) 발레 컴퍼니의 전설적인 투어에 경의를 표하는 국제 문화 프로젝트이다. 매년 국가를 선정하여 최고의 러시아 오페라, 발레 공연, 클래식과 현대음악 콘서트, 특별 전시회, 프리젠테이션, 퍼포먼스, 영화 상영 및 축제, 강의 및 워크숍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2016년 3월 11일에 공표된 러시아 대통령 V.V. 푸틴의 행정명령 Pr-2132와 2017년 2월 18일에 공표된 러시아 연방정부의 행정명령 No. 304-r에 의거하여 러시아 문화부가 시작한 1년 단위의 대형 국제 프로젝트임. 러시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일본, 2018년 이태리에서 <러시아 시즌>을 개최하면서 2년간 관람객 수 9백만 명, 개최도시 120 곳 이상의 성과를 거둠. 2019년 독일, 2020년 프랑스에 이어, 2021년 한국, 2022년 스칸디나비아 등 개최지를 예정하고 있음(출처 : Russian Seasons, 러시아 대사관).

45) 나무망치로 사케(일본 술)의 술통을 깨는 의식임.

□ 시사점

○ 장점 및 성과

- 양국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서의 기회를 마련함
- 가부키, 에도시대 회화, 야부사메 등 일본의 전통문화를 전통의 문화 강국 러시아에 소개하여 일본의 문화적 자부심을 고양함
- 이에 대해 러시아 역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발레와 영화를 상대국에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전략을 구사함

○ 개선할 점

- 러시아 시즌의 경우, 234개의 프로그램에 350만 명의 관람객 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불 상호교류의 해(142개 프로그램, 300만 명 관람객)와 비교되는 것임. 행사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다소 부족했음을 방증하는 것임
- 자국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영화, 회화, 발레 공연, 전통문화 등에 집중하다 보니 현대 예술 장르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함
- 일본시즌의 경우, 모스크바와 극동지역으로 행사개최지를 이원화함으로써 행사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향
- 문화 분야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천명했으나 문화를 제외한 타분야에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발견하기 어려움

나. 자포니즘(Japonism) 2018(일본-프랑스)⁴⁶⁾

□ 개요

○ 행사명 : “자포니즘 2018: 울려 퍼지는 영혼”

- 행사 기간 : 2018년 7월 ~ 2019년 2월(8개월간)
- 행사 장소 :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개최
- 행사 슬로건 : 울려 퍼지는 영혼

46) 자포니즘 2018 사업보고서를 참조함

□ 행사 목적

- 19세기에 유럽의 자포니즘이 처음 시작되었고, 일본 문화에 깊은 관심과 이해를 보여 온 프랑스와의 수교 160주년을 기념함
- 일본문화의 다양하고 풍부한 매력을 프랑스에 소개
 - 일본문화의 원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죠몬(縄文)에서부터 린파(琳), 이토와카사(伊藤)를 비롯하여 최신 미디어아트,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나아가 가부키에서부터 현대연극과 하츠네미쿠⁴⁷⁾까지 아우르는 문화를 소개함
 - 동시에 음식이나 축제 등 일본인의 일상생활에 뿌리내리고 있는 다(茶)문화를 테마로 한 교류행사도 개최

□ 행사 개최 배경

- 2016년 5월 아베 신조 총리와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합의로 일본 우호 160주년을 기념하여 일본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함
- 2015년 10월, 총리대신이 주최한‘일본 종합 프로젝트 간담회’개최 결과에 부응
 - 일본 종합 프로젝트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일본 문화예술의 진흥 및 차세대의 보존 계승을 도모함과 동시에 일본의 문화예술과 일본인의 미의식 가치관을 국내외에 어필하고 그 발전 및 국제 친선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임

□ 추진 방향(concept)

- ‘자포니즘 2018: 영혼의 울림’의 콘셉트는 일본의 ‘미의식’과 ‘일본과 프랑스 감성의 공명’ 등 크게 2가지임
 - 첫째, 과거에서 현대까지 자연을 공경하고 서로 다른 가치의 조화를

47) 크립톤 퓨처 미디어가 2007년 8월 31일 발매한 야마하의 보컬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이자 이미지 캐릭터 (위 키 백 과 , https://ko.wikipedia.org/wiki/%ED%95%98%EC%B8%A0%EB%84%A4_%EB%AF%B8%EC%BF%A0).

존중하는 일본의 ‘미의식’을 소개함. 일본인은 외부에서 이종 문화를 도입하여 스스로의 문화와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왔으며, 다양한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선악을 초월한 '아름다움'이 일본문화의 특징이라고 자부함

- 둘째, 일본과 프랑스 감성의 공명은 문화예술을 통해 일본과 프랑스가 상호의 감성을 공감하고, 이러한 공감의 고리를 세계로 넓힘으로써 21세기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함

□ 추진 경과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공식 행사들이 진행됨

- 2015년 10월, 내각 총리대신이 ‘일본 종합 프로젝트 간담회’ 개최 결정(일본 문화예술의 진흥 및 차세대로의 보존 계승과 함께, 일본인의 미의식과 가치관을 국내외에 홍보함과 동시에 국제 친선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정부 정책에 부응)
- 2016년 5월, 아베 신조 총리와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당시)이 일불 수교 160주년을 기념하여 일본문화를 세계에 알리기로 합의
- 2016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2회에 걸쳐 일불 공동위원회 개최(일불 공동위원회 : 일본과 프랑스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다양한 사안을 검토·조정·의견 교환을 하기 위함. 일본 측은 주프랑스 대사, 프랑스 측은 외무 차관을 수석대표로 함)
- 2016년 11월 이후 2019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포니즘 2018 종합 추진회의’를 개최(아베 총리를 의장으로 하여 ‘일본의 미’ 종합 프로젝트 간담회와 동시 개최하는 형태로 진행. ‘자포니즘 2018’ 기획 검토 상황·진행 상황 및 2019년 이후의 전개 등에 대한 보고·심의를 담당함)
- ‘자포니즘 2018’의 개최 준비 등에 관한 관계부처회의를 3회에 걸쳐 개최(관계 부처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면서 행정부 전체의 조정을 위함)
- 2017년 11월, 도쿄와 파리에서 기자간담회 시행
- 2018년 7월 초,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축하연을 개최. 공식 기획 참가자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 스

- 폰서 기업 등 270명이 참석
- 2018년 9월 7일~15일, 일본 황태자 프랑스 공식 방문

☐ 조직

- 외무성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준비
 - 일본국제교류기금⁴⁸⁾에 설치된 자포니즘 사무국이 자포니즘 2018의 기획과 운영을 담당

☐ 개최식

- 2018년 7월 12일, 파리에서 개최
 - 고노 타로 외무대신과 프랑수아즈 닛센 문화장관(당시)이 참석
 - 문화·예술 작품의 감상 어플리케이션 ‘마이크로 폴리’를 사용하여 자포니즘 2018의 전시·공연 예정 작품 등을 소개함

☐ 프로그램

- 공식 기획, 특별 기획, 참여 기획 등 3개 범주로 구성
- 공식 기획
 - 일본 정부 주도하에 다양한 일본의 예술과 문화를 폭넓게 소개하는 프로그램
 - 시각예술(전시), 공연예술, 영상, 생활문화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100개 이상의 기획(재외공관 사업 포함)을 시행
- 특별 기획
 - 자매도시인 도쿄도와 파리가 중심이 되어 실시한 문화교류사업인 ‘파리 도쿄 문화 병렬 2018’ 중 4개 사업을 특별 기획으로 선정

48) 일본 국제문화교류사업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통해, 세계인들의 일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국제 상호 이해 증진 및 일본의 조화로운 대외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됨. 국제교류기금은 독립행정법인이지만 외무성 산하기관으로서 일본의 대외정책과 연동하여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함. 활동 거점으로 21개국에 22개소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된 업무는 크게 문화예술교류, 해외에서의 일본어 교육, 일본 연구 및 지적 교류 등 세 가지임(한-불 상호교류의 해 문화예술분야 백서).

○ 참여 기획

- 자포니즘 2018의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일본 관련 행사로 구성된 프로그램
- 자포니즘 사무국이 참여 기획 행사로 인증한 행사는 200개 이상이며, 프랑스 국내 60개 이상의 도시에서 개최됨

[표 4-9] ‘자포니즘 2018’ 공식기획, 특별기획 프로그램(전시)

기획 전시회(17)		
	프로그램명	장소
1	teamLab : Au-delà des limites (경계가 없는 세계)	라 빌레트
2	이케다료지 continuum	퐁피두 센터
3	Enfance / 어린이 시대	팔레 드 도쿄
4	루브르미술관 피라미드 내 특별전시 나와 코헤이 조각작품 "Throne"	루브르 박물관 피라미드
5	깊이-일본의 미의식을 찾아서-	로스 차일드 관
6	이노우에 유우 이치 1916-1985 - 책의 해방 -	① 파리 일본 문화 회관 ② 툴루즈 로트렉 미술관
7	와카바쿠-〈동식담화〉를 중심으로	파리 시립 뽀띠 팔레 미술관
8	카토리 신고 NAKAMA des ARTS	카루제루 뒤 루브르 찰스홀
9	안도 타다오 - 도전	퐁피두 센터
10	조몽 - 일본에서의 아름다움의 탄생	파리 일본문화회관
11	메이지	기메 박물관
12	교토의 보물 — 림파 300년의 창조	파리 시립 체루누스키 미술관
13	자포니즘의 150 년	장식 미술관
14	MANGA⇔TOKYO	라 빌레트
15	후지타 쓰구 하루 : 평생의 작품 (1886-1968)	파리 일본문화회관
16	고도(古都) 나라(奈良)의 기도	기메 박물관
18	BEYOND EAST & WEST 일본의 전통미가 선명하게 되살아나다	파리 일본문화회관

[표 4-10] '자포니즘 2018' 공식기획, 특별기획 프로그램(공연)

기획무대공연(36)		
	프로그램명	장소
1	일본 음악 라이브 와다이코×쓰가루 샤미센	재팬 엑스포
2	와다이코 DRUM TAO 'DRUM HEART'	라 세인 뮤지컬
3	[2.5차원 뮤지컬]뮤지컬 『도검 난무』 ~아진하지 산 이문 2018파리~	팔레 드 콩 그레 드 파리 대극장
4	아악궁내청식부직악부	① 필 드 파리 ② 콘 바스와 루 드 스트라스부르
5	미야모토아몬 연출×3D영상 'YUGEN 유현'	베르사유 궁전 오페라 극장
6	마스타케 대 가부키(松竹大歌舞伎)	국립 샤이요 극장
7	일본 댄스 공동 제작 트리플 빌딩	국립 샤이요 극장, 리옹 댄스 비엔날레 외
8	노무라 만사쿠·만사이·유우키×스기모토 히로시 '디바인 댄스 3번쨌'	파리 시립 극장 에스 파스 가르덴
9	현대연극 시리즈 - 타니노쿠로우 연출 '다크 마스터 '	국립 연극 센터 쥬뉴비리에 극장
10	현대연극 시리즈 - 타니노쿠로우 연출 "지고쿠다니온천 무명노슈쿠"	국립 연극 센터 쥬뉴비리에 극장 외
11	현대 연극 시리즈 - 아메야호스이사쿠 作 "블루 시트"	파리 시립 극장 에스 파스 가르덴
12	현대 연극 시리즈 - 마에 카와 知大 作 "산책하는 침략자"	파리 시립 극장 에스 파스 가르덴
13	자포니즘 2018테크노·이벤트 TOKYO HIT vol.3 클럽 이벤트 feat. 이시노 탁구	르 토라벤도
14	자포니즘 2018 테크노 이벤트 테크노 콘서트	퐁피두 센터
15	노다 히데키 연출 '위작 벚꽃 숲의 만개 아래'	국립 샤이요 극장
16	패브릭 샤이요/시마지 야스타케 댄스 창작을 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국립 샤이요 극장
17	현대 무용 - 댄스 카와구치 다카오 '오노 가즈오에 관하여'	파리 시립 극장 에스 파스 가르덴
18	인생 츠지 콘서트	파리 일본 문화 회관
19	현대 연극 시리즈 - 마츠이 슈 연출 "자랑의 아들"	국립 연극 센터 쥬뉴비리에 극장
20	분라쿠	시테 드 라 뮤직
21	현악사 x 모리야마 가이지	필 드 파리
22	북림영철-풍운회	필 드 파리
23	일본 무용	시테 드 라 뮤직
24	현대 연극 시리즈 - 오카다 도시노리 연출 『삼월 5일』 휴양	퐁피두 센터
25	현대 연극 시리즈 - 오카다 도시노리 연출 '플러터너: 병의 의 포트레이트'	퐁피두 센터
26	현대 연극 시리즈 - 키노시타 유이치 감수·보철 스기하라 구니오 연출·미술 키노시타 가부키 "권진장"	퐁피두 센터

27	[2.5 차원 뮤지컬] "Pretty Guardian Sailor Moon" 더 수퍼 라이브	팔레 드 콩 그레 드 파리 대극장
28	미야기 사토시 연출 "마하바라타 ~ 나라 왕의 모험"	라 빌레트
29	현대 연극 시리즈 - 후지타 황동 연출 "책을 버리고 마을로 떠나요"	파리 일본 문화 회관
30	현대 연극 시리즈 - 이와이 히데토 구성 · 연출 "우리의 온갖 쥬뉴비리에 편"	국립 연극 센터 쥬뉴비리에 극장
31	하츠네 미쿠 EXPO 2018 유럽	라 세인 뮤지컬
32	재즈 오조 네 진정한 featuring No Name Horses	파리 일본 문화 회관
33	현대 무용 - 이토 郁女 x 모리야마 미라이 "Is it worth to save us?"	메종 드 자르 드 크레테이
34	노 가쿠	시테 드 라 뮤직
35	니나가와 유키오 연출 「해변의 카프카」	국립 코린 극장
36	2018 재팬 x 프랑스 프로젝트 (일본의 장애인에 의한 무대 예술의 발신 / 瑞宝 북 in 프랑스)	① 프랑스 국립 현대 예술 센터 류 · 유닉 ② 파리 일본 문화 회관

[표 4-11] '자포니즘 2018' 공식기획, 특별기획 프로그램(영상)

기획영상(7)		
	프로그램명	장소
1	河瀬直美 예쁜 감독 신작 'Vision' 특별 상영	시네마 테크 프랑세즈
2	텔레비전 일본 특집	① ARTE (방송국) ② 파리 일본 문화 회관
3	일본 영화의 100 년	① 시네마 테크 프랑세즈 ② 파리 일본 문화 회관 ③ 시네마 테크 프랑세즈 ④ 시네마 테크 프랑세즈, 파리 일본 문화 회관 ① ~ ⑤ 시네마 테크 드 툴루즈, 인스티튜트 · 뤼미에르 시네마 테이크 드 니스, 시네마 마제스티 크 (브줄 국제 아시아 영화제)
4	'가부키 배우 카타오카 니자에몬' 특별 상영회	파리 일본 문화 회관
5	가토 나옴 감독 특별전·특집 상영	퐁피두 센터
6	KINOTAYO 현대일본영화제	① 파리 일본 문화 회관, 클럽 드 레토와루 ② 루이스 와이즈 고등학교 시네마 르 콘티, 유럽 코프 시네마, 피사로 고등학교, 오웬루 성, 시네마 루미에르, 시네마 방돔, 시네마 메리 에스, 시네마 산텍쥐페리 르 보반 2, 시네마 아스토레, 시네마 시네토와루 호크 빌딩, 시네마 올랭피아, 시네마 시네 플래닛 시네마 마르 리마쥬 시네마 유토피아
7	'FOUJITA' 특별 상영회	파리 일본 문화 회관, 영화관 라루루칸

□ 시사점

○ 장점 및 성과

- 프랑스에서 지금까지 유례없는 규모로 일본 문화를 전파함
- 개최까지 2년이라는 매우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350만 명 이상의 방문자를 유치함
- 일본문화의 미의식과 다양성을 처음 접하는 프랑스인들을 일본 팬으로 만들고, 일본과 프랑스의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함
- 자포니즘 2018의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일본 관련 행사로 구성된 프로그램인 ‘참여기획’프로그램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였음. 이는 민간주도의 국제교류 트렌드에 부합하는 것임
- 자포니즘으로 상징되는 일본문화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는 국가를 선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는 기회가 됨
- 다른 수교기념행사나 상호교류행사와 달리 문화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주제의식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킴

○ 개선할 점

- 정치적 결정에 따라 짧은 기간(2년) 동안 준비함으로써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관람객 수를 보면 3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한-불 상호교류의 해 ‘프랑스 내 한국의 해’ 관람객 744만 명과 비교되는 것임
- 일본문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하였으나, 이에 대한 프랑스인의 반응과 행사 전후 의식의 변화 등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음
- 대부분 국제문화교류의 최신 트렌드인 장기적 교류가 아닌 단기성 행사 개최에 치중함
- 주로 예술가들이 행사의 주인공이 됨으로써 예술에 관심이 없는 프랑스인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여주지 못함
- 대부분의 행사가 공연장, 전시관, 영화관 등 실내에서 열려 프랑스 대중들의 관심을 끄는 데 한계가 있음
- 특히 관객과 배우(예술가) 간 상호작용(interaction)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어려워 프로그램 구성에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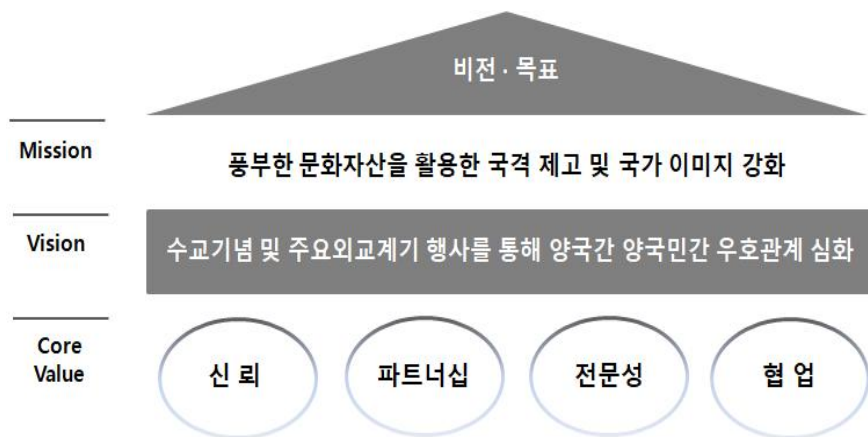
제5장 수교기념 문화행사 발전방안 및 추진과제

제1절 수교기념 문화행사 기본계획

가. 수교기념 문화행사 비전·목표

- 수교기념 문화행사는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격 제고 및 국가 이미지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함

[그림 5-1]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비전 및 목표



나. 수교기념 문화행사 기본방향

1. 권역별 전략 수립

- 수교기념 문화행사에 대한 준비시간, 인력, 예산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교국을 세 권역으로 분류한 뒤, 각각에 맞는 전략을 수립함
- 국가간의 교류는 국가별로 상호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대등한 수준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는 국가와 일방향적인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는 국가 등 수교국별 편차가 존재함
 - 따라서 교류 활성화 정도를 기준으로 수교국을 세 권역으로 분류함

- 제1그룹은 교류 심화 단계, 제2그룹은 교류 활성화 단계, 제 3그룹은 교류 초기 단계에 속함
- 세부적으로는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 교류의 정도, 전반적 네트워크 형성 정도, 선진국, 중진국, 개발도상국 분류 지표⁴⁹⁾ 등을 종합하여 복합적 기준을 통해 구분함

[표 5-1] 권역별 분류기준

	1그룹	2그룹	3그룹
공공 교류(문화·예술 분야)	심화	<.....>	초기
민간 교류(문화·예술 분야)	심화	<.....>	초기
한류 관심도	높음	<.....>	저조
선진화 정도	높음	<.....>	저조

[표 5-2] 선진국 분류 지표

지표 이름	내용	평가기관
고소득 OECD 회원국 (HIE OECD)	OECD 회원국, 소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월드 팩트북 선정(CIA)	선진 경제국	월드 팩트북(CIA)
삶의 질(QoL)	물질적/정신적 측면의 행복, 복지	이코노미스트 계열사 (EIU)
개발기여지수(CDI)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정도	글로벌개발센터(CGD)
공적개발원조(DAC) 가입 여부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IMF	소득, 발달 된 산업	국제통화기금(IMF)
인간개발지수(HDI)	사회적 불평등(교육, 수명, 소득)	유엔개발계획(UNDP)

49) 국제기구가 분류한 선진국들은 소득, 복지, 정책, 인프라 등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서 권역 분류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음, 2016년 기준 중앙, 지자체, 공공·민간기관 등 총 721개 대상으로 국제교류활동 조사 결과, 한국의 주요 문화·예술 교류 국가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선진국에 편중되어 있음

[표 5-3] 권역별 수교기념 문화사업의 원칙

	1그룹	2그룹	3그룹
교류 목표	민간 교류 자생력 강화	<.....>	민간 교류 기반 마련
교류 예산	유지	<.....>	확대
사업 형태	간접사업	<.....>	직접사업
티켓판매 방식	유료화	<.....>	무료화

- 제1그룹의 경우, 타그룹에 비해서는 민간 교류가 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교류 단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만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직접 지원 방식을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함. 예를 들어, 정부 기관은 공연장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민간단체에서 직접 우수작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 이는 프로그램 및 아티스트 선정 등의 기능을 민간시장에 이양함으로써 교류활동의 자생력을 기를 수 있음
 - 공동기금을 마련하여 예산을 집행하며, 자금이 지나치게 한쪽 국가에만 집중되어 쓰이지 않도록 균형을 지키기 위해 세부 사업단위, 프로그램별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함
 -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항공료, 숙박비 등 해외 체류 시 필요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지원함. 또한, 공연 및 전시 티켓을 유료로 판매하여 시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제 2그룹의 경우에는 제 1그룹과 제 3그룹의 원칙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효율을 높이고, 국가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함
- 제 3그룹의 경우 공공·민간 단위의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쌍방향(발신형+수신형) 교류를 중심으로 서로 간 문화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향후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교류 가능성을 확대함
 - 수교기념 문화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양국 간 국제문화교류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 채널을 구축함
 - 상대적으로 문화교류 기금을 마련하기 힘든 국가의 경우, 수교 계기 예산을 유연하게 사용함으로써 상호호혜의 관계를 형성함
 - 수교기념 문화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 연구·조사 예산을 편성

- 하여 상대국의 문화적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무료로 선보임으로써 최대한 많은 관람객에게 한국문화의 위상을 선보임
- 일례로, 2019년 '한국-헝가리 수교 30주년' 행사로, 양국에서 무료로 동일한 공연을 선보였는데 한국 관람객은 무료 공연은 퀄리티가 낮다는 선입견에 많은 관람객이 유치되지 않은 반면, 이런 기회가 많지 않는 헝가리는 관객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 티켓의 유료화 여부 역시 국가별로 선별적으로 채택해야 함

2. 브랜드 구축

- '수교기념 문화교류 브랜드'를 만들어 수교기념 문화행사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 또한, 조기에 전략 국가 혹은 향후 5년간의 교류계획 정보 및 공모 정보를 민간단체까지 공유될 수 있도록 함
- 현재 수교기념 문화행사는 1~2년 전에 수교 계기 국가들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부처 간의 조율 뒤 문화교류기금 지원이 마련되는 시스템으로, 공모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시간이 현저히 부족함
 - 예를 들면, '수교기념의 해' 1년 전에 문화교류기금이 마련된다 해도 이미 인기 있는 공연장은 섭외가 완료되어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됨
 - 이처럼 급하게 수교행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사전시장조사 및 프로그램 공모를 진행에 대비하지 못해 사업의 완성도, 효율성, 민간 참여도, 장기적 측면을 놓치게 됨
 - 따라서, '수교기념 문화교류'의 공식 브랜드를 만들어 중장기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일례로,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슬'(British Council)의 경우, '수교'를 특히 강조하여 문화교류를 하기보다는 해마다 특정국을 정해 집중 교류를 하는 '시즌제'를 운영하고 있음
- 정기적으로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인 '시즌제'를 시행하면서, 특정 해에 '수교기념 문화사업 브랜드'를 더해가는 식의 공동 브랜드(co-brand) 형태의 사업 운영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
 - 이 경우 상시로 '시즌제'를 운영하면서, 특정 국가와의 수교기념 해

에는 이를 고려하여 집중 교류 국가를 선정할 수 있음

- 상시적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인 '시즌제'에 특정 해에는 '수교기념 문화교류 브랜드'를 더함으로써, 영향력 있는 국제문화교류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게 됨
 - 여러 지자체·민간기관에서 파편적으로 행해지는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들에 '수교기념 문화교류 브랜드'의 협력사업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음
 - 사전시장조사 및 민간 프로그램 공모에 관해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는 수교 기념행사 관련 공모가 외교부 혹은 문화부 등 여러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수교기념 문화사업을 하나의 브랜드로 가져가게 되면, 민간 단위의 문화·예술 기관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음

3. 추진체계 일원화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을 통해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여, 해외문화홍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및 재외한국문화원 등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수교기념문화행사 사업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수교기념 문화사업의 파트너가 되는 주한 해외문화원, 지자체, 민간단체들은 비슷한 이름으로 국제문화교류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들이 많아, 적합한 협력 파트너를 찾는데 혼선이 온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함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수교기념 문화행사 진행에 대한 대표 창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파트너가 되는 상대국의 문화원 혹은 대사관이 협력 파트너를 찾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역할 중첩, 예산 중복 및 유기적인 협력 부족으로, 소비되는 예산에 비해 인지도 및 민간 참여율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남

- 국외 사례로, 영국은 문화외교에 대해 정책적으로 외무부가 관장하고 있지만, 실질적 문화교류의 영역은 문화부의 교류협력 전담기구들을 통해서 이루어짐

4. 민간 참여의 확대

- 수교기념 문화행사에서 ‘민간 참여의 확대’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음. 첫째는 정부 관계자, 문화·예술 종사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일반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이며, 둘째는 민간 단위의 문화예술 단체들의 공모를 확대하는 것임
- 첫째, 관객들이 참여·경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수교기념의 해’ 동안 대국민적으로 한국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
 - 수교기념문화 행사는 대표적인 ‘외교 계기성 문화교류’ 행사로, 문화·예술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수교기념 행사의 목적은 양 국민 간 우호 관계 증진으로 1차적 대상을 대국민으로 설정하여, 문화예술 관계자보다 더 넓은 범위의 국민들이 서로의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분야의 행사 참여자들이 모이면 프로그램의 다채로움과 영향력이 높아질 것이며, 수교기념 문화행사 종료 이후에도 민간 단위의 문화·예술 교류의 자생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예술 범위의 확장으로 일반인들에게 폐쇄된 예술의 형태가 아닌 시민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필요
 - 워크숍 프로그램, 체험형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내 예술인들과 해외 관객과의 관계 형성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국내 아티스트들이 해외 시장을 개발해 나가는 중요한 과정에 속함
 -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사회적 층위의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문화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교류 및 미래 공동 창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
- 둘째, 적극적인 공모를 통해 민간단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수교기념 문화행사를 계기로 민간 문화예술단체가 주도적으로 해당 국가와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수교기념 행사를 발판 삼아 국내 민간 문화예술단체들과 대상국의 민간 문화예술단체들과의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유도
- 많은 기관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수교문화행사 종료 이후에도 다시 초청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

○ 문체부의 유관·협력 기관을 통해 수교기념 문화행사에 참여할 예술 단체 공모를 상시로 진행하여, 장르별 민간 문화·예술 단체의 pool을 확보함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경우, 재외한국문화원 순회 프로그램으로 한국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전시·공연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선정한 뒤, 문화원에서 다시 프로그램을 선별할 수 있게 하는 공모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음
- 이 경우 문체부 유관·협력 기관에서 장르별 선별 절차를 1차로 수행하고, 재외문화원이 2차로 현지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이중 심사 구조를 갖게 됨

5. 지속적/장기적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장기 프로그램 활성화

○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경우 단기 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순회 공연·전시 등 지속적이고 자생력 있는 프로그램을 갖춰야 함

- 특히 지자체와 민간의 교류는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단발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지자체와 민간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

○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는 지속적인 소통과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서 예술적 성과를 볼 수 있음

- 예술단체/예술인 간에 공동으로 작품을 제작하거나 협업하기 위해서는 공고한 관계 형성과 상호 간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교류가 필수적임

가. 세부추진계획

1. 시즌제의 도입

☐ 필요성

-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의 수교기념 사업에 대한 역할 분담이 사업시행 2년 전에 결정되는 등 충분한 사업 준비 기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교기념 행사를 기획, 추진하고 있음
 - 짧은 준비기간으로 인해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쌍방향 교류가 아닌 일방적인 교류가 이루어짐
- 영국, 프랑스 등의 국제문화교류가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수교기념 문화행사’를 따로 진행하기보다는, 매년 ‘시즌제’ 형태로 상시적인 교류를 이어가면서 대상국을 선정할 시 수교기념 국을 고려하고 형태를 채택하고 있음
- 전문성을 가진 상근 인력이 부재하여 큐레이션과 같은 부분을 예술감독이나 조직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에만 의존하고 있음
 - 현재 해당 국가에 대해서 문화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예술감독을 선정하고 수교행사의 주제를 선정한 뒤, 그 주제에 해당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예술감독의 역량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자칫 개인적인 취향에 매몰될 가능성도 있음

☐ 사업내용

① 상시적 국제문화교류행사로의 시즌제 도입

- 시즌제의 도입으로 교류국별 맞춤 문화행사를 기획, 추진할 수 있는 타임프레임 확보

-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경우 외부 공간을 섭외하는 등 사전 조율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1년 단위 예산 책정 및 행사 기획 제도는 장기적인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함
 - 시즌제 도입으로 타임프레임을 확보하여 행사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교류국이 원하는 행사를 기획할 수 있음
-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시즌제 전담팀을 운영하여 프로그램에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된 네트워크를 구축
- 현재 문화교류행사의 기획 부분은 전적으로 예술감독 개인에게 달려 있으며 예술감독은 대상 국가에 따라 바뀜
 -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면 전문성 있는 행사로 구성된 시즌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프로젝트 또한 가능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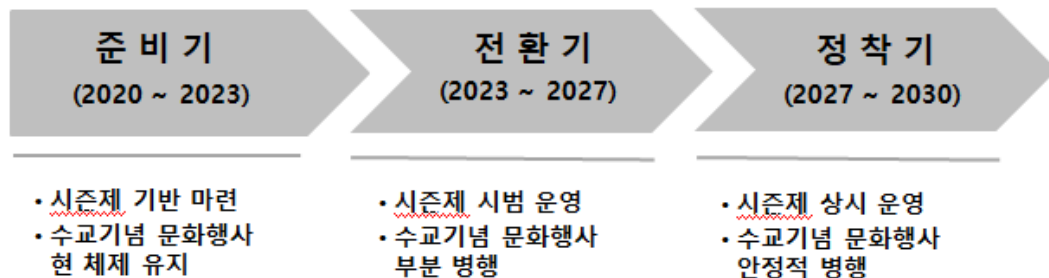
<사례 : 나라별 시즌제 운영>

- 영국의 시즌제: 상대국에서 이루어지는 국제문화교류 행사로 영국의 문화를 상대국에 소개하고, 영국의 현대적·혁신적 이미지 창출을 위해 진행. 상대국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특정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게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하며 최소 3년 전 시즌제 시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행사를 준비
- 프랑스의 시즌제: 국가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 중 하나로 시즌제를 운영함. 수교기념 시기에 맞추어 시즌제 운영 국가를 결정하기도 하며, 최소 3년 전 시즌제 시행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행사를 준비. 또한, 협력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특정 분야,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교류를 하며, 프랑스 문화원에는 시즌제만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존재함
- 러시아의 시즌제: 러시아의 시즌제는 수교기념 행사라기보다는 국제문화교류행사에 가까움. 정부 차원의 대규모 행사로 일방적인 자국 문화홍보 행사이며, 대상국을 1년~3년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행사를 기획함

② ‘시즌제’와 ‘수교기념 문화행사’ 병행

- 상시적 국제문화교류 행사인 시즌제에 수교기념 문화행사를 병행하면 일관성 있는 프로세스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그림 5-2] 시즌제의 수교기념 문화행사 단계적 병행 전략



- ‘시즌제’가 ‘수교기념 문화행사’를 안정적으로 병행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단계별 추진전략이 요구됨
 - ‘준비기(2020~2023)’에는 ‘시즌제’를 위한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수교기념 문화행사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진행함
 - ‘전환기(2023~2027)’에는 ‘시즌제’를 시범 운영을 진행하며, 수교기념 문화행사를 부분 병행함
 - ‘정착기(2027-2030)’에는 시즌제를 상시 운영하면서, 수교기념 문화행사를 안정적으로 병행함

□ 기대효과

- 상시 프로그램 안에서 ‘수교기념 문화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됨
 - 최소 3년 전부터 정기 시즌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사전 시장조사’, ‘협업 계획’, ‘사후 평가’ 등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효과적인 중장기 전략을 세울 수 있음
 - 교류국의 수요를 파악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문화행사 기획 가능

2. 통합적 추진체계의 정립

☐ 필요성

- 국제문화교류를 독립된 영역으로 간주하는 인식의 전환 필요
 - 최근 문화외교는 공공외교의 하위개념에서 벗어나 하나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발전하는 세계적 추세이나 한국의 경우 여전히 문화외교를 외교의 범주 내에서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문화외교의 경우는 특히 전통적 외교정책과 달리 장기적인 계획 및 추진이 필요한 영역으로서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추진체계가 필요함
- 외교부와 문체부의 사업 양분에 따른 이중집행 등 혼선 발생
 - 외교적 사건·행사와 관련된 문화교류사업의 경우 외교부를 통해 직접 지원되는 한편으로, 문체부와 재외한국문화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국제문화교류 사업이 양분되어 수행되면서 사업이 중복되거나 이중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
 - 외교부와 문체부 간에 수교문화행사 대상 국가에 대한 업무분장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함

☐ 사업내용

① 문화교류와 일반교류의 컨트롤타워 분리(수교기념 행사의 경우)

- 외교부와 문체부의 역할 분리를 통해, 국가 간 계기성 문화 행사에 대한 명확한 업무 분장을 진행
 - 일반교류(외교, 경제, 과학, 교육 등 분야)의 경우 현행대로 외교부가 총괄, 문화교류(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등 분야)의 경우 문체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추진
 - 외교부는 수교기념 행사를 주관한 이후, 문체부에서 문화예술홍보사업을 시행한 베네수엘라의 사례와 같이 시차를 두고 각 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각 단계별 명확한 권한 부여

- 사전기획, 준비, 실행, 사후 등 제 단계별 해당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
- 특히 사전기획단계에서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의 참여 명시

② 국제문화교류의 단일 브랜드에 수교기념 문화사업 흡수

○ ‘시즌제’와 같이 정기적인 국제문화교류를 수행하는 단일 브랜드를 정착시킨 뒤, 수교기념 문화행사를 흡수시킬 수 있도록 함

- 외교 계기성 문화교류와 일반적인 국제문화교류가 하나의 편제 안에서 주도될 경우, 인력, 절차 면에서 일관성과 전문성을 갖게 되어 효율을 높일 수 있음
- 국제문화교류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유럽의 경우, 프랑스와 독일, 영국은 각각 프랑스 인스티튜트, 괴테 인스티튜트, 브리티시 카운슬 같은 단일 브랜드를 정착시켜 이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문화교류가 주도되며, 외교 계기성 문화행사 역시 본 기관을 통해 이루어짐

③ ‘수교문화 행사’의 활동상황 공유 및 협업 조정 기능 강화

○ 수교문화행사 진행 시, 컨트롤타워 기관의 활동상황 공유 및 협업 조정 기능을 강화

- 주한해외문화원 등 해외 파트너들이 한국의 문화·예술 기관과의 협업을 진행하는데 편의성을 제공
- 여러 문화예술교류 기관이 수교기념 문화행사 업무를 중첩·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해외 파트너들의 협업 어려움 완화
- 국내 문화예술교류 기관끼리의 협업·조율 능력 강화

□ 기대효과

○ 문체부 내 해외 주재 담당 기관의 산재에 따른 시너지 효과 기대

- 문체부는 재외한국문화원, 세종학당, 콘텐츠진흥원 비즈니스센터 등 세계 곳곳에 국제문화교류를 위해 최적화된 국외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수교문화 행사에 대한 예산·기간의 지원체계가 정립된다면

각 기관의 기존 문화사업과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시너지 효과 또한 기대해볼 수 있음

- 수교 문화행사의 통합적 관리로, 정확한 성과측정이 가능해짐
 - 수교행사 진행 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문화부 국제문화과에서, 재외한국문화원은 해외문화홍보원을 통해 각각 예산 교부를 받고 있어 서로가 다른 기관에서는 어떤 수교 문화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며, 서로 협업하기도 어려운 구조임
 - 하지만, 제시한 바와 같이 수교기념 문화행사 추진에 통합 체계를 정립한다면, 예산 출처의 분리로 인한 정보의 통합 및 사업수행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3. 성과측정 및 평가 기준의 도입

□ 필요성

- 수교기념 문화행사에 대한 성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기준 또한 부재
 - 현재는 대부분 해당 기관의 자체 평가에 그치고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음
 - 더욱이 개별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현재의 방식에서는 전체적 수준에서의 성과평가가 어려움
- 구체적인 사업목표 설정 부재
 -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경우 목적이 상업적 이익보다는 국가 간의 이해와 신뢰의 증진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아직까지는 세부 사업단위의 참가자 또는 관람객 대상의 만족도 조사 등 단순한 인식조사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수교기념 문화행사 사업은 국가별로 교류의 단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행사별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달라 일반 사업의 성과평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 국가 간의 교류는 국가별로 상호 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대등한 수준 혹은 일방향적인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는 국가 등 수교국별 편차가 존재함
- 참여관람객 수, 만족도 등 계량화된 수치를 중심으로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므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교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실제적 효과와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

□ 사업내용

① 권역별·수교국별 목표 및 성과평가 기준 설정

- 수교국별 문화교류의 단계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문화교류 단계에 따라 수교행사의 목표를 수립하고 각 교류 프로그램의 결과가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
- 문화교류의 단계에 따른 기본적인 교류의 목적과 중점적으로 추진할 문화행사 프로그램의 성격을 구분한 후 국가별로 세부적인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추진목표와 지표를 설정
- 수교국별 이전 수교기념 행사를 기준으로 수교기념 문화행사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성과평가 기준을 설정
 -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들의 경우 이전 수교행사 대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예를 들어 한-불 120주년 수교행사의 내용을 분석하고 발전된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불 130주년 수교행사의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평가지표 및 가중치 등을 설정할 수 있음

[그림 5-3] 수교국별 목표 및 평가 기준

	교류 초기 단계	교류 활성화 단계	교류 심화 단계
국가(예시)	쿠웨이트, UAE, 폴란드 등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등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 문화 이해 증진 및 교류 확대(시즌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 문화 이해 증진 및 민간 교류 활성화(시즌제 및 상시 교류)
프로그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적인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문화 예술 교류 프로그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업 및 공동기획 프로젝트의 진행
평가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과정 적절성 인지도 향상 이미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 수교행사 대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교류 네트워크 채널 확보 프로그램 다양화 관람객 수 관객 만족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 수교행사 대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다양성(지역, 장르, 대상 등) 확대 민간부문의 인적·물적 교류 네트워크 형성 유료 티켓판매 수익 참여자 및 관람자 인식개선 정도 등

② 국내외 참여 예술단체 및 기관 인식조사

- 수교 문화행사 중 공동기획 또는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외 예술단체 및 예술기관의 만족도 등 인식조사 시행
 - 수교행사 이후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교류의 지속 여부는 문화행사의 주축이 된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만족도 등 인식평가에서 결정되므로 공동기획 또는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외 수교국의 예술단체에 대한 조사 진행
 - 양적지표: 투입 예산대비 프로그램 수(횟수) 및 예술단체 수, 참여도시, 참여자 만족도, 인지도 등
 - 질적지표: 국내 참여기관과 예술단체의 수교행사에 대한 자체 평가(기획단계 및 진행단계에서의 우수성, 체계성 등, 향후 상대국가 예술기관 및 단체와의 예측되는 네트워크 지속가능성 등), 공동기획 또는 협력사업의 경우 상대국 예술단체 또는 참여기관의 자체 평가 내용 등을 종합하여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질적인 내용을 평가

③ 평가회 및 사후관리활동

-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개발
 - 행사종료 이후 지속적인 교류의 유지를 위해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거나 향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담을 수 있는 콘텐츠 마련
 - 문화행사 교류프로그램 참가팀의 친목과 사후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 제공
 - 참여단체의 사후관리 및 네트워크 형성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회 등의 기회 마련
 - 사후활동은 활동보고회, 평가좌담회 등의 형태로서 해외 현지 프로그램의 종료 후 전체 프로그램의 실시결과를 정리하고 프로그램관계자 및 참여자들의 소감과 평가를 통해 향후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

□ 기대효과

- 권역별로 차별을 두어 수교문화 행사 사업을 평가함으로써 권역 별 전략 수립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수교기념 문화사업을 계기로 사업 전후 리서치를 도입함으로써 수교 기념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하고, 문화적 니즈에 부합한 프로그램의 퀄리티와 홍보·마케팅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음
- 수교행사 이후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교류를 지속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문화교류의 주체를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평가회 및 사후활동을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결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다 나은 수교기념 문화행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공헌할 수 있음

4. 상시적 시장조사 체계의 구축

□ 필요성

- 현지 관객의 취향과 선호도를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필요
 - 현지 문화예술기관 혹은 현지의 대중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공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차적 문화 수교 파트너인 재외한국문화원 혹은 재외공관의 자체적 수요에 의해 프로그램들이 기획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수교기념 문화행사가 국가 브랜드나 이미지 투사에 초점을 맞추는 ‘투사형 공공외교(projection public diplomacy)’의 한 축이라고 볼 때,⁵⁰⁾ 해당국 국민의 소구력을 높이고 문화적 저항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국 국민의 정서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
 - 예술성과 흥행성의 조화를 고려함으로써 양국 국민의 ‘참여와 공감’이라는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기본적 목적⁵¹⁾을 달성할 수 있음
- 교류지역의 다변화 경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최근 들어 아세안, 러시아와 교류하는 사업 수가 증가하고 북유럽, 중남미 등으로 교류지역이 확대되고 있음
 - 하지만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도는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임
 - 따라서 국가별, 지역별, 권역별로 다양한 현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전조사가 반드시 요구됨

□ 사업내용

① 사전 시장 조사 공모제 및 웹 아카이브 구축

- 사전조사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통해 현지 관객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수교기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도출

50) 김태환(2019), 가치외교의 부상과 가치의 "진영화" -강대국 사례와 한국 공공외교의 방향성, 문화왕 정치, 6(1), 5-32.

51) 공공외교의 대상 즉 목표청중(target audience)은 타국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다(The US Advisory Commission on Public Diplomacy, "Accessing U.S. Public Diplomacy: A Notional Model," (September 2010), p. 41.

- 최소한 3-4년 전부터 현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도록 다년간에 걸친 예산을 확보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으로 업무를 일원화하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및 통일성 확보
- 사전 리서치를 수행할 민간단체 공모를 위해 3년 전에 민간 조사단체 공모 비용을 확보
- 프로그램을 해당년도에 공모하여 4-5개월만에 확정하는 관례에서 탈피하여 최소 2-3년 전 공모를 통해 사전 리서치 비용(seed money)을 민간단체에게 지원
 - 사전 리서치 공모에 떨어진 단체도 해당년도에 실행 단체 선정에 응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함
- 웹 기반의 국/내외 문화·예술기관 정보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을 통해 리서치 자료를 기록하고 공유함
- 프로그램과 사례의 지속적인 아카이빙을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 웹 기반의 아카이빙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정보를 공유하고 기록하는 것이 가능

② 재외한국문화원 권역별 담당제

- 거점기관인 재외한국문화원이 현지의 수요를 파악하는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외교부 등 타 부처에 정보 제공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함
- 특히 문화원의 역할을 권역별로 확장하여 문화원이 없는 주변 국가에 대한 상시적 사전조사를 시행함(현재 문화원이 없는 국가들은 외교부가 담당하는 경우들이 많음)
- 재외한국문화원의 권역별 담당제를 통해, 전략 국가 집중 사전 리서치 제도를 운영
- 수교기념 행사가 예상되는 주요 국가를 매년 2~3국씩 선정하여 집중 사전 리서치 시행
 -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리서치 공모제(1)와는 별도로 KOFICE에서 직접 수행

- 향후 5년 후 등 충분한 기간을 두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사례 : 영국 British Council의 소프트파워 측정 >

- 소프트파워: 소프트파워는 군사력과 경제력 등 물리적 측정이 가능한 ‘하드파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현대사회에서 문화, 예술 등 인간의 이성 및 감성에 기반한 창조물이 하드파워보다 국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이론에서 파생됨
- 독자적 국제문화교류 브랜드를 구축한 프랑스, 영국, 독일은 소프트파워에서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20위 정도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음
- 영국 문화원(British Council)의 소프트파워는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으며, 본 기관의 문화적 영향력이 높아질수록 국제 유학생의 수, 관광객,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기대효과

- 해당국에 대한 사전 분석에 따른 자료 확보로 수교기념 행사의 주도권 확보
 - 사전기획단계부터 문체부 관련 문화교류 기관의 이니셔티브 및 적극적인 참여 기회 확보 가능
 -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하여 교류 상대국을 시의적절하게 선정할 수 있음
- 재외 한국문화원의 기능 강화
 - 문화원이 없는 주변 권역 국가들 대상 거점 역할
 - 인프라가 없는 주변국에 대한 상시 조사 체계 구축(공모나 개인적 네트워크 의존에서 탈피 가능)
- 변화하는 국제문화교류 환경에 능동적이고 선제적 대응 가능
 - 관계 부처 및 기관들과의 정보 사전 교류 및 공유 가능

- 장기 프로젝트 및 지속적 교류를 위한 마중물
 - 해당국의 시장을 알고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을 골라 공을 들여야 이후에 다시 초청을 받을 수 있음
 - 수교 양국이 합작한 장기 프로젝트가 거의 없다 보니 메인 프로젝트가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되며 프로그램(행사) 수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함

5.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 마련

□ 필요성

- 상대적으로 저조한 현지 언론의 한국에 대한 관심
 - 수교기념 행사의 경우, 선진국일수록 상대적으로 언론의 관심이 적은 편임
 - 예를 들어, 한-불상호교류의 해의 경우 전체 보도 건수 4,480건 중 한국 언론보도는 3,242건, 프랑스 언론보도는 1,238건으로 나타나 프랑스 언론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음
- 내국민의 관심 부족
 - 다양한 수교기념 행사가 해외에서 열리고 있으나 이를 인지하고 지지하는 내국민들의 수는 적음
 - 예술가들의 잔치로 끝나는 결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 최근 들어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social media)가 국내외적으로 정치사회적 각광을 받게 되면서,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⁵²⁾
 - 미국은 소셜미디어를 공공외교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로,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과 그의 혁신보좌관인 알렉 로스(Alec Ross)에 의해 강조됨
- 문화예술 분야 단체, 개인의 경우 대부분 홍보마케팅 역량 부족

52) 김상배(2012), 소셜미디어와 공공외교: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미국의 전략, 국제정치논총, 52(5), 117-142.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개별 예술단체나 예술가들은 개별적인 홍보 및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 사업내용

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체계 구축

-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상시 홍보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 및 상대국의 소셜 인플루언서 적극 영입
 - 주요 국가의 경우, '소셜 인플루언서 홍보단' 상시 운영
 - '소셜 인플루언서 홍보단'은 소셜 인플루언서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일반인들로 구성
 - 이는 문화외교에 국민이 참여하여 다른 참여자와 다원적으로 소통한다는 점에서, 특히 SNS 등 소셜미디어를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공공외교와 구분됨
 - 소셜미디어 활용에 적극적인 국내 및 상대국의 밀레니얼 세대를 자원봉사자로 적극 영입
 - 주요국의 소셜 인플루언서 홍보단은 주변국을 함께 담당함

② 브랜드 중심의 통일된 홍보체계 구축

-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브랜드의 구축 및 이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된 글로벌 홍보체계 구축
 - 2015년 프랑스 외교국제발전부는 자국의 대외 소통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에 있는 프랑스 네트워크가 현지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글로벌 청중'들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
 -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개최한 제1회 공공외교주간(2018.11.1~3) 프로그램 중 본회의의 주제 역시 '소셜미디어와 외교방식의 변화'였음⁵³⁾

53) 이진영(2018), 문화외교와 소셜미디어 활용, 문화와 정치, 5(4), 69-94.

<사례 : FranceDanse>

- 프랑스의 Institut Francais는 ‘FranceDanse’라는 브랜드로 각국에서 프랑스 무용 프로젝트를 진행함
- 프랑스 무용단체의 초청 공연, 공동 제작 초연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무용 관련 행사들을 1년 동안 다양한 현지 페스티벌과 공연장에서 산발적으로 펼치는데 이를 한데 묶어 FranceDanse라는 일종의 페스티벌 개념으로 브랜딩하였으며 나라마다 FranceDanse-Coree, FranceDanse-Japan와 같은 형태로 통일성 있게 적용함

[그림 5-4] France Danse 공연 포스터



□ 기대효과

- 현지 홍보의 활성화로 호응도 제고 및 행사의 성공적 개최
 - 자원봉사단 상시 운영으로 저변 확대 및 인재 발굴 기회 확보
 - 통일된 브랜드 구축으로 홍보의 효과성 강화
- 소셜네트워크(SNS)와의 발달에 따른 홍보시스템의 변화에 대응
 - 전통적 외교 영역이 소수 간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다수 간 커뮤니케이션으로의 변화에 초점을 둔 반면, 최근에는 다수 간 상호작용이나 커뮤니케이션의 확대라는 변화가 외교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음⁵⁴⁾
 - 따라서 능동적인 수용자 또는 공동창조자를 수행하는 개인 대상의 홍보 전략 마련함으로써 홍보시스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음

54) 주미영 (2016). 국제적 신뢰를 위한 문화외교와 정부지원에 대한 비교 연구. 국제지역연구, 20(3), 55-87.

6. 공동기금 마련

□ 필요성

- 상대국과의 상호불균형적 예상 집행
 - 예를 들어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경우 공동홍보기금을 마련하였으나, 세부사업 단위로는 공동기금 미설치
- 상호호혜의 원칙 견지 필요
 - 영국문화원은 철저하게 비즈니스 중심의 대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프랑스는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 즉 자금 조달이 가능하거나 확실한 자금 조달계획이 있는 프로젝트나 양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우선순위로 정함
 - 2016년 중국 문화부는 「일대일로 문화발전행동계획(“一帶一路”文化发展行动计划)」을 발표하고 ‘문화무역’ 기조를 밝힘
 - 국지적인 국가이익을 넘어서서 글로벌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상대방과 공유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국제적 공공재(global public goods) 창출⁵⁵⁾을 위해 필요

□ 사업내용

① 공동기금의 상시적 운영 및 장기적 사업 기획

- 공동기금의 상시적 운영을 통해 장기적 사업의 기반을 마련함
 - 2016-2017 한·영 공동기금사업이 추진되었고, 양국 간 문화예술 분야의 집중 교류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잉글랜드예술위원회가 2년간 각각 12억5천만 원씩 총 25억 원을 지원함
 - 또한, 한-덴마크 상호교류의 해 사업 추진 시 예술위원회가 덴마크의 파트너 기관과 공동기금을 마련한 바 있음. 이러한 사례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음

55) 김태환(2019), 가치외교의 부상과 가치의 "진영화" -강대국 사례와 한국 공공외교의 방향성, 문화왕 정치, 6(1), 5-32.

<사례 : 베세토 연극제>

- 한중일 연극 분야에서는 베세토 연극제가 20년간 이어져 오며 공고한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구축해 왔음
- 한중일 간 유일하게 남아있는 민간 공연예술 페스티벌임
- 현재 한중일이 돌아가며 주최국을 맞아 3국의 대표 작품을 모아 공연하는 페스티벌을 개최하고는 있으나 제한된 예산으로 공동제작, 합작 형태의 사업은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 못함

○ 후진국/중진국/선진국의 세 권역별로 단계별 공동기금을 운영

- 후진국/중진국/선진국으로 권역을 분류하여 권역별 공동기금 운영 원칙을 세움
- 이에 따라 세 권역별로 상호호혜적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공동기금 운영 방안 도출
- (가칭)아시아 공동 문화펀드 조성(Asia Culture Fund)

<사례 : 국제 공동 문화펀드 조성>

- 노르딕컬처펀드(Nordic Culture Fund): 노르딕 국가들(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5국가 페로 제도, 그린란드, 알란드 제도의 3개 자치령)의 발전된 문화협력을 목적으로 1967년에 설립. 전문예술가 및 아마추어 대상의 문화교류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
- 비셰그라드펀드(Visegrad Fund)⁵⁶⁾: 2000년 6월 9일,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4개국이 조성한 문화기금. 문화프로젝트, 청소년 교류, 국가간 프로젝트, 관광 등을 통하여 동유럽 4개국 간 또는 4개국과 기타 국가 간 문화협력개발 증진을 목표로 함
- 프랑스·독일 문화기금(Culture Fund): 엘리제조약(Elysee Treaty)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 독일과 프랑스 양국 간의 문화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목적이 담겨있으며, 문화예술 행사, 영화 등의 형태로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

○ 수교기념 문화행사 기금의 선 확보 시스템 구축

- 수교기념 문화행사 시 2-3년 전에 기금을 확보하는 시스템 마련
- 수교는 쌍방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기금도 끌어올 수 있음

② 민간 참여를 통한 공동기금 마련

○ 민간에서 이미 구축되어있는 네트워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한 공동기금 마련

-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기금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통해 지역공동체 기반 수교기념 문화·예술 기금 마련
- 지역 기반 기업 및 민간 문화·예술 단체의 후원을 통해 상생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

<사례 : 공동제작-실크로드 프로젝트(The Silk Road Project) >

- 중국의 첼리스트 요요마가 설립한 비영리재단 사업
- 실크로드 앙상블이라는 다국적 음악그룹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 장르 아티스트와 협업하며 각지에서 연주, 앨범 활동을 펼치며, 동시에 교육,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진행(예: 시카고 시, 시카고 심포니와 함께 음악인 레지던시, 학생들을 위한 음악 워크숍 진행)
- 하버드 대학 내 본부를 두고 예술을 중심으로 한 바람직한 교육 커리큘럼 모델도 개발해 나가고 있음

□ 기대효과

○ 상호호혜의 원칙 준수로 국민적 저항심 경감

- 민간 참여 확대 유도

56) 비셰그라드펀드(VIF)는 V4 국가 간 서발칸/동유럽 국가들과 협력 제고를 위해 매년 8백만 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대한민국 외교부는 비셰그라드펀드(IVF)와 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그해 12월 '비셰그라드 플러스(Visegrad+)' 프로그램에 총 336,000유로를 기여함. 이는 농촌개발, 교육, 시민사회 역량 강화 등 총 7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비셰그라드 펀드가 한국과의 문화교류에 후원한 프로그램은 2012년 서울아트마켓(PAMS)과 2015년 외교부가 주관한 <비셰그라드 음악축제> 등이 있음

- 안정적 재원 마련으로 사업의 지속성 확보

- 공동기금의 운영을 통해 국가 간 공고한 네트워크 구축

- 공동제작, 인력 교류 프로젝트 등의 진행에 공동기금을 집행

7. 민간주도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확대

☐ 필요성

- 최근의 국제문화교류는 비영리영역인 순수예술 중심에서 학술, 포럼, 정책플랫폼 공유 및 문화산업분야로 교류 분야의 다변화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수교기념 행사 또한 마찬가지임

- 이는 교류의 주체가 국가 및 공공영역에서 민간영역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함

- 문화정책, 연구, 문화산업 등으로의 교류 분야가 확장되고 있음

- 문화교류 환경이 확장되면서 국제기구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기반 정책교류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음

- 기존에는 문화교류가 중앙 및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지역·지자체, 민간단체 중심으로 교류 주체가 변화하고 있음. 장기적인 수교기념 문화행사를 지속하기 위해서 교류 주체를 다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공공은 교류사업을 직접 관장하기보다는 민간기관이 제안한 사업에 공공자금을 일부 투입하는 방식으로 문화교류를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의 수교기념 문화행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법은 국가 위신을 향상하기 위한 하향식, 일방적 방식으로 정부에 의해 제도화된 기존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함

☐ 사업내용

① 수교기념 문화행사 참여 예술인(단체) 상시 모집 제도 운영

- 수교기념 문화행사 직전 참여 예술인(단체)를 모집하는 것이 아닌 상시 모집 제도 운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공모사업을 통해 수교기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공모사업은 사업 직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기획을 추진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는 문제가 발생함
- 다양한 예술인(단체)의 목록 확보로 수교국의 요구에 맞는, 혹은 수교기념 행사의 주제에 맞는 단체를 더욱 수월하게 선정할 수 있음

<사례 : 참여 예술인(단체)의 상시 모집 제도>

- 영국
 - 영국문화원은 홈페이지와 이메일, 유선전화를 통해서 예술인(단체)의 참여 신청을 상시적으로 받고 있음
 - 이메일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 프로그램은 시즌제 (ukseasons@britishcouncil.org)와 Going Global(교육 관련 컨퍼런스 행사, going.global@britishcouncil.org) 등이 있음
- 프랑스
 - 프랑스문화원은 시즌을 담당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부서를 통해서 예술인(단체)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음
 - 또한 시즌 담당 부서는 문화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시즌제의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예술인(단체)를 큐레이션 함

②‘커미션(Commission)’, 신진작가에게 수교기념 작품제작 요청

- 예술에서 ‘커미션(Commission)’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작품의 창작을 요청하는 행위로 개인, 정부 혹은 기업에 의해 의뢰될 수 있음
 - 이는 후원의 한 형태로 작가에게 원하는 작품을 의뢰하고, 작품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신진작가에게는 해외에 네트워크를 쌓을 기회가 될 수 있음
- 수교기념 타이틀로 상대국의 작가와 한국 작가를 선정하여 각각 상대방의 나라에 대한 주제로 신작 제작을 요청하고, 이들의 작품활동을 지원함

- 예를 들어, 영국 박물관과 함께 수교행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한국 및 영국 현대 작가에게 영국 박물관 한국과의 유물을 모티브로 한 작품제작 의뢰 후, 수교 시점에서 영국 박물관 내 유물 디스플레이와 영국문화원 등에서의 신작 전시 행사를 기획해볼 수 있음
- 이는 수교기념을 타이틀로 상대국을 주제로 하는 작품을 창작한다는 점에서 상호 간의 이해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함
- 회화, 조각 등의 작품은 한 번 완성되면 계속해서 전시·보관할 수 있으므로 도래하는 수교기념마다 작품을 창작해 ‘수교기념 컬렉션’을 완성할 수 있음

< 사례1 : 서도호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Bridging home, London’ >

-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서도호(1962~)의 공공미술 설치작품이 2018년 영국 런던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워우드의 육교 위에 설치됨
- 서도호 작가가 런던에서 선보이는 첫 대형야회 설치작품인 ‘브릿징 홈, 런던’은 런던 공공 예술 축제인 아트나잇(Art Night)과 런던시의 도시조각 프로젝트(Sculpture in the City) 최초의 공동커미션으로 제작되어 약 6개월간 런던 시민들에게 공개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잉글랜드 예술위원회가 조성한 ‘한-영 문화예술 공동기금’⁵⁷⁾을 통해 전시제작을 지원
-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개인적으로 경험한 나라 간, 문화 간 이주를 통해 느낀 기억, 이주에 대한 감정, 이민자의 다양성 그리고 ‘집’에 대한 물리적 구조와 인생 경험을 작품에 담아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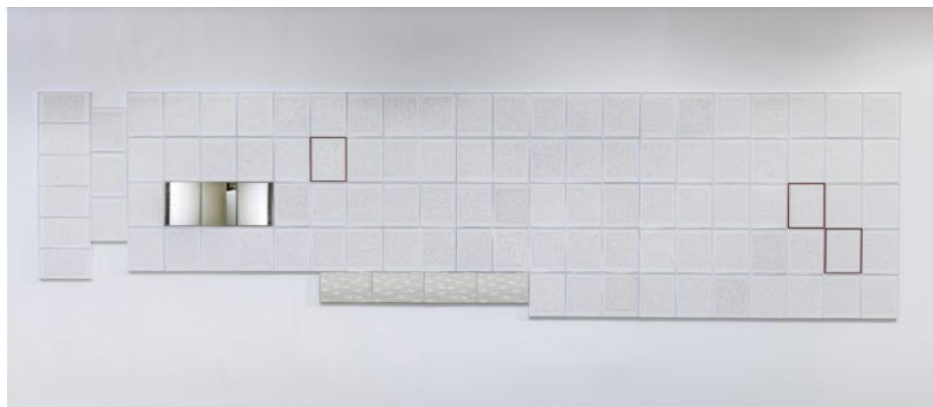
[그림 5-5] Bridging Home, London 1 [그림 5-6] Bridging Home, London 2



< 사례2 : 영국 국립 시문학 도서관의 Library of the Unword >

- 영국 국립 시문학 도서관(National Poetry Library)은 문학가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 작고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 <Library of the Unword>를 기획
- 영국을 주 무대로 활동하며 드로잉이나 글, 설치작업 등을 통해 언어에 대해 탐구해 온 박주연 작가는 커미션을 받아 베케트의 시 'Echo's Bones(1935)'에서 영감을 얻은 설치 작업 'Twenty Times a Thousand(2019)'를 선보임
- 이는 작고한 작가(미술, 음악,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모티브로 새롭게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을 선보이는 형태의 커미션 프로젝트
- 이와 같은 형태의 커미션 프로젝트의 경우, 해외 반출이 어려워 국내에서만 보여지는 작품 혹은 작가를 좀 더 수월하게 외국에서 선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림 5-7] 박주연 작가의 Twenty Times a Thousand (2019)



③ 수교기념 레지던시 프로그램

- 수교를 기념하여 각 나라의 작가들을 선정하고, 국내외 레지던시 기관과 연계하여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지원함

57)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국예술위원회가 2016년 협약을 맺어 양국 문화예술 협력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양국 21개의 예술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아 양국 문화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음

- ‘레지던시(residency)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 미술계 인사와의 활발한 교류 활동 등을 통해 양국 현대미술의 발전과 민간주도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
-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교국가의 미술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작가들을 초청하는 ‘수교기념 초청행사’를 진행한 바 있음
- 정부 산하기관뿐 아니라 민간기관 또는 지역사회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주도의 수교기념 문화행사를 유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할 수 있음
-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대상을 예술가에서 문화기획자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유도함

□ 기대효과

- 수교기념 문화행사 프로그램 종류 이후에도 민간 단위의 문화예술 교류의 자생력을 기를 수 있음
- 다양한 규모의 민간단체 참여는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함
 - 크고 작은 단체 사람들의 왕래를 통해 수교국의 문화를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음
 - 참여하는 단체의 수가 증가하면 예술교류 이외에 문화 일반, 문화정책, 연구,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행사를 기획할 수 있음

< 사례 : 아오모리 현대미술센터(ACAC)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

- 일본 아오모리 지역에 위치한 ‘아오모리 현대미술센터(Amori Contemporary Art Center, ACAC)’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아모모리시가 2001년에 설립함
- 2년마다 후보를 심사해 국내외를 망라한 4명의 입주 작가를 최종 선정하는데, 그 명단에 오른 작가들은 3개월간 그룹전, 아티스트 토크, 지역 학교 방문 등의 지역 연계 프로그램에 필수적으로 참여함

[그림 5-8] 아오모리 현대미술관 외관 [그림 5-9]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



출처:아오모리 현대미술센터 홈페이지

8.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역할 정립 및 인프라 확충

□ 필요성

○ 권역별, 지역별, 국가별 전문성 부족

-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면서 매개기능, 연구기능, 집행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나 진흥원의 연혁이 일천하여 현재까지는 국제문화교류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현재로서는 수동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에만 머물러 있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하는 기능은 약한 상태로 진단됨
- 특히 해당국 지역별은 물론이고 국가별, 권역별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임

- 팀 규모의 인력으로 방대한 국제문화교류 업무 수행 불가능
 - 현재는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국제문화교류팀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나 팀 규모로는 방대한 권역과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관련 행사를 감당하기에 역부족한 상황임
 - 단기인력이 많아 전문성 및 지속성이 부족함
 - 따라서 이를 본부급으로 격상시켜 담당 권역을 할당하여 조직의 안정화를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① 국제문화교류진흥원 내 본부급의 조직 설치

- 국제문화교류진흥재단 내 본부급의 조직 설치를 통해 네 개 권역별 전담 교류팀을 수립
 - 본부급의 조직을 설치하고 예하에 유럽/중동,아프리카/아시아/미주 등 4개의 권역별 팀과 서부유럽/동부유럽/중동/동아시아/서남아시아/오세아니아/북미/남미/아프리카 등 9개의 파트를 둠
 - 한-불 상호교류의 해 등과 같은 비중 있는 외교 계기성 사업의 경우 본부 내의 인력을 활용한 T/F가 사무국을 구성하는 체제 구축

② 국제문화교류진흥원 내 현장인력 양성

- 전문인력 양성 규모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자체적으로 국제문화교류 현장 인력을 양성하여, 수교기념 문화교류 시 부족한 현장인력을 필요에 따라 국내외 기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 실제로,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주요 매개기관인 재외한국문화원의 경우, 문화원 내의 프로그램과 인력 부족의 문제로 수교기념 문화행사를 함께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③ 분야별/권역별 자문위원 수립 기능 강화

-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여 프로그램 실행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

는 자문위원회와 조직위원회를 구성함

-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민간교류가 적은 국가들이 대상일 경우, 상대국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권역별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음
- 본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한 분야에서라도 현지 문화·예술 단체와 기존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함

< 영국 문화원(British Council)의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

- 영국문화원 런던 본부 내에는 분야별 전문가가 포진해있어 직접 수교기념 행사 및 ‘시즌제’의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자문을 수행
- 지역별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공고를 띄워 해당 지역에 자문위원회 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함
- 지역 자문회 위원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다음과 같음
 - 영국인들과 더 넓은 세계 사람들 사이에 친숙한 지식과 이해를 만 들자는 사명을 지닌 자
 - 영국문화원 3개 전략 사업 단위 중 하나 이상(예술, 교육, 과학 및 영어)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
 - 00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는 자
 - 협업 능력과 의사소통 기술을 갖춘 자
 - 국제문화 관계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자

□ 기대효과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제문화교류의 매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
 - 권역별/국가별/지역별 전문성 있는 문화교류 추진 가능
 - 안정적인 네트워크 확보로 비용 절감 및 안정적 추진 가능
- 담당 인력의 전문성 확보
 - 정규직화로 인력운영의 안정성 확보
 - 문화 관련 장르별(공연, 전시 등) 전문성 확보

9. 네트워크 구축 관리 활용

☐ 필요성

- 국제문화교류의 방식이 일대일 혹은 양자 간 교류 중심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교류로 변화하고 있음
 - 국제문화교류의 선도주자라 할 수 있는 EU 중심의 유럽권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남
 - EU는 가입국 이외에도 정치 협력체로 묶여있는 중동, 아프리카와의 네트워크를 확립하여 문화교류의 공동협력 권역으로 활용하고 있음
- 주재국 내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 부재로 장소 섭외 등 행사 기획 및 진행이 어려움
 - 주요 공연장 및 전시장의 경우 3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사전에 섭외를 해야 하며 긴밀한 네트워크가 필요한 경우도 많음
 - 그러나 상시 연락체계가 없어 주요 공연장 및 전시장 섭외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 또한 크며 소통의 어려움으로 수교기념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기관도 존재함
- 수교국 기관 또는 담당자의 혼선으로 인한 의사소통 부분의 문제 발생
 - 동일한 사안으로 다양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문의 및 섭외를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기관, 외교부와 그 산하기관 등 여러 기관이 주관하고 있어 내부 네트워크 확립이 필요함

☐ 사업내용

① 전 세계에 걸친 네트워크의 효과적 연계 및 확충

- 전 세계에 걸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국외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확충함

- 한인사회, 재외문화원, 현지진출기업 등의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합리적인 국외 의사소통체계를 확립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60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세종학당의 수를 180개소에서 210개로 확대할 계획이 있음

② 수교기념 문화행사 진행 기관 간 일원화 된 네트워크 구축

- 수교기념 문화행사와 관련하여 재외한국문화원과 재외공관, 해외문화홍보원 등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룸
- 외교부의 경우 수교기념 문화행사뿐 아니라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 문화교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경우,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모두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두 기관 및 산하기관 사이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행사의 내용이나 시기, 목적 등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의 중복을 피하려고 수교기념 문화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함
-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유관기관이 산재해 있어 수교국과의 의사소통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적어도 문화행사 진행에 있어 여러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를 일원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사례 : 중국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연계>

- 중국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각종 인적·물적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연계 및 네트워크의 단계적 확충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있음
- 공자학원, 화교, 해외중국문화센터 등 전 세계에 구축된 기존 네트워크의 연계를 강화하여 문화교류와 인적교류 활성화를 도모함
- 공자학원의 프로그램은 친교와 친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에 쉬울 뿐 아니라, 학계를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를 조성할 수 있음
- 2020년 1월 기준 공자학원은 162개국에 54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이 문화교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줌⁵⁸⁾

[그림 5-10] 공자아카데미 로고



[그림 5-11] 공자아카데미 장학지원



□ 기대효과

- 수교기념 문화행사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안정적이고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래밍 가능
 - 재외 정부기관뿐 아니라 한인문화예술협회 등 해외의 민간교류 단체를 통해 수교국 국민과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고 이는 중장기적 민간교류를 가능하게 함
 - 일원화된 수교기념 문화행사 네트워크를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음

58) 최창근(2020,2.), 「한국 내 공자학원도 中스파이공작 침범? 歐美에서 논란! 퇴출운동 이어져」, 神東亞

10. 프로그램 기획방식의 선진화

□ 필요성

- 해당국 국민의 문화적 저항 불식 필요
 - 일방적인 프로그램 기획은 해당국 국민의 문화적 저항 내지 반감을 불러올 수 있음
 - 아무리 그 나라에서 사랑받는 문화라고 해도 낯것 그대로 다른 나라에 전해지면 효과나 가치가 떨어지기 쉬움
 - 최근의 한류 열풍이 한국 ‘문화 제국주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시각도 있음
 - 또한, 최근의 국제문화교류 패러다임은 일방적인 문화의 전파나 홍보가 아닌 ‘상호존중 및 이해와 협력(쌍방향)’이란 관점이 강조되고 있음
- 고급문화 위주에서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적절한 조화 필요
 - 과거에는 국가의 ‘고급문화(high culture)’를 다른 국가에 보여주는 노력을 했다면, 최근에는 대중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인 ‘대중문화(popular culture 또는 low culture)’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
- 결과물 중심에서 프로젝트 기반, 과정 중심 교류로의 변화 필요
 - 정부 주도 혹은 선 계획적인 프로젝트의 경우 ‘결과물’이 최종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방식의 교류는 행사종료 시기와 함께 창작 그룹이 소멸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이처럼 과거에는 공연·전시 등 결과물(end-product) 중심의 교류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프로젝트 기반 또는 과정 중심의 교류가 부상하고 있음
- 문화를 도구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문화 자체의 발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필요
 - 문화 수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 창출을 넘어 수용국의 문화발전과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해야 함

- 특히 수교기념 문화행사는 장기적이기보다는 일회적이고 이벤트성의 프로그램이 많음
- 네트워크 기반의 사업이 아닌 임의적 기준에 참여하는 행사성 사업으로 인하여 교류의 성과가 축적될 수 있는 장(locus)을 만들어내지 못함
- 현재는 상위기관에서 2년 전에 업무 분담에 대한 정리가 되고 있지만, 공연장을 예약하고 아티스트를 섭외하기에는 2년이라는 기간도 짧다는 인식

□ 사업내용

① 공동기획 및 공동제작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 단순 작품 교류 또는 행사 참여 방식에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하는 방식, 즉 인적교류(기획자와 기획자, 아티스트와 아티스트)로 전환⁵⁹⁾
- 한불 수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제작은 양국의 예술가나 기관, 축제, 예술단체 등이 만나 지속가능한 예술교류의 토대를 조성할 뿐 아니라 다음 단계의 사업 확장성(투어공연 연계나 후속 프로젝트 발굴 등)과도 연결됨
- 일회적이고 이벤트성의 프로그램이 아닌 장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래밍 지향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3년 이상 기획)
- 예술인들을 연결하고 협업 프로젝트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프로듀서와 프로그래머들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예술인들의 독립적, 자발적 국제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
- 이때 온라인 플랫폼은 정책적으로 제한, 선별된 정보가 아니라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총망라하여 제공함

59) 공동프로젝트란 공연이나 전시, 행사 등의 공동기획이나 공동제작 등 최소 2개국 이상의 관련 기관, 단체 등의 협력이 전제된 프로젝트성 교류활동을 의미함

<사례1 : 공동제작-Theatre of Operations>

- 프랑스의 안무가 피에르 리갈(Pierre Rigal)이 무용수 전원을 한국인으로만 구성하여 창작한 작품
- 의상, 음악, 조명 등 창작 스태프는 한국, 프랑스, 스위사가 협업하였으며 제작은 피에르 리갈의 무용단과 LG아트센터, 스위스 비디 로잔 씨어터(Vidy-Lausanne Theatre)가 참여
- 제작 협력에 프랑스 여러 공연장과 프랑스문화원이 참여. 특히 프랑스문화원은 이 공동제작에 소요경비 지원은 물론, 안무가가 한국내 제작 파트너를 찾는 중요한 단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
- ‘한국과 프랑스’라는 국가간 정체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협업의 형태. 역시 공연장들이 제작의 중심을 이루어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동시에 작품개발, 리허설 등의 창작 과정에 있어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함

<사례2 : 공동제작-Tezuka>

- 벨기에 안무가인 시디 라비 셰르카위(Sidi Larbi Cherkaoui)가 일본의 전설적인 만화를 소재로 창작한 작품
- 10명의 무용수와 3명의 뮤지션은 일본, 포르투갈, 스웨덴, 노르웨이, 한국, 중국 등 다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악에는 한국 거문고 주자 박우재가 참여하였음.
- 제작에는 3국의 공연예술 극장들 - 영국(새들러스 웰스 극장), 일본(분카무라 극장), 벨기에(이스트만 극장) - 이 참여하였으며 이외에도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의 공연장들이 제작 협력함. 초연 이후 이 제작 협력 극장들을 순회하게 됨

② 레지던시 등 프로그램의 다변화

- 문화예술 행사 중심에서 탈피하여 레지던시, 워크숍, 세미나, 연구와 탐방 등 교류 분야의 다변화
 - 눈높이 강의, 참여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교류의 역동성을 제공

<사례1 : 특정 주제형 레지던시>

- 2013 크리에이티브타임 서밋: ‘Art, Place, and Dislocation in the 21st Century City’라는 주제로 세계 대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이에 따른 예술인 창작 환경의 불안정성에 대한 이슈를 뉴욕 및 미국 중소도시, 이스탄불, 베이징의 여러 사례를 통해 다룸
- ‘크리에이티브타임 서밋’은 공공미술을 중심으로 시각예술, 공연예술, 건축, 조경, 시민운동 등의 다양한 분야 간의 공통 주제를 개발하여 매해 컨퍼런스, 전시, 행사 등으로 구성되는 이벤트

<사례2 : 국내 레지던시>

- 극단 노뜰의 후용공연예술센터, 극단 뛰다의 시골마을 예술터받
- 국내외 예술가들과의 워크숍, 쇼케이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예술인 간의 직접적인 만남과 네트워크의 기회를 넓히고 국제적 공동작업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음

<사례3 : 해외 레지던시>

- 동경 키치조지 소재의 국제 레지던시 및 전시 공간인 아트스페이스 유코보 (Yukobo)와 씬지레지던시 간의 세미나와 작가 교환 프로그램, 국제 아티스트 레지던시 네트워크인 Res Artist⁶⁰⁾의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컨퍼런스, 세미나, 책자 제작 배포 등이 있음(<http://www.resartis.org/>)

60) 예술가, 큐레이터 등 모든 종류의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개선 및 확장

- 단순 공간 제공에서 발전하여 특정 주제형, 예술가 협업형, 지역 커뮤니티 연계형 등 실질적인 교류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개선
- 특정 주제(Theme)형 레지던시(레지던시가 이루어지는 지역, 공간, 도시에 대한 연구를 테마로 선정)
- 예술가 협업형 레지던시(예술인의 개인적 작업보다는 동료 예술인들과의 협업을 유도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향)
- 지역 커뮤니티 연계형 레지던시(해당국 지역 사회를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연계)

③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국가 수준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래밍

- 선진국 대상의 교류의 경우 양국문화의 소개라는 1차원적인 교류에서 벗어나 한 가지 주제 및 테마를 정해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심도 있는 교류를 진행
- 선진국은 민간이 중심이 된 프로그램을, 개도국과 후진국의 경우는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지향

④ 권역별 및 주변국 순회 연계 기획

- 단발성이 아닌 인근 국가에서의 순회전을 구축 개최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효율성 확보
- 수교기념 문화행사를 위해 개발된 공연 및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개최지역 외 다른 지역과의 연계 시스템
- 권역별 기획 시스템에 의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사례1 : 한-쿠웨이트 수교 40주년 기념행사>

- 수교기념행사를 계기로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포함한 인근 국가를 대상으로 순회공연을 추진함

<사례2 :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

-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원용으로 전시회와 공연을 공모하여 한국문화를 보여주면서 투어에 부담이 없는 프로그램을 3~4배수 선정하고, 문화원이 이 중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사업을 운영한 바 있음

⑤ 첨단기술 활용에 의한 관객의 상호작용성 강화

-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을 기반으로 시공을 초월한 창작 협업 및 문화교류(예시: 가상현실 레지던시 운영) 시도
 - 별도의 장르로 나누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는 탈장르적 혹은 융합된 장르 지향
- IoT를 접목한 예술 등을 통해 상호작용성을 강화한 프로그램을 현지
에 선보일 수 있음
 - 예술단체가 작품 개발 또는 작품의 일부로서 상대국의 시민을 개입시키는 것을 기본 컨셉으로 함
 - 시민들의 행위를 기록, 수집하여 작품 개발에 활용할 수도 있고, 시민들의 행위를 모아 하나의 작품으로 재구성할 수도 있으며, 현장에서 즉흥 퍼포먼스를 기획할 수도 있음
- 가상 레지던시(Virtual Residency), 소셜 큐레이션 등 운영 검토
 - 페이스북 등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관심 주제, 관심 장소 등에 따라 공연, 시각예술, 미디어아트, 문학 등의 워크샵, 컨퍼런스, 행사 정보를 제공하여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 교류프로그램의 시각 및 영상콘텐츠를 제공하여 간접적인 체험을 제공

□ 기대효과

- 공동기획과 공동제작에 따른 문화적 저항감 해소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교류 확산
 - 권역별 및 주변국 순회 연계 기획의 경우, 수교기념 문화행사를 위해 개발된 공연 및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개최지역 외 다른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일반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벤트를 위한 이벤트가 아닌 진정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경우 동료 예술인들과의 협업을 유도하며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또한, 문화예술인 일변도에서 벗어나 학자,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 국민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교류 주체를 확산할 수 있음
 - 향후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에 관계없이 자생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의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아울러 소통과 협력의 시간과 경험 자체가 국제문화교류의 가치로서 평가되어야 함. 즉 예술인들의 작품 창작 과정에서 함께 연구하고 서로를 배우며 예술인으로서의 연대의식과 공감대를 구축하는 과정을 국제문화교류의 핵심으로 이해해야 함
- 첨단기술의 활용으로 참여형 문화예술 콘텐츠를 선보임으로써 해당국민의 참여도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티켓파워 강화
 - 유료티켓 파워를 높임으로써 자생력을 강화함

11. 수교기념 문화행사 중장기 계획의 수립

□ 필요성

- 국가 간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최근 트렌드로 떠오른 쌍방향 문화교류는 단순히 서로의 문화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닌 협력하고 공동으로 제작하는 교류, 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하는 형태의 교류를 의미함

-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한 나라의 문화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쌍방향의 교류가 증가하는 추세임
- 현재 국제문화교류진흥법에 의해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있는 상황임
- 수교기념 문화행사는 수교를 기념하는 계기성 사업으로 특수성을 기념에 따라 수교기념 문화행사만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비전 및 기본방향을 도출하고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교류 업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부처 및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 및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짐
- 체계적인 추진체계 구축은 국제문화교류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문화교류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본 요건임

○ 수교기념 문화행사는 국제문화교류활동의 하나로 성과달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사업내용

① 수교기념 문화행사 비전 및 기본방향 도출

○ 수교기념 문화행사 진행에 있어 대한민국만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확립해야 함

-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경제성장 중심의 나라로 문화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대부분은 전통문화와 ‘한류’로 대표되는 일부 대중문화로 이루어져 있음
- 전통문화 이외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전략적인 비전 및 기본 방향을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음

② 권역에 따른 전략 수립

- 국가마다 국제문화교류, 수교기념 문화행사 관련 경험치의 정도가 다르므로 권역별로 나누어 다른 전략을 수립해야 함
 - 문화교류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선진국형 국가는 이미 축적된 데이터가 많아 여러 분야에서 수교기념 문화행사를 함께 기획, 제작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문화교류 분야의 경험이 적은 동남아시아 같은 국가의 경우, 어떠한 문화교류를 원하는지 양국 간 사전조사 및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일회성 수교기념 문화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위해서는 권역별 맞춤형 방식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함

③ 대국민 대상 행사 기획

- 수교기념 행사는 수교국과 외교 관계를 맺은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각국의 국민이 상대국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임
 - 문화예술계 종사자들 사이의 중장기적인 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행사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필요함
 - 수교기념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상대국의 문화에 많이 노출되고, 친밀도를 높이는데 진정한 수교기념 행사의 의미가 있음

□ 기대효과

- 정부 차원의 수교기념 문화행사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총체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음
 -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에 따라 민간기관의 적극적인 문화행사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정부 예산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많은 수의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전체적인 지형을 파악하기 용이해 짐
 - 현재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경우 외교적 사건과 관련되어 외교부를 통

- 해 이루어지는 사업과 문체부의 재외한국문화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양분되어 사업의 전체적인 지형을 파악하기 어려움
- 장기적 관점에서의 권역 및 국가 간 교류 및 협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교류의 성과를 축적할 수 있음
- 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으로 기존 문화교류 사업 및 수교기념 문화행사 사업과 연계할 수 있음

12.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 필요성

- 기존의 수교기념 국제문화교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교류의 기회를 양적으로 늘리는데 주력해 왔음
- 이러한 목적하에 대부분의 수교기념 문화행사 프로그램은 관객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관람형 프로그램들로 구성됨
 - 교류 횟수에 초점을 둔 문화교류는 단발성의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반인들에게는 간접체험적인 피상적 교류수준에 머무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이전의 문화교류는 문화행위자 및 생산자 간의 교류나 그 문화를 접하는 소수의 시민들로 한정되어 있고 양국시민이 주인공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임
- 클래식 공연, K-pop 공연, 한국 영화 상영, 태권도 시범 등 보여주기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음
 - 관객이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
 - 따라서 공연, 시각예술, 지적교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일반인들의 교류를 이끌수 있는 다양한 인터랙티브형의 프로그램 및 부대 행사들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

☐ 사업내용

① 참여형 커뮤니티 프로그램

- 관객 참여형 커뮤니티 예술 프로젝트의 개발을 지원하여 예술단체들이 상대국의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공모 프로그램의 한 카테고리로서 '참여형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제시함으로써 예술단체들의 적극적인 프로젝트 기획과 참여를 유도
 - 예술단체들이 교류국의 다양한 지역, 공간, 대상을 상대로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
 - 시각예술, 무용,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

<사례 : 서래마을 한불 공공 미술프로젝트>

-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추진된 서래마을 한·불 공공 미술프로젝트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서울시 서초구청과의 공동 문화예술 협업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공식 인증사업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
- 외국인 공동체가 서래마을에 있는 은행나무공원에 한·불 간의 문화 융합을 표현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제작, 지역공동체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
- 프로젝트 내용으로는 공공미술 작품제작에 필요한 워크숍 등이 진행되었고 프랑스 학교수업 중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예술수업이 진행되기도 함

② 다양한 층위의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층위의 관객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 일반시민 대상 : 거리예술축제, Pop-Up Museum, 생활밀착형 예술 프로그램 등 일반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
 -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접근이 쉽고,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문

화예술 콘텐츠를 즐기는 것이 특징이므로 거리예술축제 혹은 거리에 이벤트성으로 개최되는 전시인 Pop-Up Museum 등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사례 : Pop-Up Museum>

- Pop-Up Museum은 기존의 장소의 테두리를 벗어나 기존의 임시 및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시민 참여의 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기 기관, 이동 미술관 또는 야외 전시회를 의미함
- Pop-Up Museum의 경우 전통적인 미술관과 달리 오픈된 거리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이므로 지역 순회 또는 여러 지역에 동시적으로 임시 전시공간을 설치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음

[그림 5-12] 팝업 뮤지엄 예시1

[그림 5-13] 팝업 뮤지엄 예시2



- 전문예술가 대상 :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 예술인 교류 프로그램
- 전문예술가와 지역민 대상: 지역을 단위로 한 체험형 예술 프로그램, 지역재생 프로그램 등 전문 예술가들과 지역민과 교류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 지역의 소규모 예술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예술가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내용의 예술기반 지역재생 프로그램 등
- 체험연극 프로그램, 예술힐링(healing)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직접 예술활동에 적극 개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체험형 예술 프로그램 등을 개발

-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수교국의 문화적·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프로젝트를 해당 지역에 맞게 재구성함
- 유소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가 간 문화적 거리를 좁히고, 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교류와 미래 공동 창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

<사례 : 마을미술프로젝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 대전역 인근 구도심의 낙후된 지역을 마을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문화예술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마을미술 프로젝트
- 충분한 주민참여 기회 및 시간 확보를 위해 3개년 추진을 통해 프로젝트 완성 (2017-2019)
- 지역연구와 주민참여 워크숍, 주민참여 작품제작 활동이 이루어짐

③ 생활문화 프로그램 개발

- 지역민의 문화적 니즈(Needs)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수교기념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 지역 고유의 생활문화 특성이 반영되어 공공성을 지향하고, 문화적 이해를 재고하는 수교 기념사업의 의미와 부합됨
- 아마추어 동호회 등의 지역 생활문화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연 주최
 - 생활문화동호회는 무용, 음악, 미술, 사진 등 문화예술 활동을 공통의 관심사로 공유하는 자발적 모임으로 지역 문화예술 동호회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행사를 주최
 - 수교기념 문화행사가 열리는 지역의 아마추어 댄스 동아리를 섭외해 K-POP 공연을 기획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음

④ 수교국 합작 경연대회 개최

- 수교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류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한국과의 수교를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

- 대중음악, 댄스, 전통음악 등 분야별로 한류 공연 경연대회를 기획
- 지역 방송과의 연계를 통해 공신력과 영향력을 확보
- 한국 여행 혜택, 민간 한국 홍보대사, 한국 문화예술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의 참가 및 수상 혜택을 마련하여 참가자 및 관람객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을 형성

○ 수교기념 합작 프로젝트 그룹 선발전 개최

-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주어진 미션 수행 결과에 따라 탈락하는 형식의 경연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가수와 아이돌을 뽑기 위한 방송 프로젝트로 기획됨
- 수교 기념해가 도래하기 전에 국내외 기획사 및 방송사와의 협업을 통해 수교국의 지원자를 받음
- 예를 들어, 유튜브를 통해 미션을 수행하며 어느 수준 이상의 바이럴 성과를 낸 팀을 꾸려 공개 경연을 진행할 수 있음
- 해당 서바이벌 최종우승팀은 양국의 우호적 관계의 상징적 의미로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하여 수교기념 문화행사에 초청되어 공연을 진행

<사례 : 소녀시대 멤버 수영, 한일월드컵 프로젝트 그룹으로 데뷔>

- 한일 공동 합작 프로젝트로 한국인 한 명과 일본인 한 명을 뽑아 기간제 듀오 그룹을 결성을 위한 경연이 진행됨
- 오디션에 참가한 사람은 총 15,982명으로 한국인 9명, 일본인 9명을 선발하여 서바이벌 형식의 프로젝트를 펼침
- 한국인으로서는 수영이 뽑혀 ‘루트0’의 2인조 그룹을 결성하여 일본에서 데뷔하여 활동함

□ 기대효과

- 전문 예술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참여 확대는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이라는 국제문화교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일반 시민들의 참여 형태가 수동적인 관람에서 능동적인 참여로 전환

됨으로써 해당 국가와의 문화적 거리를 좁히는데 기여할 수 있음

13. 문화교류 행사의 공동 브랜드(co-brand) 구축

□ 필요성

- 지속적으로 수교국과의 국제교류가 진행되고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행사의 공동브랜드 구축이 필요
 - 공동브랜드로 국제교류 행사의 타이틀을 하나의 브랜드로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마케팅 및 홍보효과의 확대로 교류 행사의 지속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공동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브랜드를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상호 협력적이고 균등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
- 하나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국내에서만 사용되고, 모든 수교국과의 수교기념 문화행사에 활용하는 것이 아닌 특정 수교 국가와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
- 각종 수교 기념행사들이 개별적인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되어 수교기념 행사인지 여부를 알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별, 행사별 목적과 성격에 따라 상위 타이틀로 분류하여 관리 홍보하고, 하나의 브랜드로서 지속적인 이미지 구축을 해 나가야 함

□ 사업내용

① 수교국과의 공동브랜드를 개발

- 고정 브랜드로서 사용될 수 있는 타이틀아래 기념행사의 테마나 이슈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타이틀이 접목된 형태의 교류 브랜드 구축
 - 예를 들어 한국 전통공연 행사, 전통미술 전시 행사, 고문학 분야 심포지엄 등 공통의 브랜드와 타이틀을 결합한 형태의 네이밍을 적용할 수 있음(예시: <○○○○ Korea & France: Peace>, <○○○○

Korea & Germany: Gender> 등)

- 시범적으로 일부 수교국과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수교기념 행사에 활용

<사례 : 프랑스 Institute Francais의 'FranceDanse'>

- 프랑스 Institute Francais는 'FranceDanse'라는 브랜드로 각국에서 프랑스 무용 프로젝트를 진행
- 프랑스 무용단체의 초청 공연, 공동 제작 초연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무용 관련 행사들을 1년 동안 다양한 현지 페스티벌과 공연장에서 산발적으로 펼치는데 이를 한데 묶어 FranceDanse라는 일종의 페스티벌 개념으로 브랜딩 하였으며 나라마다 FranceDanse-Coree, FranceDanse-Japan와 같은 형태로 통일성 있게 적용

☐ 기대효과

- 공동의 브랜드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브랜드화에 따른 홍보 마케팅 효과가 이어질 수 있음
- 수교 기념행사들을 사업별, 행사별 목적과 성격에 따라 상위 타이틀로 분류하여 관리 및 홍보하고, 하나의 브랜드로서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이미지 구축이 가능

14. 테마 기반의 수교기념 문화행사 기획

☐ 필요성

- 수교기념 문화행사는 정부 주도의 문화행사로 국가적 정체성과 정치적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쉽고 또한 이질적인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문화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수교국에 따라 정치적, 외교적 민감한 이슈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

- 어 상황에 따라 매우 형식적인 수교행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국가간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협력 프로젝트는 이러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문화예술교류 행사로서 진행되어야 함. 국제적 이슈와는 별개로 교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예술인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테마를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가의 정치적 상황을 떠나 인류 보편적인 이슈를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함으로써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이러한 대 주제 기반의 프로젝트는 공연, 시각예술, 영화, 문학, 애니메이션, 지식 교류 등 모든 장르를 아우를 수 있는 구조가 됨
- 따라서 다른 장르와 분야가 소통하고 협업하는 확장된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수 있음

□ 사업내용

① 인류 보편적 주제 등 테마 기반 문화행사 기획

- 교류의 프레임을 분야와 장르로 한정하여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대주제, 즉 테마 기반으로 접근한 문화행사 기획
 - 예를 들어 ‘환경’, ‘기후’, ‘Well-aging’, ‘AI기술’ 등 대주제로 선정하여 각 장르별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
- 공통된 주제나 테마를 바탕으로 한일 수교기념 문화행사 기획 시 미래가치, 양국의 발전 방향 등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
 - 양국의 전통문화 혹은 문화예술 단체의 단순한 왕래공연이 아닌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바탕으로 재해석된 스토리의 공연을 기획
 - 각각의 공연, 전시 등의 프로그램이 공통된 ‘메시지’를 담아 양국에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

<사례 :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 >

- 국립현대미술관과 대한치매학회는 2015년부터 매년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여 운영
- 2019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서울, 덕수궁에서 현대미술을 통해 가족의 행복했던 기억과 일상을 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음

[그림 5-14] 치매 가족 프로그램 예시1 [그림 5-15] 치매 가족 프로그램 예시2



②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주제 심포지엄을 개최

- 개막 단계에서 학술, 예술, 문학,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주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와 연계된 장르별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
-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학술행사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신청,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나누는 오픈된 행사로 사회적 관심을 높임

<사례 : 2017 한·영 컨퍼런스: 창의적 나이듦(Creative Ageing)>

- 주한영국문화원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배령재단과 함께 <2017 한·영 컨퍼런스: 창의적 나이듦(Creative Ageing)> 및 라운드테이블을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
- 영국과 한국의 창의적 고령화 분야 전문가들이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파생되는 공통의 여러 사회적 이슈와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함
- 강연, 라운드테이블, 시니어 참여형 워크숍 등을 진행함

□ 기대효과

- 수교 상대국가에 따라, 또는 수교기념 문화행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따라서 정치적, 국제 외교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이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형식적인 수교행사 진행을 탈피하고 공통의 주제기반으로 독립적인 행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계기로 국가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음
- 인류보편적인 주제의 심포지엄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수교행사를 진행하는 양국뿐 아니라 주변국가의 관심도 유도할 수 있으며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음
- ‘환경’, ‘기후’, ‘Well-aging’, ‘AI기술’ 등의 공통의 주제는 문화예술부 문뿐만 아니라 타산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국내기업 및 기술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음

15. 수교기념 문화사업 예산 증액 및 유연성 확대

□ 필요성

- 수교기념 문화행사는 해외 파트너와 공동 주최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면에서 일반 국제문화교류 행사보다 수월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 따라 수교기념 문화행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함
 - 외교 계기성 사업으로 특정 예산이 분배되는 것에 대한 금액의 규모와 실행 가능 기간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체계가 없어 사전에 이에 대한 대비가 불가능함
- 예산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음
 - 수교 계기 예산이 당해 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어 중장기계획을 위해 사전/사후 사업을 고려하여 예산을 반영하기 힘든 실정임

① 수교기념 문화행사에 대한 예산 증액

- 수교 문화행사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고, 민간 공모를 늘려 정부주도형 행사를 시민참여형 행사로 인식을 전환
 - 현재까지 수교 계기 문화사업에 대한 민간 공모들이 활발하지 않았음
 -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족과 사전정보 공유의 부재가 꼽히고 있음
- 시즌제 형태의 통합적인 국제문화교류 브랜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수적임
 - 이는 단발적 수교 문화행사를 탈피하고 장기적·지속적 문화교류의 초석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국제문화교류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점인 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 고용자를 확대하고, 국제문화교류 연구 및 현장 전문가 양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수적임

② 권역별 통합 예산교부

- 유럽 등 같은 권역 안에서는 전시·공연의 순회가 가능함으로, 권역별로 도래하는 수교 계기 국가사업 예산을 통합적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과 안에서 기금신청을 할 시, 한 권역 안에서도 국가별 단위사업으로 교부받고 있는 형태임. 이 경우 한 국가별로 책정된 예산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 전략을 세우기 부족함
 - 하지만, 제안한 것과 같이 권역별로 예산을 묶어 교부가 가능해진다면, 2-3년 정도 중장기적 공연·전시 순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됨
 - 결론적으로, 권역별 순회공연을 추진하면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행사를 도모할 수 있음

③ 예산 실행의 유연성 확대

- 수교기념 문화사업의 예산이 사전/사후 사업을 고려하여 반영되면

중장기적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음

- 시각예술의 경우, 대규모의 전시 문화행사 개최를 위해서 사전 조율 기간이 최소 1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1년 단위의 예산 및 기획 제도로 어려움이 동반됨
- 수교를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를 기획할 경우, 전시의 경우에는 최소 2년에서 3년의 기간이 요구되며 영국 내 우수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하기를 희망 시 5년 전에는 협의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수교기념 해에 맞춘 장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예산 사용의 유연성을 부여해야 함

□ 기대효과

- 수교기념 문화행사에 대한 예산 실행의 유연성 확대로, 3년에서 5년 전 미리 국제문화교류 계획을 세워두는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호흡으로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됨
- 권역별 통합 예산교부로 권역 단위 순회공연을 통해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행사를 도모할 수 있음
- 수교기념 문화사업의 확대를 통해, 한국과의 거리, 사회·문화적 장벽, 한국과의 교류 비활성화 정도 등 여러 장애 요인으로 인해 교류의 기회가 적었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경험 기회 제공